



11

주제 97(200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7(2008)년 제11호

(루계 제733호)

차례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이 깃든 현지지도단위들에 깊이 들어가 현실체험과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자.....	3
푸른 하늘 (외1편).....	6
금당벌은 잠들지 못한다	6
비날론의 땅에서	7
대동강가에서 부르는 노래	8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9
철창속에서도.....	9
주체문학의 대강	10
인민의 아버지	10
기념사진 (외 1편).....	11
교단에 설 때면	11
《삼복철강행군》에 대한 매혹의 형상세계	12
인민사랑의 길을 따라.....	16
어머니는 못 속여.....	19
시대어에 대한 생각	20
오, 북관대첩비	21

나는 백두산돌격대원.....	22
선군현실에 대한 진지한 탐구정신.....	24
내 아들은 이렇게 자랍니다	28
넋의 탐	29
우리는 백두산유격구시절처럼 산다	36
초소	37
열쇠	46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47
처녀의 사진	48
농민전사	52
퇴근길에서	53
어머니마음	60
인생의 뿌리	61
향가	61
나는 영원히 백두의 딸입니다 (외 2편).....	62
백두의 해연은 사랑을 노래한다	62
이것은 추억이 아닙니다	62
작가 리동규와 그의 창작활동.....	63
중세문학의 한페이지를 장식한 고려 말기 시문학	64
을사년이듬해.....	66
농부 (외1편).....	76
국화	76
아들아, 이것이 언제란다	77
《소정지옹》에서 《도향》으로...	79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이 깃든 현지도단위들에 깊이 들어가 현실체험과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자

우리 작가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기념한 크나큰 공지와 자랑안고 올해년말을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창작전투를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년말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것은 작가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의 자욱이 깃든 현지도단위들에 먼저 깊이 들어가 현실체험과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지도단위를 잘 꾸리고 빛내여나가는것은 당과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도를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열정에 넘쳐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올해에만도 새해정초부터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함께 인민경제부문들에 대한 현지도도를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레성강발전소 건설장, 강계돼지공장, 장강군 토끼종축장, 고산과 수농장, 청진염소목장, 경성도자기공장, 2.8비날론련합기업소, 통천군 신암협동농장, 대계도간석지 건설장, 대동문영화관, 옥류관 등 많은 현지도단위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장군님을 모시였던 그날의 영광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혁명적군인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장군님께서 현지도에서 제시하여주신 강령적과업들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낼 드높은 결의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이들은 우리 조국이 천리마의 나래를 펴고 주체의 강국으로 비약하게 한 강선의 노을, 자력갱생의 노을이 온나라를 뒤덮게 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시였던 현지도단위들이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리는데서 언제나 앞장설것을 바라고

있다. 이것은 시대와 인민의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다.

작가들은 당의 의도와 시대와 인민의 요구를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 관철에서도 당사상 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자기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야 한다.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현지도단위들에 내려가 현실체험과 창작활동을 적극 벌려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여기에 깃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지도단위들에서 해당 단위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백두산위인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현지도단위들에서는 공장이나 농촌 그 어디라 할것없이 자기 모습이 날마다 새롭게 변모되고 사람들은 여기서 누구나 새로운 신심과 희망에 넘쳐 자기들의 보람찬 로동생활을 하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가고있다. 이는 전적으로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며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오늘도 모든 일을 해나가는 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작가들이 현지도단위들에 아로새겨진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모습, 그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잘 알아야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더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낼수 있고 나아가서는 백두산위인들의 위인상과 그 불멸의 령도업적을 소리높이 구가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현지도단위들에 내려가 현실체험과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또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장군님의 강행군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고무추동하는 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내기 위해서도 필요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숭고한 리념

을 안으시고 인민이 더 살기 좋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이 땅우에 하루빨리 일떠세우시기 위해 불철주야 위대한 현지도의 길을 가고 또 가고 계신다. 그 자랑찬 길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애국헌신의 선군장정, 인민사랑의 장정길이다.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단위들에 깊이 들어가 여기서 살며 투쟁하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생동하게 그려낼 때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힘있게 전진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하는 힘있는 무기로 될것이다.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현지도단위들에 내려가 현실체험과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장군님께서 준엄한 선군의 길에서 마련해주신 시대적본보기들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서도 의의가 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시는 현지도의 길마다에서 수많은 시대적본보기들을 마련해주셨다. 나라의 도처에 마련된 닭공장, 메기공장, 경공업공장, 발전소, 물길 등들은 새 세기 선군시대의 본보기들로 자기 위용을 마음껏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나라 방방곡곡의 현지도단위들에서는 오늘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는 무수한 새 전설들이 편이여 창조되고있으며 여기서 자랑찬 기적과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 나라에 현실로 펼쳐진 장자강의 불야경, 한드레벌의 지평선,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범안리의 선경 등은 결코 모든것이 편안하고 순란한 과정에 마련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준엄한 선군의 길에서 우리 인민과 조국의 래일을 위해 하나하나 힘들여 마련해주신 위대한 선군시대의 본보기들이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도해주신 단위들의 성과가 귀중한것이며 우리는 그 단위들이 본보기로서 전국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갈것을 바라보고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단위들에 내려가 현실체험도 하면서 창작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벌리는것은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현지도단위들에 깊이 침투하여 현실체험과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려야 하는것은 또한 《고난의 행군》시기 강계정신이 창조된 자강도를 비롯한 현지도단위들의 모범과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해서이다.

언제나 긍정적인것을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모두가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지금 우리 나라 그 어디를 가보나 경애하는 장

군님께서 다녀가신 현지도단위들에서는 생산도 잘되고 혁명적군인문화가 활짝 꽃피나 사람들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참담게 이바지하고있다.

현실은 작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단위들에 적극 내려가 여기에서 시대의 전형들을 찾아내여 그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온 나라 인민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따라서 작가들은 자기들이 지니고있는 영예와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단위들에서 선군시대의 전형적인간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형상해냄으로써 창작되는 작품들이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 길동무로 되도록 하는데 참담게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

지난 시기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단위들에 깊이 들어가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뿐아니라 시, 단편소설들을 수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장군님의 현지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참담게 이바지하였다. 이것은 작가들의 크나큰 자량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늘도 많은 인민군부대들과 함께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도로 낮과 밤을 보내고계신다. 이는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발자욱을 따르고 또 따르며 선군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낼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가 다 아바와 같이 작품의 철학적인 종자도 현실에 있고 그것을 꽃피울수 있는 형상의 원천도 그속에 있다. 현실을 떠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절대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는것은 이미 우리 작가들이 창작실천을 통하여 절실히 느끼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현지도단위들에 깊이 들어가 현실체험과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작가들이 장군님의 현지도단위에 깃든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파악하기 위해 힘쓰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도단위를 찾으실 때마다 언제나 그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높이 평가도 해주시고 더 큰 성과가 이룩되도록 고무도 해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장이면 공장이 생산이 더 잘되도록, 간석지면 간석지가 만년대계로 건설되도록, 농장이면 농장에서 더 많은 알곡이 생산되도록 찾으시는 곳 그 어디에서나 천리혜안의 예지로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요계신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도단위들에서 창조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아름다운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그들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한없이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있어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는 단위들에서는 생산도 건설도 창조도 모든것이 잘되고있으며 나날이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가져다 주실수 있는 불멸의 령도업적인것이다. 이로부터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단위들에 들어가 먼저 해당 단위에 깃든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무엇인가, 또 그것이 어떻게 꽃피었으며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먼저 깊이 파악하는데 1차적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단위에 깃든 불멸의 령도업적을 문학작품으로 소리높이 구가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현지지도단위들에 깊이 들어가 현실체험과 창작활동을 벌리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작가들이 뜨거운 창작적열정을 가지고 현실을 대하는것이다.

창작적열정은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아무리 현실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열정이 없이 그저 관망하는 식으로, 취재하는 식으로 현실을 체험해서는 약동하는 생활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탐구할수도, 가치있는 작품도 창작해낼수 없다.

작가들은 창작적열정이 높아야 선군시대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고 심장으로 받아들이수 있을뿐 아니라 군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해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자기들의 심장을 창작적열정으로 불태워야 한다.

작가들은 늘 생활을 그려내지 않고서는 못 배길 정도로 생활에 대한 체험을 쌓고쌓으며 가슴속에서 늘 열정이 끓어번져야 한다. 작가들은 낮에는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노동자, 농민이 되어 생활을 체험하고 밤에는 창작을 하는 혁명적기풍을 적극 확립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단위들에서 다시금 선군시대의 숨결과 맥박을 뜨겁게 느낄수 있고 선군시대 인간전형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진정으로 체험할수 있으며 결국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해내는데 기여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단위들에 내려가 현실체험과 창작활동을 실속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깊은 창작적사색속에서 인간과 그의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는것도 또한 중요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시바와 같이 창작은 사색의 과정이며 작품은 사색의 산물이다. 창작적사색이란 머리에 우연적으로 떠오르는 그 어떤 《령감》이 아니라 작가의 꾸준하고 인내성있

는 탐구과정이며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의 반영이다.

작가들은 언제나 창작적사색을 깊이 하여야 생활을 정확히 인식, 파악할수 있으며 그것을 예술작품에 옹게 반영할수 있다. 깊은 창작적사색이 없이는 아무리 현실에 접근한다 하여도 현실생활을 옹게 파악할수 없고 새로운것을 찾아낼수 없으며 형상창조의 구상을 완전히 무르익힐수 없다.

철학적무계가 있는 종자의 발견도, 기발한 예술적환상과 뜻깊은 묘사도, 형상창조의 완전한 구상도 작가의 깊은 사색을 전제로 한다. 이로부터 작가들은 잠자는 시간을 내놓고는 시간을 아껴가며 끊임없이 사색하고 또 사색하여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해냄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현지지도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보람찬 투쟁을 더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현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뿐아니라 묘사대상도 다양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작가들이 현실을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체험하는것도 중요하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현지지도단위들에 깊이 들어가 그곳 일군들과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늘 한가마밥을 먹으며 함께 일도 학습도 하고 문화정서생활도 같이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창작을 진행함으로써 언제나 흙냄새, 기름냄새가 폭 배인 선군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해내야 한다.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현지지도단위들에 깊이 들어가 현실체험과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게 하려면 창작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창작지도일군들은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이 지녔던 품성과 일본새를 지니고 그들처럼 일함으로써 작가들의 현실체험과 창작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잘돼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창작지도일군들은 작가들의 창작적개성, 취미와 성격에 맞는 대상지를 정확히 설정해주고 단계별 창작수행목표에 맞는 총화사업도 잘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작가들과 현실체험을 같이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사상동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필봉이 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단위에 깊이 들어가 현실체험과 창작활동을 실속있게 벌려 우수한 작품들을 보다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고고수하고 빛내일뿐 아니라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로서의 영예와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홍영길

푸른 하늘 (외 1 편)

정영호

그 무슨 뜨거운 생각을
두렁길에 자욱자욱 새기시는것일가
넘칠듯 일렁이는 벼바다위에
백학은 흰 나래 스칠듯이 미끄러지고
훈풍은 다정히 옷깃을 흔들고

그 무슨 깊은 생각을 이랑이랑
끝없이 실으시는것일가
울마다 줄당콩도 탐스럽게 주렁진 풍성한 마을
노오란 햇병아리들 오구구 어미닭 쫓는 마당가
저 멀리 휘어져나간 동구길에
오래도록 눈길을 없으신채

아 어버이수령님
허리에 없으시였던 두손을 떼시더니
나직이 외우시었네
여기 5작업반갈매부락에서
소학교까지는 거리가 좀 멀다고

끝없는 자애에 실린 그 음성
봄물처럼 따뜻이 흘렀네
여느날은 몰라도 눈비 내릴 때면
어린것들이 어떻게 오가겠는가
통학버스 한대를 보내주자고...
농사작황을 두고
그 무슨 긴한 말씀 주시려나
새로 토지정리한 포전농사
비배관리를 물으시려나

바재이던 사람들모두 굳어지네
너무도 뜻밖의 말쑥에

친부모들도
언제한번 가슴속에 새겨보지 못한
비 젖은 길에 찍혀지는 어린것들의 자욱자욱
차거운눈길에 발목을 묻히우는 자욱자욱
그이께선 눈에 밝혀와서
마음속에 아프게 새겨보셨거니

이 나라 아이들의 귀여운 그 얼굴에
그들을 모르는 웃음을 피워주자고
티없이 밝고 창창한 미래를 열어주자고
그 한포기 한포기 이삭이 그리도 소중했구나

그때문에 바로 그때문에
우리 일년열두달
끓은 땀 뿌리는것이리
이 나라의 한치한치 땅에는
그렇듯 크나큰 사랑이
그렇듯 숨엄한 사랑이 숨쉬고있구나

찬비 뿌려도 눈보라 태질해도
통학버스 차창가에 앉은
금당마을아이들의 마음속엔
그 언제나 티없이 푸른 맑은 하늘
어버이수령님 펼쳐주신
아, 사랑의 푸른 하늘

금당벌은 잠들지 못한다

말쑥한 둥근 보름달이
고요히
밤하늘가 헤염친다
추억의 바다
흘러간 나날의 물결을 거슬러

있새마다 도글도글 밤이슬 굴리는
강냉이바다 저너머 실려온다
금나락 흥치는 소리 흐뭇이 들으며
이 한밤 기쁨을 나누고싶지만
산간지대 농사도 가보아야겠다고
둥근달 이고 또 이어가시던 수령님영상
가슴에 젖어든다

자꾸만 따라서며 서운해하는
우리 마음에 그들이 질가봐
미끄러지던 차를 멈춰세우시고
다시 오마
그리도 절절히 남기시던 그 약속

그 약속 때없이 되새겨보며
마을앞 동구길에
그날의 두줄기 차바퀴자욱
마음속에 뜨거이 쏘아보면
그리웁은 누를길 없어 하늘가에 닿아라
아, 오시는가
저 끝간데없이 넘실대는

이삭의 바다, 이삭의 물결 헤치시며
어버이수령님 정녕오시는가
걸음걸음 호탕한 웃음 터치시며

생각할수록 뜨거워지는 걱정 못이겨
조용히 눈길을 들면
동구밖 고개마루 둥근달속에 어려온다
농사를 잘 지었다고
이밤도 환히 웃고계시는 수령님모습

하늘땅 가득히 어려온다
술하엔 천만자식
그래서 걱정도 천만가지

어느 하루 맘편히 지낸적 없이
때식도 밤잠도 미루며 보살피주신 그 사랑
한평생 쌓인 로고 무거우시련만
천만자식 마음에 기쁨만 주시려
언제나 밝게만 웃으시던 우리 어버이

아 금당별은 잠들지 못한다
못 잊을 그리움속에 추억속에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 지는
수령님 그 사랑에 겨워 정에 겨워
하늘가 아득히 끝없이 설레이며
진정 금당별은 잠들지 못한다

비날론의 땅에서

리광선

비날론이여
너를 두고 생각할 때마다
이 가슴에 차오르는 자부심
그것은 다만 내 나라에서
비날론이 발명된 그때문인가

여기 비날론공장의 드넓은 구내엔
오늘도 력력히 새겨져있다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려
갈대만 무성하던 룡흥벌을
다 밟아보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몸소 조업식테프를 끌어주셨던
영광의 그 자리에 서면
인민의 행복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그 한생
비날론에 비낀 사랑의 세계로 펼쳐져
한가슴에 물결쳐오는듯

그래서 5월의 무르익은 봄바람이
향그러이 구내길에 감돌던 그날
또다시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
수령님이야기로, 수령님추억으로
우리 가슴 후덥게 해주신것인가

공화국의 주석이시기 전에
마치 한 공장의 지배인이신듯
공장의 운영을 일일이 다 돌보시며
어버이수령님
비날론으로 펼쳐오신 사랑의 그 세계

수령님 그 뜻을 더 활짝 꽃피우시려
아직은 나라의 어깨에
시련의 짐들이 무겁게 실려있건만
공장의 현대화를 단호히 선언하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

빨리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생활을 추켜세워야 하겠다고
그이 열정에 넘쳐 말씀하실 때
인민이 누려갈 천만가지 기쁨이
드넓은 구내에 차넘쳐 흐르는듯

이제 우리의 비날론은 우리의 아이들을
더 곱게 단장시키리
비날론공장구내와 잇닿아있는
하많은 경공업공장들에선
새라새로운 생활필수품들이 쏟아져나오고
인민생활은 날을 따라 높아지리니

오, 비날론
정녕 네가 태어나서만
우리 누리게 되는
그 생활의 기쁨이던가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 뜨거운 그 사랑으로
펼쳐가시는
인민사랑의 그 세계가 뜨거워
내 조국은 영원히
비날론의 력사와 더불어 자랑떨치리라!

대동강가에서 부르는 노래

김석범

고인돌과 선돌을 다듬어 세워가던
우리 선조들이
《대동강문화》를 창조하던 그 아침에도
너의 기슭엔
휘날어진 버들가지 맑은 물가에 비쳤으리

대동강아 말하여다오
그 언제부터 너의 기슭에
오늘처럼 황홀한 신비경이 펼쳐졌더냐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차고넘쳤더냐

그날은 유난히도 청청한 60년전 9월
가을안개 서서히 피어오르는 강기슭에
우리 수령님 조용히 서계시였다
백두의 풀물이 어런 군복차림그대로

—동무들, 우리 여기에
나라의 공업화를 떠메고나갈
기술인재양성의 종합적인 기지를
하나 멋있게 꾸려줍시다

아 그래서였구나 우리 수령님
해방된 이듬해 첫눈이 내리던 그 저녁
공학자의 큰 꿈을 안은
한 학생을 저택에 불러
항일의 날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자신께서 몸소 보시던
보물진 《사회주의공업화》책을 안겨주신것은

정녕 그래서였구나
풍치 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인민의 첫 공업대학이
뿌리를 박던 그날에는
백두산녀장군 김정숙어머님께서
어리신 장군님과 함께 대학건설장에 나오시여
무거운 벽돌지계를 지시고
환히 웃으신것은...

이렇게 태어났다
혁명의 첫기슭에서 조용히 울리던
고유수 삼광학교의 랑랑한 글소리가
민주의 첫 공업대학 창가에 메아리쳐
새 조선 건설의 교향곡으로 울리고
어지러운 식민지노예교육의 진탕을 털어버린
내 나라의 민족기술인재들이
건국의 기둥들로 역세계 자라났으니

내 후더운 눈을 들어 너의 기슭을 바라보니
저 멀리 안겨오누나

지금쯤 《아리랑》황홀경이 펼쳐졌을
그림같은 5월1일경기장의 은빛지붕이며
새롭게 개건된
옥류관의 자태 또한 장관이구나

허나 대동강아
우리 거기서 머무르지 말자
옥류교와 련광정, 대동교를 지나
여기 영광의 기슭
불멸의 사적앞에서
잠시 흐름을 멈추어보자

우러르니 뜨겁게 안겨오누나
우리 수령님 친히 높이 불러주신
우리 나라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
금빛현판에 깊이 새기여주신
그 이름— 《김책공업종합대학》

지구우에 하많은 산과 골을 마다하고
이 땅에 터를 잡은 너 대동강아
너도 여기 평양의 품에 안긴
영광과 행복의 물줄기일진대

말하여다오
나의 추억 네가 더듬고
너의 노래 내가 다듬어
웨치고 불러도 가닿지 못하리니

후대들을 위해 바치신 그 사랑
어찌 이 기슭에만 머무르고
인민위해 베푸신 그 은덕
어찌 네 기슭에만 스며들었느냐

아 우리 수령님
해방후 건국의 그날로부터
준엄한 전화의 50년대를 거쳐
공업화의 열풍이 몰아치던 60년대 70년대...
자랑찬 비약의 년대와 년대로 이어진
아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자욱이여

생각도 가슴젖는 1993년 5월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교육부문 현지도의 마지막자욱도
여기 김책공업종합대학
이 기슭에 남기시였거니

너 대동강 력사의 증견자여
우리 함께 소리합쳐 높이 웨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내가 국내에 들어간 **형권삼촌**네 무장소조의 활동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접한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였다.》

《그때 **형권삼촌**은 법정에서 일제의 죄상을 추상같이 단죄하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소리높이 웨치였다고 한다.

삼촌이 이처럼 법정에서 당당하게 처신할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혁명에 대한 신념과 충실성이였다고 생각한다. 삼촌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간을 정의롭고 용감하게 만들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신념에 대한 배신이였을것이다.》

《나는 **형권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카륜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없이 내던진 수많은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보군 한다.》

철창속에서도

곽명철

절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쳤다
불행하게도 원썬들에게 체포된
조선혁명군의 첫 무장소조원들
어느 감방안에 계실 김형권선생님을 그려보며

웃음어린 눈길로 따듯이 내려워주시던
김일성 동지의 그 믿음어린 과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 그 안타까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커만 가는데

감방벽을 조용히 울리며 전해온
김형권선생님의 고무어린 통방소리
동무들! 신심을 잃지 말라
이 감방도 다름아닌 우리의 투쟁무대

비록 손엔 수갑이 채워져있고
발엔 족쇄가 묶여져있어도
선생님은 소조가 내던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어라
감옥안에서도 키워낼 사람
다 품안아 자라왔어라

삼천리강토를 밝게도 비치는
찬란한 민족의 태양
김일성, 그분만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그이따라 손에 무장들고 싸울 때
조선은 반드시 해방된다고
선생님은 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셨나니

아우성을 쳤더라 원썬들은
가는 곳마다 혁명의식을 부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투사로 억세게 손잡아 키워주시는
김형권선생님의 불굴의 모습앞에

날이 갈수록 놈들의 고문은 더 악랄해지고
피투성이된 몸은
형체를 알아볼길 없었어도
저 멀리 백두산을 바라보시는
선생님의 얼굴엔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거니

아, 정녕
몸은 비록 철쇄에 묶이웠어도
백절불굴의 의지를 안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신념의 무기를 엮어주며
무장소조의 임무를 마지막까지 빛나게 수행한
선생님의 그 모습은
오늘도 세대의 가슴을 끝없이 불태워주고있어라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대중화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문학을 대중화한다는것은 광범한 군중을 문학창작활동에 널리 참가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학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하는것을 말한다.》

《문학통신원들은 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선구자이며 믿음직한 작가후비이다. 군중문학창작의 새로운 고조기를 마련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군중문학소조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문학통신원들의 창작적열정을 비상히 앙양시키는것이다. 문학통신원들은 오늘의 벽찬 현실을 직접 창조하고있는 생활의 주인공이며 낡은 창작경향에 물들지 않은 신진창작력량이다.》

《문학통신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일제와 싸우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였던것처럼 강毅한 혁명정신과 높은 창작적열정을 가지고 분초를 켜내어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내야 한다.》

인민의 아버지

리수원

오시였네 경애하는 장군님
북방의 도자기공장에 찾아오셨네
해빛같은 환한 미소 지으시며
그이께서 도자기진렬장에 들어서시였네

그이 진렬장에 들어서시니
신비의 세계가 펼쳐진듯
도자기들도 제 모양 제 모습 가다듬고
그이의 기쁨 되려고 령롱한 빛을 뿌리는듯

진렬장을 돌아보시던 장군님
말씀하셨네 가벼운 미소 지으시며
어느 공예창작단의 전시장에 온것 같다고
그러자 일군들 너나없이 웃었네
그이께서 진렬품에 만족한것 아니신가...
한생 도자기와 함께 살아온 지배인
희한한 도자기를 만든다는 만족감에
색깔고 멋진 제품들을 바라보며
행복에 겨웠네 그이께 보여드리는 기쁨에

밥사발, 국사발무늬 눈여겨도 보시고
꽃단지, 꽃병 들어도 보시며
천천히 진렬대앞 오가시던 장군님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네
—진렬장의 도자기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도자기를 많이 만들

어야 합니다

일군들의 가슴 뭉클 젖어들었네
새로운 도자기를 진렬할 때마다
보는 사람모두 감탄할거라고 기뻐해도
인민의 집집에 가닿게 할 생각했던가

자신의 기쁨을 인민의 기쁨에서 찾으시는
우리 장군님
그 무엇 하나 만들어도 인민이 좋아하는가고
인민의 기쁨에서 만족을 찾으시는 그이
인민을 위한 마음 그리도 불같이 뜨거우시여라

일군들은 보았네
그이의 사랑의 해발을 따라
백옥같은 밥사발, 국사발이
문양고운 단지들과 꽃병들이
물결되어 집집에 흘러흘러
찬장에 얹히고
아래방 옷방에 장식될 그날을...

다시 한번 느끼었네
인민을 위해 일한다는 말의 참뜻을
그리고 보았네
인민의 집집마다 놓여질
도자기 《진렬장》들을

기념사진 (외 1 편)

차숙님

해빛밝은 우리 집에
정히 모셔진 한장의 기념사진
아버이수령님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

승엄한 마음안고 우러르면
기쁨의 환호로 설레이던
잊지 못할 40년전
영광의 그날이 어러오나니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과학기술인재를 키워내는
원종장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던
아버이수령님

교원은 아는것이 많고
강의를 잘해야
학생들이 존경하고 따른다고
따뜻이 일깨워도 주시고

주신 사랑 적으신듯
우리모두를 사진기앞에 불러주실 때
수령님 그 품에 모두 안겼습니다

나도 그 품에 안겼습니다

아 영광의 그날
수령님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
가슴부푸는 행복안고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보고싶은 딸이 왔다고
어서 내결으로 오라고
다정히 불러주시는 수령님 그 음성
금시 들려오는듯

그래서 아침이면 출근길에 앞서
저녁이면 들어서는 걸음으로
매일같이 우러르는
수령님 모습입니다

정녕 그날의 영광남친 기념사진은
우리 집의 귀중한 가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교원혁명가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라시는
다정하신 믿음의 음성 심장으로 듣고
날마다 보답할 의리의 마음 아뢰이며
수령님을 뵈옵는 영원한 세월입니다

교단에 설 때면

내 오늘도 강의안을 펼치고
탐구의 눈빛들을 마주할 때면
저 해빛은 창가의 한자리
흘러간 옛시절의 내 모습도
문득 눈앞에 어려와
남몰래 눈굽이 젖어듭니다

전쟁의 불길속에 고아가 된 나를
재더미속에서 안아준 손길은
나의 마음속 설움마저 씻어주고
쌍태머리 곱게 빗어 내세워주고
오늘도 나를 떠밀어주나니

이제는 내 머리도 희여가고
나를 스승이라 찾는 제자들도 많건만
시름없이 나의 요람까지 지켜주던
우리 당의 사랑의 손길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기에
문득문득 눈앞에 어리는
어릴적 나의 모습이여

잊지 말라고
마음은 늙지 말라고
약해지는 마음도 다잡아 세워주고
믿음속에 세워준 성스러운 교단에서
미래를 위한 혁명가의 한생을
변함없이 이어가라고 속삭이는 그날의 그 모습

아침마다 교단에 나설 때면
자신부터 마음을 다잡나니
조국을 위하여 세계를 내다보며
희망에 넘친 눈동자들이 나를 지켜볼 때
나는 마음속에 보답의 의리를 새깁니다

《삼복철강행군》에 대한 매혹의 형상세계

김 학

우리 장군님의 무한한 헌신의 장정—《삼복철강행군》에 매혹된 작가들이 시대적사명감을 안고 몸부림치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97(2008)년 6호에 실린 여러 형태의 다양한 작품들의 형상세계에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감득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의세계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삼복철강행군》에 대한 우리 작가들의 매혹의 형상세계는 우선 각이한 주제에서 탐구되였다. 이것은 작가들이 력사에 특기될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장정을 여러 각도에서 투시함으로써 불멸의 로고에 깃든 심오한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내려고 애썼다는것을 말해준다.

먼저 우리 작가들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매혹되였다.

모든것을 수령님식대로, 수령님의 생전의 유훈대로!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필생의 좌우명이고 본령이다.

찌는듯 한 무더위, 쏟아지는 폭우를 무릅쓰시고 동해천리를 종횡무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장정에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수령님의 념원대로 우리 조국을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우뚝 올려세우시려는 숭고한 충정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삼복철강행군》의 나날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숙연하신 어조로 하신 말씀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라의 화학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련해주신 혁명유산이다, 기업소를 어떻게 하나 현대화하여 아버지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

마디마디에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뜨겁게 실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충정의 세계에 어찌 우리 작가들이 격동되지 않으랴. 하여 한 시인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시 《잊지 않겠습니다》(전재훈 작)에서 이렇게 읊조리고있다.

...

언젠가는 홍남을 찾으시여
맑은 공기 흐리게 할수 있는
비료공장 공정도 바로잡아주시고
우리 비날론공장에 오셨을 때는
섬유직장 건조로의 먼지도
말끔히 없애도록 대책도 세워주신 수령님

아 수령님
우리 마시는 공기는 가벼워도
사랑의 무게는 끝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쏟아지는 제품을 보시기 전에
사람들의 건강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

서정적주인공은 《조업을 갓 시작한 비날론공장에서/비날론이 폭포칠 때/수령님 오신다는 소식에/밤새도록 꽃다발염던》 오랜 로동자이다. 그에게는 《아직은 이른봄날/날씨는 쌀쌀한데》 함흥에 오실 때마다 《공기를 가늠해보느라고/승용차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러 꽃다발을 흔들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추억이 뇌리에 깊이 새겨져있다.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을 기업소에 모시여, 아버지수령님을 못잊어하시는 그 숭고한 충정에 접하여 또다시 불길처럼 타올랐다. 하여 시가 《잊지 않습니다/잊지 않습니다/가난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위대한 인민의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을》이라고 웨쳤을 때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매혹된 수령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 수령님의 아들딸들의 신념과 량심의 분출이고 동시에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한 굴절된 찬가이다. 시의 철학적깊이와 인식적의의가 여기에 있다. 기행단상 《〈보배공장〉의 아침에》(김해성 작)에서도 작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도덕의리의 충정을 후더운 필치로 구가하고있다.

작가는 단천체련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면서 그들이 배경으로 정한 아연덩이제품더미앞이 아니라 배소로 굴뚝을 배경으로 두번씩이나 사진을 찍어주신 사실을 두고 걱정을 터뜨리고있다.

...

영원히 공해를 모르는 조국산천—일하기도 좋

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지상락원을 가꾸시려고 평생을 기울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이, 리상이 현실로 꽃핀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연기없는 굴뚝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신 우리 장군님 이시다. 하지만 가슴벅찬 그 시각에 일군들은 그이의 깊은 심중을 미처 헤아릴수 없었다.

나는 이 무딘 펜으로 현명한 독자들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다. 다만 한마디만 덧붙여 말하고 싶다.

우리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어린 배소로굴뚝을 기념탑처럼 화폭의 중심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으신 그 시각, 이 영광의 자리에 수자로써는 높이를 잴수 없는 충정의 탑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는것을. ...

얼마나 심오한 형상인가. 위인의 심중에 깊이 침투한 대담성, 그 《한마디》에 형상의 무한한 세계를 다 담아내는 펜은 《무딘 펜》이 아니며 《현명한 독자》들을 더 현명하게 만들었다. 작가는 이것으로 시대의 기수, 나팔수로 되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장군님의 도덕의리의 충정에 매혹된 작가의 심혼은 연기없는 배소로굴뚝을 두고 《이 굴뚝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하늘처럼 떠받드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을 길이 전하는 탑마냥 어제도 오늘도 사시장철 거연히 서있다.》고 쓴 길지 않은 문장에서도,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터전을 잡아주신...》이라는 짧은 규정적표현에서도 웅심깊게 드러남으로써 사람들을 무한한 수령 흡모의 경지에도 이끌어가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삼복철강행군》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이 땅위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그에 매혹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주체 101(2012)년까지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활짝 열어제끼려는것이 우리 당의 드팀없는 철의 의지이다.

불과 4년, 세기적인 꿈은 지척에 있다.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자욱자욱마다 눈부시게 일떠서는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의 기적적인 현실은 그 꿈이 결코 멀리에 있지 않다는것을 확증해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 강성대국은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건설되는 강성대국이다. 이런 자력갱생의 위대한 정신이 있는 한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시간문제이다.

그러기에 작가 김경일은 단편소설 《다시 찾는 열쇠》에서 무척예작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공을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웠다.

제대군인 청년과학자 서광명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마다 직업이 다르고 희망도 각각이지요. 하지만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오늘의 벽천

현실에서 누구에게나 삶의 보람을 찾는 열쇠는 하나라고 봅니다. 조국에 쓸모있는 지식과 완벽한 실력! 이것을 잃은 인간이 어데서 행복이나 삶의 가치를 찾을수 있겠습니까. 사랑에서요? 가정에서요? 재부에서요? ... 은주동문 바로 이 열쇠를 잃었다고 하는지요. ...

오늘의 시대엔 지식과 실력만이 충실성과 애국심을 쥔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엔 첨단지식만이 유일한 무기라고 할수 있지.

단 하루라도 무기소제를 하지 않고 조준련습을 하지 않는 병사는 이미 참다운 의미에서 병사라고 할수 없지요. 우린 군사복무의 나날에 그렇게 배웠소.》

이렇게 작가는 《삶의 보람을 찾는 열쇠》를 든 든히 간직한 서광명에게는 무한한 애정을 쏟아부었지만 《참된 사랑과 명예,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그 귀중한 열쇠를 잃어버린》 그의 애인 은주와 《삶의 좌표도 지향도 없이 보잘것 없는 기술에 스스로 도취되어 전진을 멈춘》 옥주(은주의 동생)에게는 무자비한 경멸을 안기고있다.

열쇠... 분명 작가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제강소의 경험은 생산장성의 기본열쇠는 자기 힘을 믿고 기술적진보를 이룩하는데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하신 말씀에서 작품의 종자를 찾은것 같다. 그리고 오직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살리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라는 관점밑에 모든 공정을 콤퓨터로 조종하는 최신기술로 장비된, 말그대로 실리가 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전변된 함흥목제품공장을 비롯한 《삼복철강행군》의 성스러운 로정우에 빛나는 자력갱생의 본보기공장들에서 진지한 현실체험을 하였다고 믿고싶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력갱생의 의지에 매혹된 작가적사명의 열도는 단막희곡 《앞날의 담보》(리기창 작)에서도 느낄수 있다. 강성대국의 앞날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을 인간학적으로 깊이 파고든 작품은 《삼복철강행군》의 심오한 의미를 폭넓게 밝히며 사람들의 시대적자각을 깨우친다.

주인공 정길은 아직 대학에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생이다. 하지만 그는 기성의 연구사들도 싯트 손대기 주저하는 분야의 과학에 접어들었다. 비날론중간제품에 대한 연구이다. 그의 학문탐구의 목적은 확고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선군시대의 자력갱생은 우리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 아닙니까? 더우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삼복철강행군》을 단행하시여 수많은 공장들과 기업소들에서 이룩된 기술개건의 창조물들을 보시고 그토록 귀중하게 여겨주신것이 바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행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아니였습니다니까! 그래서 저도 그

렇게 준비되고싶었습니다.》

그가 비날론중간제품연구에 달라붙은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비날론공장의 여러 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우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맡겨주신 과업》이기때문이다.

그는 실험을 하다가 폭발하여 한쪽눈을 상했지만 병원에서 한 연구사의 폭발제거연구안을 완성하여 넘겨준다. 마다하는 연구사에게 하는 그의 말 역시 뜨겁다.

《그러지 않아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삼복철강행군〉을 단행하시며 우리가 생산한 새형의 기계설비들에 질 좋은 도색만 하면 손색이 없을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론문을 꼭 은하연구사동무가 생산에 도입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의 전형을 두고 대학교수 석민이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오늘의 과학기술 중시시대에 스승보다 새 세대의 제자들이 앞선다더니 얼마나 높은 과학탐구의 자세를 지닌 청년인가. 장군님과 사상도 뜻도 심장의 박동과 숨결도 함께 하는 저런 새 세대 과학자들의 깨끗한 마음에 떠받들려 우리의 주체과학의 창창한 앞날이 담보되는것이 아닌가! ...》라고 터뜨리는 격정은 자력갱생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에 대한 뜨거운 레찬이며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해 반드시 도래하고야말 강성대국에 대한 형상적확인이다. 또한 그것은 등장인물의 말이기 전에 《삼복철강행군》길을 걸음걸음 따라 걷는 작가의 심장의 웨침이다.

령도자의 위인상에 매혹된 심장의 눈은 가려보지 못하는 진리가 없다.

단천제련소의 《연혁소개설》에 진렬된 내산뿔프를 눈여겨보시면서 일군들이 올리는 보고를 더없이 만족하게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기행단상 《〈보배공장〉의 아침에》의 작가도 그것을 《비록 크지 않은 창조물이지만 제손으로 만들어 원수들의 경제봉쇄의 사슬을 여지없이 동강낸 내산뿔프》로 격조높이 구가했으며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대담하게 뛰어들어 《그 하나의 설비에서 오직 당과 운명을 함께 해온 이 공장의 역사를 읽으시》고 《따뜻한 손길로, 따뜻한 격려의 말씀으로 그 역사를 빛나게 장식해주셨》다는 시대의 진리를 명쾌하게 밝혀내었다.

최고사령부와 함께 《삼복철강행군》을 종군한 우리 작가들은 또 무엇에 매혹되었던가.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차례지게 하고 윤택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의 숭고한 정신이다.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복철강행군》의 전로정을 인민사랑의 장정으로 수놓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폭우가 억수로 쏟아져 구내는 비물이 발목을 잠그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한겹우산밑에 지배인을 끌어안으시고 물탕길을 헤치시며 구내길을 걸으시었다.

...형타마다 쏟아져내리는

색갈고운 장화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실 때

인민생활이 활짝 꽃피나는 현실을 안아보시며

환하신 미소를 작업장에 남기시고

현장을 나서실 때에도

비줄기는 하염없이 쏟아져내리는데

...

그런데도 어버이장군님께서 《안내해드리던/영예군인 한 일군을/자신의 우산밑으로 끌어당기시여/몸소 껴안고》, 《구내의 물탕길 사정없는 물탕길...》을 걷고걸으시여 공장의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보시고 귀중한 말씀을 주시었다. 하여 《선군시대가 펼친/〈삼복철강행군〉의/위대한 화폭》을 두고 시인들은 이렇게 웨친다.

...

아 우리 장군님 그날에 펼쳐드셨던

사랑의 우산밑에는

한 영예군인일군만이 아닌

오직 한분 그이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복받은 인민이 걸고있었다

위대한 내 조국이 다 안겨있었다

(시 《사랑의 우산밑에는》 김송남 작)

...

지뽁게 야속하게 쏟아지는 폭우에

장군님 야전복자락에선

차디찬 비방울이 쉬임없이 떨어지고

나의 옷설에선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떨어졌어도

이내 가슴속엔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이

더욱 뜨겁게 뜨겁게 흘러들었네

우리 영예군인모두의 심장에도

오늘도 그날처럼 파사로이 흘러드네

(시 《사랑의 해빛》 진춘근 작)

시인들은 보다 구체적인 시적정서로 인민을 위한 우리 장군님의 애민의 《삼복철강행군》장정의 의미를 폭넓게 일반화하고있다.

기초식품공장에 찾아오시여 《바로 그 된장맛을

/인민의 요구로 기쁨으로 안으시고/우리 만든 장장이
좋다고/그 맛까지 헤아려주시는/천만군민의
아버이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 《진정 그날에야/
진짜 된장맛을 똑똑히 알았》다고 토로한 시 《진
정 그날에야...》(진국 작)가 그러하다.

위대한 《삼복철강행군》에 매혹된 작가들은 대
상에 대한 보다 철학적인 사색으로 형상을 탐구
해 들어가면서 새로운 의미도출로 지향했는가 하
면 낭만적이며 약동적인 정서를 앞세우면서 거기
에서 시대적의미를 감득하도록 하는 형식도 활용
하였다. 이러한 형상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
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구가한 작품들에서 많이
보여지는데 짙은 생활적인 정서와 절절한 의지의
감정이 두드러지면서 새로운 미감으로 독자들을
끌어당긴다.

시 《아들의 노래》(리영 작), 《너인들의 일터》
와 2편(리미옥 작), 《조국과 나의 청춘》(김철혁
작), 《백두산으로 떠나거라》(박영숙 작), 역시 《증
기는 넘려말라》(주명옥 작)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
다.

시인들은 작품들에서 《삼복철강행군》에 대한
매혹을 직접적으로 노래하기보다는 위대한 장정
의 거룩한 자욱우에 꽃피는 고장과 일터에 대한
애정과 위대한 자욱을 끝까지 따르려는 불타는
맹세와 의지속에 다양하게 굴절시키고있다.

내 어린시절의 애명도 기억하는
정깊은 이웃들이 추녀를 잇대고 사는 땅
혈육같이 다정하고
허물없는 마음들이 곡식을 가꾸는 땅
...

시작부터 무한한 애정과 추억이 독자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고향떠나 멀리에 간지도 오래지만 시
인에게는 그리움이 너무도 절절하다. 《울쎅이 바
글대던 물도랑》, 《청개구리 뽕박질하던 너의 남
새발》...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볼수 있는 사람은 분명
향토애가 절절한 사람이다. 그러나 서정적주인공
에게 있어서 그 향토애는 단순한것이 아니였다.

...

가슴속 지닌 량심을
푸르름으로 보여주는 거짓 모르는 땅아
너는 나에게 가르쳐주었다
이 땅에 사랑을 묻고 땀을 뿌리는 법을!
조국앞에 이삭이 되어 고개숙이는 법을!

...

정녕 고향은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마르
지 않는 조국애의 맑은 샘을 부어주》(시 《아들
의 노래》중에서)는 삶의 젖줄기인것이다.

시에는 구체적인 시적계기와 정황이 주어져있
지 않다. 하지만 형상은 결코 애매하지 않다. 그
것은 시인이 고향과 자신, 조국을 두고 일상적으
로 사색하던 그 과정의 어느 충격적인 계기에서
터져나온것이기때문이다. 이 시인이 지난 시기 쓴
시 《꿈은 멀리에 있지 않았다》를 비롯한 많은 시
들이 그렇게 창작되었다. 모름지기 시 《아들의 노
래》로 향토와 자기자신, 조국을 두고 늘 사색하
던 과정에 《삼복철강행군》이라는 력사적계기의
충격으로 태어났을것이다. 시인의 바른 자세의 한
실례라고 말할수 있다.

위인에게 매혹된 진실한 량심의 맹세는 때로
《자책으로 가슴 저리》며 《울려 끝없을 장군님의
그 말씀/뼈저리게 새겨안고》, 《우리장군님/그 걸
음 한자욱이라도 덜어드릴》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서정적주인공의 목소리(《불타라 나의
심장아》 최정용 작)에서도 울리고 《장군님 따르
는 영원한 길에/백두의 그 넋을 이어가》라고 딸
을 백두산으로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모습(《백두
산으로 떠나거라》)에서도 보여지며 《내 젊음의
푸른 잎새/열백번 찢길지언정/병사로 육탄의 한순
간을 살아/조국의 안녕을 지키고싶었》던 영예군
인의 격조높은 목소리(《조국과 나의 청춘》)에서
도 그리고 《내 나라가 강해지는 기쁨이 꽃피고/
내 조국이 융성하는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녀
인들의 일터》를 궁지높이 이야기하는 방직공녀인
의 소박한 어조(《녀인들의 일터》)에서도 지어
《50년대 싸우는 고지의/그란약공급수》와 같은
《열관리공 내가 있는 한/중기, 증기는 넘려말라》
고 웨치는 자그마한 역시(《증기는 넘려말라》)
에서도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물론 구체적인 형상들에서는 일련의 단점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소설가 김해성이 자기의 기행
단상에서 《차림새도 속옷도 완전무결하게 갖추어
진 공장울!— 이것이 단천제련소 로동계급의 목
표이다. 형식도 내용도 새맛이 나면서 형상이 기
름진 작품울!— 이것이 내가 자기앞에 내세운 과
제이다.》라고 한 말은 결코 그 한사람의 결의만
이 아닐것이라고 믿고싶다.

성스러운 《삼복철강행군》길에서 우리 작가들
은 위대한 장군님의 문학적천품에 대해서도 절감
했을것이며 그것을 자신들의 창작적기량제고의
주추돌로 삼을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장하다. 최고사령부의 종군작가들이여! 우리 언
제나 그 위대한 믿음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백승
의 령장의 야전차를 함께 타고 태양의 력사를 저
하늘에 새겨가자.

《자기 조국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잘 알고 그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땅과 수형,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 없이 바쳐싸울수 있다.》

김정일

탐승기

인민사랑의 길을 따라

김혜인

우리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로정을 따라 백운산탐승의 길에 나선것은 한껏 여름이 무르익은 7월 어느날이었다. 머리회숙한 선배작가들과 함께 탐승의 길에 올랐을 때 나의 마음은 맑은 하늘의 송이구름인양 한껏 부풀어있었다.

이 글이 붓 뜬 내 마음처럼 실속없는 글이 되 지나 앓을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장군님의 사랑이 어린 백운산탐승의 길이 나에게 미흡해도, 서툴러도 붓을 들지 않고서는 못 견딜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다.

흰구름바다, 흰 꽃바다

백운산은 이름 그대로 새하얀 구름이 산허리를 늘 휘감고있어 산전체가 흰 구름속에 잠긴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명산이다. 해발 천여 m 에 위치한 백운산의 주봉 짜개봉을 중심으로 하여 좌측에 장쾌한 산주폭포와 만장폭포가 있고 백운산성자리를 지나 우측에 통홍사와 너중들이 살고있었던 절간 불지암이 있다.

새벽 일찌기 떠난 취재차가 백운산입구에 막 이르렀을 때였다. 누군가 아침노을속에 휩싸인 산턱을 가리키며 환성을 올렸다.

불붙는 노을빛에 새색시의 뺨처럼 발기우레하게 상기된 구름이 부끄러운듯 단풍나무숲속에 반쯤 몸을 가리우고 선잠을 깬 산발을 부드럽게 껴안고있었다. 불쑥 목화솜덩이같이 포근해보이는 새뽕얀 구름을 조심히 헤치며 이글이글한 불덩어리가 솟아올랐다. 눈부신 태양이 발밑에 펼쳐진 아름다운 산발을 좀 더 멀리서 구경하려는듯 한껏 발돋움하자 태양과 숨막꼭질하듯 교태를 머금은 산은 자기 몸을 휘감고있던 얇은 안개옷을 더욱 꽁꽁 껴입으려고 했으나 이미 금빛채광에 물든 투명한 안개는 아무것도 가리울수 없게 이리저리 흩어지고있었다. 서서히 걷히는 뽕얀 안개발이 백운산의 풍치를 한결 이채롭게 장식해주었다.

태양은 더욱더 용을 쓰며 황황한 열기를 내뿜

었다. 대번에 안개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다는듯... 그 뜨거운 입김에 마침내 얇은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말았다. 그러자 시원하게 트인 들판이며 숲이며 골짜기들이 푸르고 청신한 자기의 자태를 보란듯이 드러냈다. 실로 백운산에 서만 볼수 있는 류다른 아침풍경이었다.

태양과 만물의 희한한 조화앞에서 까닭모를 희열이 가슴가득 솟구쳐올랐다.

봄날, 푸른 하늘, 숲의 고요...

나는 저도 모르게 두팔을 좌악 벌린채 꼼짝않고 서있었다. 태양과 산을 아니, 이 땅의 모든것을 한몸에 그러안고싶은 강렬한 욕망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중나온 유적보존관리소 전현철소장이 우리를 찾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든 산의 향기에 흠뻑 취해있었을것이다. 40대 초엽의 젊고 패기있는 소장은 첫 눈에 호감이 가는 그런류의 사람이였다. 소장사업을 시작한지 꼭 한해만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는 커다란 행운을 지닌 그는 해설강사도 체쳐놓고 자신이 직접 그날의 감격과 기쁨에 대하여 세세히 이야기해주었다.

소장을 따라 우리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표식비앞이었다.

《영광군인민들이 세운 표식비라고 제가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서는 비문의 글발을 오래도록 지켜보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우리 백운산을 찾으신것은 이번까지 꼭 세번째입니다. 그이께서 처음으로 찾아오셨던 33년전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지나오신 바로 이 길이 포장조차 되어있지 않은 잡초무성한 오솔길이었다고 합니다.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정각과 휴양각도 짓고 명승지를 잘 꾸려 인민들이 즐겨찾는 현대적인 문화휴식터로 만들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바로 그날의 그 말씀이 이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주옥같은 표식비의 글발을 취재수첩에 적어넣으며 새삼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반듯하게 닦아진 도로며 층층계단들, 주변의 경치와 어울리게 지은 정각과 휴양각들...

무심히 자란 이름없는 풀 한포기조차 명산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여기 백운산에 이렇듯 가슴 뜨거운 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줄 어이 알았던가. 우리의 사회주의가 얼마 못 가 무너질 것이라는 적들의 각종 《붕괴설》이 지구상에 떠돌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몸소 백운산을 찾으시여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미래를 략관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조선사람의 기개를 세상에 펼쳐 주신 우리 장군님! 그이께서는 예서 그러보셨으리라.

고난의 마지막 어둠을 가져내고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이 땅에서 구름같이 백운산에 찾아들 인민들의 행복에 넘친 얼굴들이며 아이들의 랑랑한 웃음소리... 나는 슬며시 잠고있던 지팡이를 눈에 띄우는 천연바위뒤에 세워놓았다. 오늘을 위해 바쳐오신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속에 마련된 이 길로 편안히 지팡이를 짚고 걸어간다는것이 더없이 부끄럽게 여겨졌기때문이다.

관리소소장은 우리를 정각으로 안내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현지지도의 그날 특색있게 지은 이정각에 오르시여 참 잘 지었다고, 운치도 이만한 곳이 없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이어 식당을 찾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정교한 나무식탁을 손수 쓸어보시고나서 지난해 《삼복철강행군》의 길에서 찾으셨던 함흥목제품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라는것을 대변에 알아보셨다고 한다. 어이 이뿐이랴.

알심있게 꾸러진 농민휴양각의 매 방들마다에도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은 속속들이 스며있었다.

얼마전에 그이께서 보내주신 우리 나라의 관록있는 기자, 작가들이 이 멋진 휴양각에 들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돌아갔다고 한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자신께서는 휘몰아치는 눈보라며 강추위, 쏟아지는 폭우와 폭양도 마다치 않으시고 머나먼 선군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우리 작가, 기자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나라의 이름있는 명승지들을 다 다녀오도록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신 우리 장군님! 장군님의 그토록 넓고 깊은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 문필가들은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것인가. 우리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산주폭포 쪽으로 옮겼다. 마치 구슬이 알알이 흘러져내리는 것만 같아 그 이름도 산주인 폭포.

한쪽의 명화를 방불케 하는 폭포터의 맑은 물을 두손에 담아 쪽 들이키고난 우리는 장군님께서 걸음을 멈추시였던 자그마한 구름다리에 들어섰다. 아치형의 다리밑으로 장독의 땃배는 실히 뒹직한 둥글둥글한 흰 바위들이 들성들성 박혀있는데 그밖으로 산주폭포에서 떨어져내린 폭포수가 기세좋게 흘러간다. 다리우로는 랑컨으로 보기 좋게 자란 성큼한 목란꽃나무아지들이 무성한 그늘을 드리우고있었다. 드문드문 꽃잎들이 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퍼그나 피여있는 새하얀 목란꽃들의 이채로운 모양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소장이 설명을 달았다.

《목란꽃은 대체로 6월 초순에 접어들어서야 피기 시작합니다. 현대 올해에는 신기하게도 장군님께서 오시기 3일전부터 때이르게 목란꽃들이 활짝 피여난게 아니겠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만발한 목란꽃들을 부감하시며 백운산은 그 어느 명산들 못지 않게 아름답다고, 함흥시 번두리에 이런 유원지가 없기때문에 함흥시유원지나 같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여러곳을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신기한 자연현상들이 일어난다는 말은 자주 들어왔지만 실지 제 눈으로 목격한것은 이번이 처음이였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장군님은 하늘이 내신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찾아오신 뜻깊은 날에 때맞춰 피여난 목란꽃! 어이 이뿐이랴.

눈여겨 바라보니 주위는 온통 흰꽃천지였다.

목란꽃은 물론 자름자름한 목수국이며 동배꽃, 다래꽃, 까치밥나무꽃... 보기만 해도 마음이 청순해지는 갖가지 흰꽃들이 바다를 이루며 설레고있었다. 그야말로 백운산이 아니라 백화산이라 불려도 무방할것이다. 예로부터 새하얀 꽃은순결과 정결의 상징으로 일러왔다. 그이께 펼쳐드린 백운산의 흰 꽃바다야말로 자연이 보여드린 꽃바다이기에 앞서 모진 풍파가 휘몰아쳐도 변함이 없이 오직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따를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순결한 마음의 꽃바다가 아니겠는가.

푸른 숲과 하얀 꽃바다!

어쩌면 푸른것과 흰것이 저리도 잘 어울리는것일까. 푸른 숲의 청신함과 흰꽃의 순결함을 고이 간직한 백운산이야말로 영원히 당을 따라 한길을 걸어갈 너와 나 우리모두의 깨끗한 마음을 그대로 장군님께 보여드린 자랑스러운 산이다.

룡흥사의 봄바람

함경남도 영광군에 위치하고있는 룡흥사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국보적인 절간이다.

고려시기에 세운 절의 원래 이름은 성불사였다. 그후 조선봉건왕조시기 성불사에 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옮겨지었는데 그때룡의 덕을 받아 흥하는 절이 되라는 의미에서 룡흥사라고 고쳐 이름지었다고 한다.

룡흥사에 이르니 아름답리 전나무가 우리를 제 일먼저 맞이하였다. 이 전나무는 절간의 문주로서 심은 나무로서 350년생인데 룡흥사의 개축 씩 이전부터 절을 지켜온 조상벌되는 할아버지나무였다.

원래 전나무는 줄이 나지 않고 벌레가 끼지 않

는것이 특징이다. 전나무의 이러한 점을 리용한 중들은 이 전나무사이로 걸어 절에 들어오면 온갖 잡귀신이 물러간다고 하면서 불공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속여넘겼다고 한다.

우리는 이 전나무를 지나 아흔아홉개의 계단을 밟아올라야야 룡홍사절간에 이를수 있었다. 룡홍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향로전, 운하루, 무량수각, 산신당의 건물로 되어있다. 회색장삼에 붉은 가사를 두르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바투 깎은 50대중반의 승려가 불도대로 두손을 합장한채 우리를 반겨맞아주었다. 장군님을 직접 모시고 근 한 시간이나 해설해드렸다는 룡홍사의 승려였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대웅전에 들어섰다. 불교의 기본법당인 대웅전의 바깥 네 기둥에는 불교교리를 설교하는 8자성어를 써붙인 주련이 붙어있었고 안채의 정면에는 집채같은 세상의 부처들이 올방자를 들고 점잖게 앉아있었다. 반들반들한 금빛몸뚱아리를 번쩍이는 중심부처는 진품그대로인 석가모니상이요, 양옆에 협세보살로서 자리잡은것은 관세음보살과 문수보살이다. 부처상 바로 우에 우리 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2층으로 된 달집이 황홀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1층에는 《보광전》, 2층에는 《정멸궁》이라는 현판을 새긴 이 달집을 장군님께서서는 한참이나 지켜보셨다고 한다.

여의주를 입에 물고있는 하늘, 땅, 바다를 형상한 2층달집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선조들의 높은 건축술의 일단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민족문화유산이다. 이날 장군님께서서는 보색한 단청을 보시고 옛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차이난다고 하시면서 가능한것 원색 그대로 보존관리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가 만났던 승려가 《장군님,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관세음보살을 보시고 녀성적인 미를 지닌 어머니보살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라고 말씀올렸다. 장군님께서서는 먼 추억을 부르는듯 한 추억한 눈빛으로 관세음보살상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수령님은 력사뿐아니라 불교에도 밝았다고, 정말 다문박식하시고 모르는게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느 한시도 그이의 마음속을 떠나신적 없는 우리 수령님!

그렇다, 수령님에 대한 추억, 그것은 끝을 모르는, 진함을 모르는 우리 장군님과 인민의 영원불멸할 추억이다. 뜨거움에 젖어 대웅전을 나서니 해는 이미 중천에 떠있었다. 눈부신 해살이 골고루 퍼진누리는 밝고 대기는 따뜻했다.

맑은 바람결, 대기의 향긋한 훈향, 생의 활력을 부어주는 천연의 푸른 숲이며 졸졸졸 동심의 노래를 읊조리는 맑은 벽계수...

보는것마다, 듣는것마다 취하지 않고서는 못견

딜 룡홍사의 봄바람—장군님의 그 뜨거운 애국의 숨결에 나는 한껏 취해버렸다.

돌이켜보자!

우리 장군님 이름있는 명산들을 찾으실적마다 어이하여 력사문화유적들을 빠짐없이 꼭꼭 보아주시는것인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우리 민족, 세상에 대고 소리치고 자랑할만 한 훌륭한 력사유적들을 수없이 창조한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북돋아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였던가. 그 옛날 룡이 행운을 가져다주기를 간절히 빌어온 룡홍사의 《소원》은 오늘에야 이루어졌다. 이름없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절간 하나에도 빛을 주시고 넋을 주시고 후세에도 길이 남을 국보적가치를 주시는 장군님의 높은 뜻속에 룡홍사는 선군시대에 더없이 흥하는 나라의 귀중한 유산으로 길이 빛나고 있거니. 룡홍사여, 백운산이여!

부디 잊지 말라! 우리 장군님의 불보다 더 뜨거운 애국애족애민의 숭고한 넋을...

그리고 길이 전하라! 우리가 옛사람으로 불리울 먼먼 후세에까지...

행복의 계단

운하루는 사방 탁 트인 경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멋진 루각이다. 빗반자에 종과 학, 수사슴과 게를 새긴 단청은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이채로운 모습이었다. 기둥중간에 둥둥 매달려있는 나무물고기는 또 어떤가, 두눈을 뜨부럭거리며 심술사나운 표정을 띠듯이 마치 진짜 살아해염치는 사나운 물고기를 련상케 한다.

룡홍사에 이런 나무물고기를 매달아놓는데는 두가지 설이 전해오고있다. 첫째 설은 고기는 살아도 죽어도 잠자도 늘쌍 눈을 뜨고있기때문에 이 고기처럼 쉽없이 눈을 뜨고 불도를 닦으라는 것이요, 둘째 설은 수도승생활에 정진하지 않고있던 한 중을 물고기로 만들었는데 그가 죽은 다음 나무로 그 고기모양을 깎아 이렇게 매달아놓고나서 중들을 교양하는데 썼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운하루에서 이 진품나무물고기와 함께 종도 보아주시였다. 경상도 장현사람인 김춘택이가 주관하여 설봉산 흥복암에서 만들어 왔다는 력사기록이 새겨져있는 종은 구리로 만들었는데 무늬가 매우 섬세하고 종소리가 우아하여 사방 10리밖에서도 이 종소리를 가려들을수 있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의 높은 주조기술을 보여주는 력사의 유물이였다. 우리는 시원한 바람이 술술 불어오는 운하루에서 앞에보이는 짜개봉과 개구리바위를 직접 쳐다보면서 거기에 깃든 전설도 들었다. 룡홍사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용감히 싸운 한 영웅의 투쟁업적도 깃들어있다.

그가 바로 예술영화 《잊을수 없는 사람》의 주인공 《불새》의 원형인 공화국영웅 김덕근동지이다. 룡홍사에 등지를 틀고 천불산과 백운산일대를 돌아치며 《백운산유격대》로 가장하고 날치던 비적집단을 일망타진하고 적들에게 피살된 영웅의 선혈이 점점이 산야에 휘뿌려져있는듯싶다.

우리는 온몸으로, 심장으로 느낀다.

무심히 불어오는 산들바람에도, 조심히 대기를 흔드는 푸른 잎새의 부딪침에도, 무늬 고운 금단청을 받든 향로전의 기둥에도 오늘의 이 평화로운 날과 달들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이 나라 무명, 유명한 전사들의 고귀한 넋이 생생히 살아 숨쉬고있음을... 생각깊은 마음으로 룡홍사를 나서 아흔아홉개의 계단을 밟는 우리에게 함께 동행한 승려가 나직이 말했다. 《장군님께서 바로 이 계단을 밟으시였을 때였습니다. 제가 〈장군님,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이 계단을 밟으면 우리 인민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것입니다.〉 라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인민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그러도 기뻐하시는데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무심히 밟고 오르내리던 이 계단이 이제는 복받은 계단, 행복의 계단으로 되었습니다.》

룡홍사의 계단은 아흔아홉개이다.

행복의 최고길수라고 하는 99개라는 계단수자만이 아니라 장군님께서 밟고 오르내리시였다는 의미로 더욱 크고 의미심장하게 안겨오는 행복의 계단!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추어진다.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의 계단을 마련해주시려 아버지장군님 걸어오신 그 수많은 길과 길들이 떠오른다. 그이께서 걸으신 길아닌 그 길들은 장장 몇천몇만리였던가.

나는 세지 못한다. 세일수도 없다.

범속한 수자만으로 도저히 헤아릴수 없는 장군님의 끝없는 선군장정의 천만리를 무겁게, 무겁게 마음속에 엮어본다. 그러면 무심히 이 계단을 밟을수 없다. 아, 행복의 계단, 행복의 길...

×

이 작은 심장속에 묵직한 수확을 거두어안고 어느덧 돌아갈 때가 되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주차장쪽으로 옮기는데 금방 도착한 듯싶은 대형버스에서 웬 아바이가 우리를 향해 반색을 짓는것이 아닌가. 지난해 취재때부터 안면을 익혀온 2.8비날론련합기업소 염화비닐직장 부직장장아바이였다. 《삼복철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직장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던 아바이는 중절모에 말쑥한 외출복을 차려입어서인지 나이보다 꽤 젊어보이었다.

나는 아바이의 손을 잡고 놀랍게 물었다.

《...얼마 안있어 해님이 시작될텐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아바이는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체네작가선생이 여기가 처음인 모양이구려.

백운산의 진짜 절경은 짜개봉에 올라 장엄한 동해의 해돋이를 부감하는것이웨다. 현대 아무리 새벽 일찌기 떠나두 올라가느라던 그 멋진 광경을 다 놓치구 마우다. 그래서 우린 아예 하루일을 다 끝내구 떠났수다. 래일은 휴일이겠다, 백운산에서 달맞이두 할겸 하루밤 휴양각에서 지내고 어뜩새벽에 짜개봉으로 올라 해돋이를 구경하자구 말이웨다.》

결국은 우리가 못다본 백운산의 경치가 아직도 남아있는셈이다. 나는 의미깊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백운산의 곳곳이 탐승객들로 붐비고있었다. 문득 솟구치는 하나의 생각!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산이 명산이라고 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뜻깊은 그 말씀! 실로 백운산이 명실공히 인민의 명산으로 되었음을 한눈에 봐도 척 알수 있게 하는 뜻깊은 순간이다.

장군님의 뜻깊은 발자취가 어려있어 더욱 아름다와지고 더욱더 이름높을 백운산아!

너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을 모시여 세상에 더욱 빛을 뿌릴 인민의 명산—백운산의 자랑많은 이야기는 어제와 오늘에 이어 래일에도 영원히 계속 될것이다.

어머니는 못 속여

김경남

때로 량심에 그늘진 일 하고
집에 들어설 때
늙으신 어머니 걱정할가봐
일부러 웃음지며 말을 하건만
어인 일인가 어머니얼굴에 그늘이 지네

량심에 밝은 일 하고
집에 들어설 때
다 자란 자식 제 자랑하기 쑥스러워

보통날과 다름없이 덤덤해있어도
어인 일인가 어머니얼굴엔 기쁨이 어리네

어머니는 귀로만 듣지 않는다
어머니는 입으로만 묻지 않는다
내 심장은 어머니심장의 한부분
내 숨결은 어머니숨결의 한줄기
그래서 어머니는 심장으로 듣고 보는것이다

시대어에 대한 생각

김정삼

전등빛이 부드럽게 퍼져내리는 창작실의 밤.

나는 지금 책상에 마주앉아 보풀진 어휘수첩을 조용히 번진다.

수첩장의 갈피마다에 금싸래기처럼 쪼아박은 어휘와 표현들을 두고 깊은 뜻과 숨엄한 의미를 헤아려보게 된것은 언제였던가. ...

얼마전 북방의 험산계곡에 일떠서는 어랑천발전소건설장으로 취재를 나갔던 나는 가는 곳마다에서 접하게 되는 충격적인 위훈의 소식들은 레외없이 새로운 언어의 창조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의를 모으게되었다.

《작가들이 흔히 발견적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들이 여기서는 저 언제의 높이와 함께 자꾸만 태어난답니다. 아마 작가선생은 〈골재온돌방〉, 〈혼합물집〉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시겠지요?》

내가 만난 송평중대의 40대 초엽의 젊은 중대장은 마광기와 기중기, 화물자동차들의 요란한 동음이 건설자들의 청높은 목소리와 어우러져 전투적인 화음을 이루고있는 언제타입장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의혹어린 나의 눈길을 마주보며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존공법에 의하면 겨울철에는 콘크리트타입을 할수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올리려는 건설자들의 결사의 각오는 북방의 엄혹한 겨울을 화독처럼 황황 달구었다.

그들은 혼합장바닥에 온돌을 놓고 불을 피우면서 골재를 가열하였으며 버짚나래와 방수포로 보온대책을 빈틈없이 세운 다음 타입을 계속해나갔다.

그리하여 그 어느 문학작품이나 언어사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골재온돌방》, 《혼합물집》이라는 말이 위훈의 대명사가 되어 생겨났다.

작가를 흥분시키고 창작의 불꽃을 튀겨주는 격동적인 표현들은 작업장에 연방 나붙는 현장속보들과 구호관들에서도 섬광처럼 번쩍이고있었다.

물길굴뚝기전투장에는 지원물자를 한차 가득 싣고 막장에 달려나온 어느 한 탄광연합기업소산

하 지배인들이 결사대를 뚫고 봉락구간에 뛰어 들었다.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소리가 막장을 울리는 속에 봉락구간을 극복하기 위해 벌어진 그 격전속에서 《지배인결사대》라는 호칭이 생겨났고 어랑천의 흐름과도 같이 발전소건설장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내 인민들의 지원의 마음을 반영하여 《어랑천행》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어찌 그뿐이라. 자기들의 숙소에 앞서 자식들이 공부할 학교부터 먼저 지어 생겨난 《언제분교》, 함박눈 내리는 언제우에서 새해의 아침 축복의 설눈과 함께맞던 《어랑천나이》.

어랑천은 말그대로 선군시대의 새로운 언어들이 태어나는 피끓는 전투장이였다.

발파가스와 봉락구간이 생명을 위협하는 막장속에 날아들며 청년돌격대원들은 뭐라고 웨쳤던가.

《물길굴이여, 장군님의 용사 우리를 따르라!》

《육탄갱》, 《승리갱》, 《부흥갱》의 글발속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귀중한 청춘을 아낌없이 내댄 리수복영웅의 시가 폭음인양 진동했고 길영조영웅의 넋이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었다.

하기에 발전소 전투속보에는 《심장의 불로 물을 다스린다》라는 또 하나의 특색있는 제목이 생겨났다.

하다면 그 심장의 불은 어떻게 지퍼졌는가.

그것은 엄동의 추위와 삼복철의 무더위를 가리지 않으시고 이곳에 찾아오시여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믿음과 사랑이였다.

장군님 지퍼주신 《심장의 불》이 발전소건설자들만이 아닌 도내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타번져 언제는 웅장한 자태와 함께 또 하나의 경탄을 자아내는 지구절도 펼쳐놓았다.

누가 말했던가

언제란 언제 솟을지 몰라 언제라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주리라

여기 언제는

언제 솟았는지 미처 다 몰라
그 이름 언제라고...

참으로 선군시대 인간들의 참모습이 어린 새로운 언어사전이 여기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서는 건설자들의 고귀한 피와 땀으로 씌여지고있었다.
...

나는 일어나 창문가로 다가섰다.

밤하늘엔 커다란 조명등인양 둥그런 보름달이 높이 걸려 안개발같은 은빛으로 삼라만상을 소리 없이 적시고있다.

아, 이밤도 혁신으로 들끓고있을 멀리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도 저 달빛은 못잇을 추억과 사랑을 불러주며, 식지 않을 새로운 열정과 위훈을 불러주며 유정히 흘러내리고있으리라.

이 시각에도 밤별처럼 돌아오를 새로운 언어들이 금시 내 눈앞으로 날아오는듯싶었고 이 가슴속에 신비로운 음향을 일으키며 좌르르 쏟아져내리는것만 같았다.

언어들이 합쳐져 하나의 문장을 이루듯이 시대의 새로운 말마디를 탄생케 하는 훌륭한 인간들의 사상과 도덕미풍이 하나의 사회주의대군상을 펼쳐 오늘날의 우리 시대, 경애하는 장군님 이끄시는 선군시대를 창조해가고있다.

자신보다 먼저 조국과 미래를 위해, 동지와 집

단을 위해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가고있는 참된 인간들로 풍만한 화원을 이룬 우리 사회에서 매일과 같이 탄생하는 혁명적인 구호와 시대어들.

《붉은기는 달려야 휘날린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조국에》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어찌 누군가의 말처럼 언어가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호상간의 이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도구》라는 의미를 떨것인가.

우리의 언어,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모시지 못한 희세의 령장을 어버이로 모시고사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이며 여기에는 위인에 의하여 탄생하는 새시대, 장군님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굳게 뭉친 영웅적인민의 참모습과 넋이 비껴있다.

나에게는 북방의 하늘을 떠받들며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거연히 솟아오른 발전소언제의 웅좌와 함께 우리 시대 인간들이 쌓아올린 또 하나의 탑, 자랑할만 한 언어의 창조물이 보여온다.

그리고 높이 추켜드신 정의의 총대로 인류의 머리위에 《선군》이라는 휘황한 새 시대어를 아로 새겨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이 아득한 밤의 공간을 해빛넘치는 우주처럼 짙 채우며 눈앞에 경건히 어려오는것이였다.

오, 북관대첩비

전승일

란만장의 력사가 곱이쳐흐른
북관대첩비
더러운 오랑캐의 땅에서
끝내는 조국의 하늘아래 다시 와 일어선
오, 북관대첩비

우리 선조들의 기치창검이 번뜩이고
천군만마의 말발굽소리
하늘땅에 진동하는 네가 무서워
바다건너 너를 흠쳐갈 때
깃발힌 망국노의 조국은 다만
피같은 눈물만을 대지에 쏟았더라

뭉을수도 지울수도 없는것이
력사라 했던만
침략자의 목줄을 골짜기마다 찍어던진
북관땅의 대승리도
제 조국이 없었던탓에
남의 땅에 휘뿌려져 서럽게 울고있었거니

세월의 언덕넘어
다시 일어선 북관대첩비
생각깊은 나의 심장에는 보여지는구나
너는 다만 력사의 승전비만이 아닌
불구대천의 왜나라를 눌러디디고 서있는
강대한 나의 조국 선군조선의 모습처럼

나는 백두산돌격대원

김영택

붉은기의 고향에서

눈보라치는 혈전의 밀림속
빨찌산기수는 쓰러져도
머리를 숙일줄 모르고 더더욱 나뭇기던
붉은기의 고향
백두산에 나는 왔다

바라보면 그 언제나
이 마음 숭엄하게 해주는
성산 백두산의 붉은기
조국위해 바친 선렬들의 그 넋을 안고
오늘도 붉게만 타는 붉은기

붉은기여 너는 안고있지 않느냐
몸은 한점 이슬로 사라져도
백두하늘가를 메아리쳐 울리며
승리를 확신한 장한 그 웨침을
풀뿌리를 씹으면서도 억척만면 일어나
천만시련을 헤친 결사의 그 정신을

전우들의 혈조로 물든 저 붉은기아래서
《적기가》를 부르며
수많은 투사들이 태어났거니
세월의 모진 광풍도 휘어잡은 붉은기
력사의 준령마다 승리만을 새겨온 붉은기

피가 끓는다 붉은기의 빛갈로
억센힘 솟는다 붉은기의 퍼덕임처럼
이 붉은기아래서 나는
새 세기의 기념비를 일떠세우리

피로 찾은 조국
피로 지킨 이 땅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라
내 심장을 불붙여 높뛰게 해주는
백두의 붉은기

바치여 영원한 보람이 있고
그것으로 영원한 행복 누리갈
붉은기는 나의 삶
끓어솟는 필승의 맹세와 신념
창조와 위훈의 표대

혁명가의 삶이 무엇으로 빛나고
그 자욱 어떻게 수놓아져야 하는가를
말없이 가르쳐주는 붉은기의 고향에
내 기어이 떠올리리라 백두산마을 무릉도원을
온 나라에 울려갈 행복의 노래를
아 나는 승리자들을 키우는 고향에 왔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백두에서 땀을 쏟는 돌격대원
아들은
갓 중학교에 들어선 소년단원

드바쁜 일에 몰려
미처 소식을 전하지 못할 때면
텔레비존에서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 기쁨을 제먼저 편지로 보내오는 아들

아버지의 소식 받아안을 때면
가방 달삭이며 나는듯
학교로 단숨에 달려간다고
그런 날이면
시험에서 모두 5점을 맞았다고

아들은 정말 자랑도 많더라

중학교의 대문을
아버지의 손목잡고 들어서지 못했어도
백두산에 가있는 아버지를 둔
선생님과 학부형들 모두가
박수로써 하나같이 축하해주었다고

보풀이 일도록 온 중대가
돌려가며 읽는 아들의 편지
감출수 없는 기쁨을
얼굴이 환하도록 웃음에 담고
이런 날이면 아버지는
밤이 깊도록 교대없이 일하였다

아버지와 아들
수천리 먼곳에 떨어져있어도
백두산이 떠인 하늘을 한치마로 잇고
백두산이 펼친 한뜨락에서

마음껏 정을 속삭이고있었거니
온 나라가 달려오는 백두의 성지에서
아버지는 백두산을 꽃피우는 돌격대원

아들은 백두산을 우리려 피어난 꽃
백두산을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은
아 언제나 함께 있었다!

종다 이런 밤의 노래는

세봉산마루에 해는 저물고
연두재우엔 두등실 보름달 떴네
둥근달 떠가는 허천강가에선
철옥이의 빨래소리 정답게 들려오네

중대의 막내가 아직은 꽃망울
하지만 가슴엔 벌써 호수가 출렁이네
언제를 세워 펼칠 드넓은 호수를 그려보며
땀배인 작업복들 걸싸게도 빨아가네

완공의 래일도 가슴속에 품어안고
휴식도 잠도 그날에 둔듯
한벌 또 한벌 맑은 물에 행구어내며
이밤의 아름다운 노래를 엮어가네

달빛 줄줄이 내리는 춤추는 물결은

이밤에 울리는 또 하나의 노래인듯
금실금실 발밑에 반기며 감도네
감돌며 달처럼 고운 모습 안고서 흐르네

하늘에도 둥근달 땅우에도 밝은달
이제 날이 새면 철옥이의 그 마음
무쇠같은 사나이들의 심장마다에
기적의 불꽃을 지펴주리라
돌격의 발걸음마다 나래를 달아주리라

계절을 앞당겨피는 꽃송이가 엮은
이밤의 아름다운 노래는
위훈의 선물이 되어
온 건설장을 뒤흔들리
얼마나 좋으나 완공의 날에 사는 이런 밤은
그날으로 메아리쳐가는 이런 노래는...

이야기는 많았다

이야기는 많았다
동해의 아름다운 풍치가
달리는 렬차의 창결을 스쳐지나도
사람들은 나에게 눈길을 모으고있었다

돌격대생활이 어떻더냐고
처음으로 묻던 억양 센 말투들이
이미 조용해진 차칸에선
돌격대원들의 위훈이 펼쳐지고있었다

비물에 밥을 말아먹던 일이며
언땅에 주저앉아 쪽잠에 들던 일이며
헐치 않았던 날들의 가지가지 사연
이 날과 날에 우리 세운 삼지연마을의 봇나무들
이 늘어진 거리
웅장한 삼수발전소의 언제를 그려보며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백두산답사를 왔다가는 평양의 대학생들
해산한 안주의 딸네 집에 가는 할머니
온 나라가 모인듯 한 차칸에서
돌격대원 나의 이야기
그 끝이 없었거니

렬차는 역마다 서고
길손들은 오르며 내리며 바뀌어도
누구나 귀를 기울이는 그 이야기에
백두산이 있었다
온 나라 마음들에...
누구나 우러르며 안고사는 백두산
그 마음들엔
사나운 눈비를 맞받아 백두산을 가꾸어가는
백두산돌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이 메아리쳐
갔거니이야기는 많았다
시대앞에 우리 세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백두산돌격대원

어제도 오늘도
나는 백두산돌격대원
그 시절에 살고있다

빨찌산행장을 갖추고
백두의 눈보라속을 걷고있다

지금도 내 눈앞에는
투사들의 혈전의 자욱자욱이 보이는듯싶다
별무리 총총한 숙영지의 한밤
《사향가》의 노래와 함께 타고오던
그 우등불이 어리여온다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10대, 20대 청춘의 삶을
백두광야에 아낌없이 바친
투사들의 애국의 그 정신
오늘도 내 심장의 박동으로 울리고있나니

선렬들의 삶의 숨결을 이은
이 심장이 없었다면
내 어이 흑한속에서
땀흘리며 언제의 중심강토를 다질수 있었으랴
무거운 흙마대짐을 지고
하루 100리길 달릴수 있었으랴

오 성스러운 백두산
여기서 나는 눈보라를 헤치며
우리의 붉은기가 그리도 붉고
여기서 태어난 노래가 어찌하여

대를 이어 불리워지는가를 알았다

결사옹위 붉은기를 날리며
결사관철 노래를 부르며
나는 삶의 한구간을 백두에 새겼다
돌격대생활의 나날은 길지 않았어도
한생을 두고 궁지높이 추억할
백두산시절을 나는 사랑하노라

자랑하노라
빛나는 태양의 성지에
내 심은 한그루 붉나무를 두고
백두산을 향해 창문을 연
내 손으로 일떠세운
불밝은 살림집들을 두고

자랑하노라 자부하노라
조국에 바친 나의 심장인양
백두산기슭에 솟은 세기적창조물들을
하루를 한생처럼 땀 쏟은 그 시절같이
영원히 백두의 행군길만을 걸을
아 나는 백두산돌격대원
오늘도 나는 백두산돌격대원으로 산다!

평론

선군현실에 대한 진지한 탐구정신

-상반년도 《조선문학》 잡지에 발표된 시들을 읽고-

김순림

올해 상반년도에 발표된 시작품들을 보며 우리를 기쁘게 하는것은 작가들이 생활에 발을 붙이고 진지하게 창작하려는 열의가 높아진것이다.

발표된 시들이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선군시대와 현실에 대한 진지한 체험과 탐구, 구체적인 생활적계기들에서 시적발전을 하고 시상을 무르익혀 시대를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제와 오늘의 현실이 다르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도 하루가 새롭게 달라져가고있다. 우리 시문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한다.》

공화국창건 60돐을 맞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결정적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우리의 현실은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벅찬 사변들로 가득차있다. 이것은 우리 시인들의 창작을 끝없이 추동하였다.

우리 시인들은 무엇보다도 오늘의 자랑스러운 선군현실을 마련하신 백두산3대장군의 업적을 칭

송하는데 사색과 탐구를 기울였다.

시 《**김정일장군찬가**》(류동호 작, 2호)는 수렴함모임이 짝 들어찬 시인의 심장에서 뿜어나온 서정적형상이다.

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함모의 감정을 진정과 뜨거움이 넘친 격정의 분출로 우리들의 심장을 크게 울려주게 한다.

내 마음은 지금 해맞이순간
눈부시고 환희롭고 신비로운 백두의 해돋이
그 광망, 그 열기로 가득찬
매혹과 숭배의 최절정에서
선군태양 만세를 심장으로 터칩니다

...

매혹과 함모의 최절정에서 소리높이 노래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찬가는 사람들을 시가 주장하고저 하는 감정정서세계에 이끌어가고있으며 그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비상이 강화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평생에 대한 찬가는 수없이 창작되였다. 이 시는 같은 주제분야를 노래한

많은 시들가운데서 시대의 서정, 흙모의 서정이 진정으로 느껴지게 새맛이 나도록 특색있게 형상되었다.

전선길의 눈비에 젖고 성에불린 야전복에 사랑하는 온 나라 아들딸들을 감싸안고 천만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는 아버지장군님의 헌신과 애국의 한평생은 우리 심장의 영원한 노래이다.

아버지장군님 인민의 아들이 되시여 력사의 중임을 스스로 맡으시고 한생을 불태워 진함없는 이 땅의 봄빛이 되시고도 언제나 마음속에 쌓인 장설 녹인적 없고 초행길에서 조여매신 신들메를 푸신적 있었는가고 시인은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위한, 조국위한 한생의 로고를 그처럼 열렬하고 뜨겁게 정서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온 우리가 환하도록 건강에 넘치신 장군님 밝게 웃으시니 봄빛이 가득한 사회주의 내조국, 해빛이 쏟아지는 인민의 봄세상이라고 진정이 넘친 소박한 주정의 토로, 감각적이며 표상적인 섬세한 표현과 시적인 언어구사로 흙모의 서정을 개성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참으로 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칭송과 흙모의 열정이 아버이를 위하여 천만심장 하나같이 바쳐 행복을 찾고 그 심장으로 결사옹위성새를 더 높이 쌓으려는 선군시대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더침으로써 흙모의 서정, 송축의 감정이 더욱 절절하고 뜨겁게 울려오게 하고있다.

시 《첫 자옥》(문용철 작, 6호)은 새로운 시 세계를 파고들려는 시인의 진지한 탐구정신이 비껴있는 시이다.

시는 우리 당 력사에서 뜻깊은 력사의 날인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적사변에 즈음하여 쓴 시이지만 선군시대의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느낌이 있게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시는 숭엄한 정적이 깃든 당중앙뜨락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령도의 첫 자옥을 찍으신 위대한 계승의 자옥, 6월의 첫 자옥의 위대한 진리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있음으로 하여 작품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높여주고있다.

시는 첫 머리에서 당중앙뜨락에 그이 첫자옥을 찍으실 때 정일봉의 하늘가에선 장쾌한 우뢰가 터졌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첫 자옥을 정일봉의 우뢰소리, 백두산과 결부시켜 우리 당의 빛나는 력사의 첫 자옥이라는것을 서정적으로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시인은 우리 당 력사에 이미 새겨진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동지께서 찍으신 선군령도의 첫 자옥, 천만의 심장에 백두의 피줄기를 이어주신 빛나는 그 자옥자옥을 뜨겁게 감수하고 여기에도 모든 시적세부와 정서적흐름을 지향시켜나감으로써 첫 자옥의 위대한 진리를 더욱 절절하고 뜨겁게 울려오게 하고있다.

시인은 시대의 서정을 탐구하여 《이 땅의 산과 들/ 해빛과 바람, 눈비와 이슬이 다 스민/ 그이의 옷자락에선/ 백두의 봄아지랑이가 감돌고/그 혼혼

한 열풍이 흐르고있었다》고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신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장정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면서 결구에서 격조높이 주정을 터치고있다.

...

오, 위대한 계승의 그 자옥

6월의첫 자옥은

백두산, 백두산에서 시작되었다

6월의 첫 자옥이 백두산에서 시작되었다는 여기에 시적발견의 참신성과 새로운 경치가 있다.

이처럼 시는 선군시대의 새로운 감정으로 발견적인 시어들과 표현들로 소재가 안고있는 깊이있는 사상을 비교적 개성적인 시형상으로 일반화하여 참신하게 노래하였다.

시 《아, 만경봉》(김영택 작, 4호)은 태양절을 맞으며 창작된 기념일시이다. 시에서는 많은 시인들이 다양한 생활적계기에서 해마다 노래한 만경봉을 선군시대의 미감과 감정에 맞게 그 높이를 새롭게 끌어올리고있다.

...

일만경치 볼수 있어 불렀다는

그 옛날 이름으로야 어이 부를수 있으랴

찬란한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펼쳐준

태양의 위대한 년대를 충충 새겨안아

그 이름 빛나는 만경봉

...

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하신 한평생이 간직되고 새겨져있는 유서깊은 만경봉의 서정을 특색있게 시적일반화의 폭을 넓히며 노래하고있다.

특히 《애국의 녀를 충충 고이고 솟은》, 《태양의 위대한 년대를 충충 새겨안아》, 《수령님 력사우에 떠받들린》, 《애국의 크나큰 키를 자래워주는 만경봉》이라는 철학적이며 표상적인 형상적 표현은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엿볼수 있게 한다. 시인이 높은 창작적열정과 깊이있는 사색으로 오늘의 선군시대 감정에 맞게 새로운 시세계를 펼쳐놓은것으로 하여 독자들을 기쁘게 하여주고 있다.

시 《오리알이야기》(리태식 작, 4호)는 가렬한 전화의 날에 비행기를 띄우시여 외국에서 오리알을 실어오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을 극적인 정황속에서 철학적깊이가 있게 노래하였다.

시는 조국의 운명을 위협하는 적들과의 준엄한 대결전의 그 시각 대공화력의 호위를 받으며 사랑의 하늘길 날아온 오리목장의 종자알이야기, 포연속의 오리알이야기를 뜨겁게 노래하면서 《이민위천》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오신 아버지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생동한 생활화폭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에서 그렇듯 기다리던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

의 《안팡엔 기쁨의 파도가 일렁이는데》 평화로운 조국땅 한복판에 서계시는듯 《푸짐한 고기국밥상》을 마주한 《사랑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고계시는 극적인 형상은 참으로 가슴뜨겁고 인상깊은 시적형상이다.

시인은 모든것이 불타고 재가 되어도 우리 수령님 강철의 심장속에선 타버리고 재가 된것 하나도 없었으니 승리한 조국땅에 펼쳐갈 행복이 끝없이 끝없이 태어나고있었다고 사랑의 전설로 전쟁승리의 철학을 깊이있게 노래하였다.

...

백여년의 침략사를 떠드는 미제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맞선 이 전쟁
승리를 판가름하던 그 힘의 저울대우에
수령님은 오리알을 올려놓으시였다.
이 땅의 래일에 대한 확신을... 사랑을!

참으로 시는 독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인상을 더 깊이있게 새겨주고있다.

시인은 마땅히 현실에서 시대의 서정을 탐구하여야 하며 시적발견을 하고 시를 써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상반년도에 발표된 시들은 긍정적인 사를 주고있다.

시 《추운 날 더운 날》(김정순 작, 1호)은 꽃피는 봄, 신선한 가을 좋은 날도 많건만 겨울에도 대소한, 여름에도 무더위 삼복철에 먼 2천리 내 고향 북변땅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장정을 시인의 뜨거운 체험속에서 감동깊이 노래하고있다.

시는 인민을 위한 고생은 락이라고 늘 외우시며 추운 날 오셨을 때는 차고 찬 한지에 계시었고 더운 날 오시었을 때에는 내내 열풍속에만 계신 아버지장군님의 형상을 구체적인 생활화폭속에서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그 고생이 그냥 맺혀와 송구스러운 마음 억제할수 없음을 진실하고 생동한 감정으로 절절하게 토로하고있다.

시인은 그 때문에 바람불고 날이 추우면, 숨막히는 무더위가 온몸 달구면 아버지장군님 생각 더 뜨겁고 더 간절해지는 진정을 터쳐 내 나라 푸른 하늘아래 꽃피는 봄은 우리 장군님 추운 날 품고 오신 《따뜻한 봄씨앗이였고》 더운 날 땀으로 익히신 《그날의 열매》였다고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 헌신으로 안아오신 선군승리의 봄에 대한 심장의 토로는 이 시의 사상적핵이다.

시인은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를 생경한 웨침으로가 아니라 추운 날, 더운 날이라는 참신한 생활적계기에서 시적발견을 하고 서정을 펴나갔다.

시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약점도 있으나 평범한 생활속에서 시적발견을 하고 구체적인 생활화폭으로 우리 장군님의 로고를 부각시킨 시인의 얼굴을 엿볼수 있게 하고있다.

시 《아들과 딸》(렴형미 작, 2호)은 인상깊은 생활세부속에서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현상에서 환기되는 느낌을 가지고 서정화하

여 생활을 노래하였다.

시는 선군시대 아들딸들을 위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를 생활그대로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시는 장군님 보내주신 번쩍이는 사랑의 하모니카 얼마나 멋들어진가 만져보고 가라며 장군님께선 우리 아들들을 더 사랑한다고 우쭐렁대는 남성군인들과 희한한 크림팩 척 내밀며 장군님 보내주신 사랑의 크림이 얼마나 향기로운가 냄새를 맡아보라며 장군님께선 우리 딸들을 더 고와하시지요 하고 가르르 웃음터치는 녀성군인들의 모습을 명랑한 생활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이 얼마나 최고사령관동지의 품, 아버지의 품에서 행복한 선군시대 군인 아들딸들의 장한 모습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는것인가.

그런가 하면 시는 고운 입술 오무리는 처녀들의 《새초롬한 얼굴들》, 뚜껑도 열기 전에 벌써 취한듯 총각들은 《코만 벌름 입은 병글썩—》, 《살찐 인삼그려진》 희한한 화장품, 동그란것 긴것 두개씩이나?! 라고 명쾌한 정서를 환히롭게 펼치고있다.

우리는 시에서 이처럼 생동한 대조와 반복의 수법, 감탄사와 수사학적질문과 같은 형상수법들에서 시인의 개성을 보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잘해나가야 한다.

시초 《고향길》(최준경 작, 1호)은 사회주의애국주의주제의 작품으로서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고 체험이 구체적이고 생동하여 좋다.

시초는 참다운 조국애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자리잡고있는가를 생활적으로 섬세하게 파고들어 노래하고있다.

시초는 시 《고향길로 들어서며》, 《고향의 박우물》, 《장령과 백양나무》, 《뒤동산에서》, 《상봉의 기쁨속에 나는 말》, 《추석날의 비분》, 《첫닭이 우는 소리》, 《고향에서 다시 초소로》의 시들이 각이한 장소, 각이한 정황, 각이한 사건들에 대한 시인의 개성적인 체험으로 시적일반화를 실현함으로써 고향길에 대한 시초의 총적인 사상을 뜻이 깊으면서도 감동적으로 특색있게 잘 보여주고있다.

그밖에도 매 시편들이 종자가 뚜렷하고 생활이 진실하며 경애하는 장군님과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감동깊게 노래한 시초 《삶의 노래》(김선화 작, 6호), 서정적주인공이 직접 일하며 체험하는 자기의 일터에서 시상을 잡고 그로부터 환기되는 구체적인 체험과 감정을 가지고 녀성적인 섬세성으로 시적사색을 무르익혀 진실한 형상을 창조한 시 《요람》(리미옥 작, 6호), 선군이 지켜준 녀성들의 명절을 섬세한 감정으로 노래한 시초 《선군시대 녀인들》(도명희 작, 3호) 중에서 시 《치마저고리》와 서정적주인공의 내적 체험세계를 비교적 생동하게 노래한 시 《이 저녁엔 그만 울것만 같아요》, 누구나 알고있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의 금선을 강하게 튕겨주며 오늘도 어머니는 인생의 참다운 철리를 깨우쳐준다는

주장이 정서적으로 안겨오는 시 《나의 어머니시여!》(리광선 작, 3호), 리수복영웅은 죽지 않고 오늘도 수많은 병사들의 심장에시를 써주고있다는 주장을 진실하고 절절하게 올려주고있는 시 《리수복영웅이여》(김휘조 작, 3호), 조국애와 향토애의 감정을 수령관에 기초하여 노래한 시 《내 고향 금산리》(조일형 작, 5호)와 시 《철의 도시 밤》(위명철작, 5호)도 선군현실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돋구어주는 좋은 시들이다.

그러나 상반년도에 일부 시인들은 현실에서 충격을 받아 충동과 흥분을 가지고 시를 쓰지 못하고 여전히 탁상문학을 답습하였다.

서정시아말로 시대감정의 가장 예민한 촉수이고 대변자인데 이런 시들에는 구태의연하고 시대의 맥박이 느껴지지 않고 시인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6호에 실린 시 《영원한 불길》(김춘길 작), 시 《나의 구내길》(리광선 작), 시 《내 언제나 이 계절을 안고살리라》(최운철 작), 시 《나의 눈가에 어려오는것은》(서진명 작), 4호에 실린 시 《공군대좌》(곽명철 작), 2호에 실린 시 《병사는 조국의 대지우에 편지를 쓴다》(정동찬 작)와 시초 《래일에 대한 이야기》(김충기작), 5호에 실린 시 《큰 아버지》(박성일 작) 등은 선군현실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체험, 시적사색이 없이 손끝 재간으로 꾸민 시들이다.

시 《영원한 불길》은 보천보전투승리를 노래한 작품인데 지금까지 보천보전투에 대하여 노래하여 온 작품들의 세계에서 새로운 전진이 없고 시인이 선군시대의 정서에 맞게 개성적으로 탐구하고 구사한 새로운 표현 하나도 찾아보기 힘들다.

노을이 불타는 땅
혁명의 승리가 보이는 이 언덕
쌍안경을 쥐시고 거연히 서계시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수령님앞에 서니
력사의 그날에 타오르던 불이
오늘도 내 가슴에 타번지여라

...

보아라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세찬 불길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의
붉은 기폭에 어려있어라
...

시는 선군시대에 보천보의 화불을 대하는 시인의 감정정서가 없다. 기념일시일수록 더 깊이 사색하고 탐구하고 하나의 표현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인 감정만을 라렬하면서 시를 꾸미는 현상은 시인이 충격을 받고 깊이 사색하여 시를 쓴것이 아니라 편집부의 청탁을 받고 의무감에서 실무적으로 손쉽게 쓴데 원인이 있다.

시 《나의 구내길》은 서정적주인공이 인생의 참

다운 걸음새를 익혀가던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있는 홍남의 이 구내길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삼복철강행군》길을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는 실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격동케 하는 충격적인 현신의 선군장정이였다. 하기에 장군님의 《삼복철강행군》을 두고온 나라가 격동의 감정으로 들끓었던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다할 충동과 시적계기도 없이 우리 장군님의 자욱이 새겨진 공장구내길을 걸으며 자기가 흘린 땀방울이 그이의 기쁨이 되지 않았을가 하는 감정을 도출시킴으로써 독자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

진정 청춘의 그 시절에
이 길을 걸으며 내 흘린 땀방울도
그이께 드린 기쁨에 보탬되지 않았을가
이 길을 걸으며 내 부르던 노래도
선군시대 군중문화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신
그 장쾌한 선물의 한가락이 아니됐을가

...

시인은 《삼복철강행군》을 헤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욱자욱앞에서 송구스러워 할 대신에 오히려 자기가 흘린 땀방울이 그이께 드린 기쁨에 보탬이 되지 않았을가 하고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있다.

시 《내 언제나 이 계절을 안고살리라》는 인민의 유원지를 더 잘 꾸리자고 더울세라 일파도 새로 짜주신 계절에 찾아오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있다.

이 시는 시인이 격동적인 충격속에 깊은 사색이 없이 우리 장군님의 현지지도사적을 보도식으로 전달하는것과 같은 정서가 부족한 시이다.

시 《나의 눈가에 어려오는것은》도 역시 비날론공장일로 늘 마음쓰시는 아버지장군님께 한해전에 올려보낸 그 생산타산안을 설명해드리면서도 우리 장군님께서 한 기업소의 생산전반에 대해 그러도 환히 꿰뚫고 계시는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서정적주인공의 자책의 세계를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눈가에 어려오는 그이의 집무실에 놓여있는 그 생산타산안을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깊이있게, 뜨겁게 그리지 못하고 사적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치였다.

시 《공군대좌》는 귀밀머리 흰 공군대좌가 세아들을 모두 비행사로 키워 우리장군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지켜 자식들과 함께 한생을 다 바치려는 충정의 마음을 노래하고있다. 시의 결구에 또 하나의 《권대》가 궁지높이 날고있다고 강조하고있으나 역시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밖에 남는것이 없다.

시 《병사는 조국의 대지우에 편지를 쓴다》는

고향의 어머님과 선생님께서 받은 편지의 회답을 병사는 조국의 대지위에 쓰노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 시는 이러루한 식으로 창작된 시들을 통해서 아는 사실외에 그 이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안는 느낌이 부족한 상식적인 시이다.

시초 《래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장군님 오시였던 계남목장의 래일에 대한 서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초는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적열의와 미래에 대한 꿈을 그들의 비등한 열의와 소박한 념원에 맞게 제대로 형상하지 못한 작품이다. 시의 제목은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시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도하신 계남목장을 대하는 격동적인 충격과 발견이 없고 시대와 뜨겁게 호흡하려는 열정이 없이 기성적인 관념과 틀에 맞추어 꾸민 작품이다.

시 《큰아버지》는 농장의 모든 일을 돌보는 리당비서를 큰아버지로 노래한 시이다.

시에서는 누렁소 햇풀뜯는 버들방천길에서 읊에 회의갔던 리당비서가 고기잡이, 자맥질에 해가는 줄 모르는 아이들을 큰아버지의 심정으로 숙제검열도 해준다고 하고는 그 깐깐한 숙제검열시간

에 《소슬바람마저》숨죽인듯 한데 《여름들판의 곡식들이》 호합지게 웃으며 키를 솟근다고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갈피를 잡을수 없게 하고 있다. 시에서 《누렁소 햇풀 뜯는》이라는 표현을 보면 늦은 봄철인데 《소슬바람》이라는 표현을 보면 가을계절이다. 소슬바람은 가을바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봄바람이나 여름바람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다. 시는 이렇게 리당비서 큰아버지는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을 안고서서 아이들의 숙제검열을 하고있는것으로 형상하였다.

시는 하나의 행, 하나의 표현, 토에 이르기까지 미세한 정서가 비끼고 새로운 감정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시인은 계절도 똑바로 가려보지 못하고 서정적주인공을 세워놓았다. 이것은 시인이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반안안은 정서로 자기의 의도를 서정화하지 못했기때문이다.

시인들은 우리의 선군현실에 대한 진지한 탐구정신을 가지고 선군시대와 함께 뜨겁게 호흡함으로써 천만군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시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내 아들은 이렇게 자랍니다

김 령

하나같이 콩살들이 올라
떡돌같은 얼굴들이
활짝 웃음을 터친
중대의 사진속에
내 아들의 모습이 왔습니다

우를 맞았노라고
대포알처럼 팡팡 여문
만능병사가 되었노라고
중대장의 감사까지 함께 날아왔으니
군대에 나갈 땐
성큼하던 목에 후령하던 군복이
밤낮으로 맘에 걸려 내리지 않던
참말이지 내 아들입니까

이렇게 자랍니다
새벽기상나팔소리와 함께 내 아들결엔
걸음발도 하나같이 이런 전우들이 있습니다
떠들썩한 중대의 오락회를 꿈속에도 펼치며
곤히 잠든 내 아들의 머리말을 지켜
잠 못들 중대의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한가마밥 한침대에 나란히 누워
식성이며 속마음까지 함께 나누는
막내형같은 분대장도 있습니다
군복단추 한알도 발싸개 한겹에도
친누이처럼 따라서는 사관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랍니다
낳아기른 이 어머니도
하루 삼시 영양분을 따져본적 없어도
내 아들은 쿡음식으로 장수가 되었습니다
온 중대가 차려주는 병사의 생일날들이
내 아들의 장수힘에 나래로 돌쳤습니다

훈련의 산발들도 함께 달리며
땀배인 구령소리들이 내 아들을 키웠습니다
한 병사의 잘못된 한자육을 놓고도
백자육 천자육 자기들을 돌이켜보는
온 중대의 깊은 정이
내 아들을 이렇게 림름하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자랍니다
이 땅에 병사를 천만이어도
장군님사랑의 한하늘아래
내 아들이 자라고
내 아들의 중대가 자라고
병사의 어머니 내 마음도 함께 자라는
총대의 집!

이제는 아들이 별
사진속의 빙글 웃는 아들의 모습
꼭 품어안으니
아 그 품이
내 아들이 안겨 자라는 그 역센 품이
어머니 내 마음을 감싸안습니다

넋의 탑

리수복

탑과 티끌

무릇 창조물은 레외없이 그것을 세상에 내놓은 이의 넋의 탑이라고 보는것이 옳을것이다.

만약 이 세상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넋에서 타오르는 보이지 않는 불길일것이다.

그 불길이 조국땅을 덮히고 밝히는데 바친 공적으로 력사에 길이 빛난다면 그 삶은 영생을 자부할수 있을것이다.

이 땅에서 생을 받은이라면 그가 누구든 조국을 위하여 자신이 쌓아올린 넋의 탑이 있어야 한다.

공훈예술가 윤룡숙은 조국의 무궁한번영에 바쳐갈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한생을 하루같이 살아온 녀성조각가이다.

그는 금강산에서 그림고 그림던 동생 윤경섭과 꿈같이 만났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헤어졌던 그들 오누이는 반세기가 썩 넘어서야 백발을 이고 다시 만난것이다.

래일이면 또다시 평양과 서울로 갈라져서 떠나야 한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나보게 될런지?!.....

애달픈 침묵이 한조한조 흐른다.

짐짓 활기를 담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것이 확연한 동생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린다.

《야—아! 이게 무슨 향기야?! 오호라, 이진 다래향기가 분명한데... 누님, 얼른 좀 찾아보시자구요!》

삽시에 동심이 되여가지고 마냥 들이덤비기 시작한다. 보물은 그들이 앓으려던 너럭바위 바로뒤에 있었다.

신비한 비취색을 내뿜는 다래알들엔 이슬이 령롱하다. 그아래 너설바위에 떨어진 다래알들에서도 진한 향기가 풍겨온다.

《자—아— 누님, 어서 아—》

그들은 저도 몰래 장난꾸러기가 되여버렸다. 감탄사를 아끼지 않으며 연방 한알 또 한알 서로의 입에 넣어준다.

그래도 먼저 자기로 돌아온것은 역시 누이다.

《...이젠 그만하고 남겨두자꾸나. 우리가 간다음 여기 또 오게 될 사람들 생각도 좀 해주는게 옳지?!》

《누님은 정말 천사이시군요! 하긴 여기가 숲속

치군 아주 길옆인데 이 꼴다랗 그냥 다 남겨둔걸 보면 복녀형제들은 하나같이 천사가 분명해요!》

그옥한 눈길로 누이를 바라보는 동생의 얼굴엔 순결한 믿음이 가득 어려여있다.

《가만 계세요. 누님, 이걸 조금만 따서 평양과 서울집에 귀물로 가져간대도 신령님이 그닥 노하실것 같진 않아요.》

동생은 부산스레 옷주머니를 뒤진다.

그런데 문득 윤룡숙의 가슴이 후두둑 뿔다.

(저건 분명 내 손수건이다. 헤어지던 그날 다래한줌 나누어 싸서 동생들 주라고 어머니의 손에 들려보냈던 그 무명손수건! 내 손으로 코바느질한 빨간색실테두리!)

목이 짹 메여오고 눈앞이 흐려온다.

그것으로 정성들여 감쌌던 딸기색의 네모진 پاک을 안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은 경섭이 다래한줌을 그 손수건에 조심히 담는다. 가장 진귀한 보물을 다루듯 자못 진지한 모습이다.

《가만, 잘못 다루면 다 터져요. 그리구 내 뒹은 여기 내 손수건에... 누님, 이걸 아주 조심해서 갖고가셔야 합니다.》

...

반세기 썩 전의 그 시절로 되돌아가보련듯 아무리 애쓰대도 절로 숙연해지지 않을수 없는 그들 오누이다.

하염없이 서로 바라다만 보는 눈동자속에서 혈육의 정이 소리없이 타오르며 보이지 않는 불꽃을 뿜는다.

윤룡숙은 어머니의 무명천보자기에 차곡차곡 싸가지고 온것을 펼치기 시작한다.

동생도 그것이 어머니가 림종의 시각까지 누이에게 줘보냈노라고 옛말처럼 외우던 그 무명보자기임을 알아본듯 슬그머니 눈굽을 훔친다.

침묵이 흘러간다.

만가을... 다래... 무명손수건과 무명보자기... 어머니와 작별하던 그날, 그 시각이 가슴저리게 그려지게 하는 이 시각!.....

《넌 만나러 오면서 헤어질 때 보낼 기념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였다. ... 자— 어머니의 청동반신상이다. 내 마음 다 기울여 빚은것이니 그리알아다오. 그리구 이진 화첩이다.

내가 한생을 바쳐 조국땅에 남겨놓은 조각작품들이 다 원색사진으로 편집되어있다!

그담 이진 우리 나라 미술가들을 소개한 소책자인데 여기 가운데쯤 네 누이도 나와있다.》

경첩은 조용히 소리내어 읽는다.

…녀성조각가, 공훈예술가 윤룡숙,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시기 무전수로 복무, 평양미술대학 조각 학부를 졸업, 칠골혁명사적지에 모셔진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어머님의 동상을 비롯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100여점의 조각작품을 창작발표…

새 세기에 국제적규모에서 열린 평양미술축전에 조각 《장군님 우러러》를 내놓아 70고령으로 2등상과 메달, 시상품을 수여받음…

《야 —아! 내 누님이 이리도 우뚝 솟아오르실 줄이야?! 누님, 정말 놀랍군요! 그래 누님은 무얼 가지고 단신 북녘땅에 오셨던가요?! 선친의 배경? 든든한 재력? 비범한 재능? 아니었어요. 아니었지요!…

아—아— 그런데 어머님께선 어찌하여 이 놀라운 소식도 못 들으시고 오늘의 누님모습 한번 보실수도 없었던 말이에요?!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절통합니다. 나라의 허리를 동강내고 혈육을 갈라놓은 분렬세력에 저주가 있으라! 멸망이 있으라! 아! 누님—》

그들의 랑볼은 뜨거운 눈물에 흠뻑 젖는다.

《누님, 난 년로하신 내 누님, 여기엔 단 한명의 형제도 없는 내 누님이 정 요긴할 때 팔아쓰기라도 하시라고 이 가락질…》

품속에 넣었던 그 껍에서 큼직한 한쌍의 금가락지를 꺼내어 누이의 손에 끼워주며 뜨겁게 속삭인다.

《누님은 어머니가 주셨던 그 무명보자기에 누님이 세우신 냇의 탑을 모두 다 담아오셨군요!

그런데 난… 이 손수건, 누님의 이 손수건에 내가 무얼 과연 싸가지고 왔을가요?!

난… 난… 나는 누님이 세우신 그 탑들 밑에 깔려있는 티끌과 다름이 없는걸 가져왔지요?!

그렇지요?! 누님, 그래요, 그래… 정말 티끌이에요. …

난 어머니와 누님이 샅집지시던 그 간판점주인에게서 일해주며 배운 조각창작기교도 다 버리고 인생을 참말이지 빛발없이 탕진당해왔답니다.

걸음마다 목을 조이고 발목을 걸어채는 무자비한 생활난의 무한궤도에 짓이기우며 피눈물을 흘릴 때마다 난 생각했지요. 어떻게 해서나 남 못지 않은 재력 키워야 한다구요!…

참말 내 인생엔 그 어느때에도 삶의 해님이 없었습니다. …

내 마음은 언제나 마가를 허허벌판의 마른 쭉대발처럼 공허했구요. 인생의 황혼이 너무나도 처량하다는 쓰디쓴 생각에서 늘 모태기고있지요.

고작 수도꼭지나 팔며 연명하는 인생… 더 기대하는것도 없답니다.》

빛이 바래인 눈동자에서 샘솟는 눈물이 넘쳐나 주름깊은 볼을 하염없이 적신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추석이지요?! 내 어머님의 령전에 누님소식 자상히 전하여올리렵니다.》

윤룡숙은 빼암진단까지 받고 마감걸음으로 누이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왔다는 동생을 어린애마냥 껴안고 그의 성긴 백발을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 흐느낀다.

《누님, 이 못난 아들이 한생 호구지책에만 옴해온 버려지인생 살았다고 부모님의 령혼들이 꺾도 분해하실겁니다. …

그리고보면 대대로 조각에 뜻을 두고 고향을 해온 우리 가문이라지만 성공한이는 누님 오직 한분뿐이에요!

아!—참, 누님, 누님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 혈혈단신 맨주먹으로 북녘에 왔는데 그 삶의 절정은 어찌면 그리도 빛날수 있었나요?!》

간절한 눈빛이 대답을 기다리며 누이를 응시한다.

빛나는 삶의 절정!

윤룡숙도 한없는 감개에 젖어들며 동생을 마주 본다.

삶의 목적과 젓줄기

윤룡숙은 동생의 손을 따듯이 어루만지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삶의 절정이 빛나려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승고하고 뚜렷해야 하였고 그것을 애지중지 지켜주는 삶의 태양이 있어야 한다.

그에게 참된 삶의 목적을 안겨주고 삶의 빛나는 절정으로 이끌어준 당의 젓줄기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회고하는 윤룡숙의 이야기를 경첩은 심장에 새겨넣고있다.

…고래도 바다가에 밀려나오면 못벌레들에게 갇히운다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도 방향을 잘못잡으면 그것을 아주 망쳐먹는다고 한다.

호흡기가 대기를 바라듯,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그가 창작의 세계를 한생 뜨겁게 사랑해온것은 그에게 뚜렷한 삶의 목적을 안겨준 당의 믿음이 있었기때문이었다.

…

그때 윤룡숙은 어둠이 깃든 교외의 산골길을 걷고있었다. 목적지가 가까와올수록 발걸음은 무거워만 졌다.

제대명령은 받았지만 그를 기다려주는 한명의 혈육도 집도 없는 처지였던것이다.

…태어난 곳은 이국땅, 세방살이 먼지봉당이 그의 요람이었다. 아버지를 빼앗긴 후 이국의 황야를 헤멜 때엔 하늘이 지붕이고 땅이 그들 형제의 잠자리였다. 해방후 남녘에선 행랑방드난살이 신세였다.

결국 태어나 스무살을 켜 넘긴 그때까지 집이

라는것을 못 가져본 윤룡숙이었던것이다. 그때 무릎에 꼭 껴안고 길설 바위우에 앉아 불을 기대고 있는 제대배낭 하나가 그의 전재산이었다.

...그리 멀지 않게 저기 무수히 반짝이는 불빛은 이젠 평양에 다 왔다고 다정히 속삭이는듯 하였다.

전쟁3년간과 전후에도 거의 2년간 계속된 군사복무과정을 통하여 참다운 조국을 알았고 부대 주변 인민들과의 친밀한 접촉과정에 그 품에 안겨사는 사람들의 인간미도 모르는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는 병사에 대한 인민의 지성속에 맺어진 군민관계속의 자신이였다. 이젠 제대되었고 아직은 직업도 없는데 진정으로 반가이 맞아줄 인정이 기다려주는 곳이 과연 자신에게 있기는 있을것인가?!... 중대를 떠나서는 한시도 못살 것만 같던 그 마음이 되살아나며 눈곱이 뜨거워졌다.

시가지에 들어섰다.

오가는 사람들의 씩씩한 발걸음과 활기찬 거동, 그들의 얼굴에 넘치는 티없는 미소는 그의 마음을 후덥게 해주었고 저도 모르게 푸근한 안정감속에 잠겨들게 하였다.

수도에 도착한 첫밤을 거리도 돌아보고 역사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밝힌 그는 날이 푸름해오기 바쁘게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를 찾아갔다. 미술대학입학과 관련된 실무적문제를 정확히 알고싶은 조바심에 한시가 급했던것이다.

(남녁에 있을 때 그 이름도 미처 다 외우기 힘들던 《등록금》, 《보증금》, 《입학금》... 그 쓸한 돈이 없이도 나라가 다 맡아서 공부시켜준다는 이 전설같은 세계의 행복한 주인공으로 과연 나같은 사람도 실지로 될수가 있을가!?)

그러나 산같은 근심과 위구심은 한순간에 다 날아나버리었다.

제대병사라는것, 조선인민군군무자미술전시회때에 통신병을 형상한 한편의 그림이 당선된적이 있다는것으로 해서 그는 그날부터 미술가동맹에서 사업하게 되었던것이다.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동맹일군들이었지만 그에게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다음해 대학입학시험준비를 갖추도록 친부모형제가 되어주었다.

며칠후에는 모란봉기슭의 아담한 단층주택까지 배정받아서 함께 일하는 녀동무와 둘이서 재미있게 살수 있었다.

지금의 금룡동굴입구부근의 덩실한 기와집이 그가 난생처음으로 가져본 제집이었다. 지금은 통일거리의 고급한 살림집에서 살고있고 그전에도 여러번 좋은 살림집을 받은적이 있지만 지금도 꿈에는 모란봉기슭의 그 유정한 집에서 대학에 다니는 자신을 보곤 한다는 윤룡숙이다.

정말이지 그때 윤룡숙은 자신이야말로 신비한 동화속의 행복한 녀주인공이 되었다고밖에는 달

리 생각할수 없었다.

당당한직업, 아늑한 제 집, 다정한 녀동무, 혈육같은 이웃... 달마다 충분한 생활비와 쌀이 공급되었다. 그밖에 제기되는 모든 생활상 문제는 동맹에서 다 풀어주었다.

그는 세상에 부럼없는 자신의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드릴수 없는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아니, 이 《별천지》, 《별세상》에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살수 없는것이 한없이 절통하였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이에서는 한시바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불기둥처럼 치솟아올랐다. 입대후부터 나날이 깊어지고 커가는 행복의 심도와 정비례하여 그러한 생각과 감정이 어느 순간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

이듬해 봄!

꽃이 활짝 핀 4월명절에 윤룡숙은 함께 사는 녀동무와 손목잡고 만경대로 갔다.

(강반석어머님께서 우리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안아올리시지 않으셨더라면 지금도 조선의 모든 녀인들이 나의 어린시절처럼, 우리 어머니의 한생처럼 피눈물속에 절며 속절없이 썩고말것이 다.

아! 조선의 모든 어머니들의 어머니이신 강반석어머님의 모습을 뵈고싶구나! 삼천리 이 강산에, 우리 인민의 가슴에 봄을 안아오신 태양의 어머님모습은 과연 어떠하실가!?)

사실은 나날이 깊어가고 뜨거워지는 강반석어머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이길수 없어 찾아간 만경대고향집에도, 칠골외가집에도 어머님의 사진은 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윤룡숙은 자신이 십여년 후에 자신처럼 강반석어머님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자신이 그이의 모습을 기어이 조각하리라고 현실적으로 결심하리라는것도, 강반석어머님의 탄생 80돐을 맞이하게 되는 그무렵 불덩어리를 안은듯 한 심정으로 어머님의 모습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리라 조국앞에 크나큰 맹세를 드리게 되리라는것도 아직은 알지 못하였다.

다만 통일의 그날! 전민족의 최대의 숙원이 풀린 그날이 와서 어머니를 열째안는 그 순간에 고마운 조국앞에 땀뿜이 해놓은것이 있는 딸이 되고싶었다.

조국의 무궁한 번영속에 이 딸이 흘린 땀이 고결한 녀의 탑이 되어 빛나게 될 때 피눈물속에 이 딸을 자래웠고 헤어지는 그 순간에 부디 죽지 말라고 목메여 당부하시던 어머니는 그 얼마나 기뻐하고 대견해하시랴!

(지금부터 내 삶의 목표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나에게 삶의 젖줄기를 안겨준 어머니당을

위하여 이 땅의 방방곡곡에 세기를 이어가며 빛나오를 대기념비적조각작품을 창작하는것이다!

통일의 그 아침!

나는 어머니와 오빠, 동생들의 손을 잡고 다른 아닌 내 녀의 탑들로 될 그 기념비들로 안내하리라!

그리고 궁지높이 말하리라!

나를 안아 키워준 당의 젖줄기가 있었기에 이 딸은 조국이 사랑하는 이 나라의 이름높은 예술가로 자라났다고!...

아! 나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나는 내 손으로 기어이 강반석어머님의 모습을 동상으로 형상하리라!)

그러나 아직은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생각을 말할수 없었다.

당의 품에 안기여 삶의 목적을 갖 세운 《아기》는 이제야 걸음마 땀 차비를 서두르고있을뿐이었던것이다.

그리움의 분출

늦가을과 초겨울이 정답게 어울린듯싶은 아침! 부드러운 해살이 누리를 련연히도 어루만진다. 풍만한 늦서리의 정교한 장식숨씨인지! 소담한 눈꽃이 펼친 백설의 장엄한 번쩍임인지!

정갈한 정원은 신비의 세계를 이루고있다. 포르릉— 메세 두마리가 날아오르며 청아한 노래소리로 정적을 깨뜨린다.

각—각— 까지 한마리가 날아와서 은행나무우듬지에 살짝 내려앉는다. 은빛가루가 사분히 날아내리며 반짝이는 곳마다에 령롱한 아기무지개가 곱게 곱게 비껴간다.

만물이 삶을 즐기려고 서두르는 희열의 시각.

그 아침에 윤룡숙은 창작사정원에 있는 다래덩굴을 열싸안을듯 마주서서 감격과 흥분을 억제 못하고있었다.

함께 일하는 창작실동무들이 윤룡숙을 생각하여 먼 수안산골에서 떠다심고 정성다해 가꾸는 사연도 깊은 다래덩굴이다.

(어머니, 오늘은 예술가로서, 인간으로서 내 한생에 고이 간직하였던 필생의 소원이 다 풀리게 된 날입니다.

어머니! 기뻐해주십시오. 생사를 가늠할수 없는 길을 떠나는 이 외동딸에게 다래 한줄밖에 쥐여보낼수 없었던 어머니의 이 딸이 오늘 조국이 믿어주는 조각가로 자랐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대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의 모습을 조각으로 형상하고싶던 소원이 드디어 우리 창작집단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습시다. 강반석어머님의 탄생 80돐을 맞이하는 날에는 기어이 동상제막식을 할수 있도록 하자고 우린 결의 다지였답니다.

어머니는 잊저녁 꿈에 이 딸의 어엿한 모습을 분명 보셨을거예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요?!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요?! 무얼하고계신가요?! 정말 어머니가 보고싶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포연이 자욱한 동구밖에서 어머니가 안겨주 시던 흰 무명보자기의 부드러운 촉감, 그속에서 몽클 폐부에 스미던 다래의 류다른 향기가 이날 따라 왜 이다지도 생생히 떠오르는지?!...

그때 그의 집에서 《전선원호대》 집결처까지는 거의 20리가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른 그들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야 할 시간까지는 이제 한시간.

나무줄기에 기어오르려는 아기사람쥐마냥 그는 달려오던 그 속도로 엄마품에 매여달렸다. 어머니의 눈에서 넘쳐난것이 어느새 그의 볼을 뜨겁게 적시였다. 열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를 빼앗긴 그에게는 말그대로 어머니가 하늘이자 땅이었다.

왜놈들에게 너무도 참혹하게 아버지를 빼앗긴 그날부터 웃는것을 영영 잊으신듯 한 어머니였고 그의 형제들을 가혹하달정도로 엄하게만 대해오시는 어머니였다. 그래서 그 시절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단 한번이라도 피여날수 있게 그 어떤 기특한 일을 하고싶은것이 늘 그의 마음가짐이었다.

그러나 그 《기특한 일》로 하여 어머니의 눈에서 하염없이 쏟아져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드릴수도, 함께 마음놓고 목놓아 울지도 못했던 그 날은 해방된 이듬해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그가 심부름군으로 해종일 들볶이우는 자그마한 개인음식점에서 전차정류소 한구간이 되는 거리의 언덕진 곳에 크지 않은 간판점이 있었다. 주문받은 간판을 써주면서 그림도 그려팔고 조각작품도 빚어 파는 개인기업이었다.

그날 오후 세시쯤 주문국수를 날라다주고 돌아오는 그를 만난 간판점주인이 국수 한그릇을 제격 받아다달라고 하였다. 국수값보다 20전을 더 주며 전차타고 날듯이 갔다오라는것이였다.

(뛰어갔다면 이 돈 엄마께 드릴수가 있고 행랑방주인네 집에 진 빚을 한푼이라도 더 빨리 갚을수 있겠구나!)

정신없이 달려가 제시간에 국수를 갖다주고 잠간 숨을 돌리자고 담모퉁이 그늘에 섰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왔다. 발앞의 땅이 흐물거리며 꺼져들어가는듯 한 착각에 팔을 앞으로 내짚으며 허우적거리던 그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지고말았다. 하루같이 멀건 죽물로 끼니를 굶뎠채 종일 짓달려다니며 잡심부름에 몰 한모금 맘놓고 마실새가 없었던 윤룡숙은 모진 시장기에 못이긴것이였다.

쓰러진 그대로 한동안 눈을 감고있는 그의 가까이에서 식초와 겨자냄새가 엷어져 감도는 구수한 옥수물의 향긋한 냄새가 술술 풍겨왔다. 그 간

관점 주인이 남겨놓은 국수물에서 풍기는 냄새였다.

손바닥에 자리가 찍히도록 꼭 감싸진 엽전의 촉감을 느끼며 그는 저도 모르게 사위를 살펴보고 있었다.

급히 국수물을 두어모금 넘겼다. 말라들었던 목이 젖어들려는 찰나였다. 앞뒤에서 문득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소스라치며 굳어져버린 그의 앞에는 련탄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선 어머니가, 뒤에는 손에 유화구통을 쥔 간관점주인이 우뚝 서있는 것이 아닌가!

시간과 공기의 흐름마저 정지된 듯... 호흡이 멎고 귀에선 우—웅— 하는 울림만이 감촉되었다.

어머니를 보자 그 파랗한 얼굴에 웃음발을 그리려고 애쓰며 손바닥을 펴고 엽전을 내미는 딸을 와락 그러안고 어머니는 소리내어 통곡하였다.

점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길러오는 자식들... 눈치를 보며 흠치듯 손님이 남긴 국물로 허기증을 달래며 처녀꼴이 잡혀가는 나이에 수치심에 몸부림치는 그 정상... 쌓이고 맺힌 한이 쏟아지는 듯 목놓아우는 어머니...

불안고 한덩어리가 되어 눈물에 젖은 볼에 볼을 비비며 함께 목메여우는 모녀의 정상에 장년의 그 사나이도 눈시울을 붉혔다. ...

...그날을 인연으로 그들 모녀는 조각왕찰흙을 먼데서 날라오는 일거리를 얻어 거기서도 약간의 수입을 얻게 되었고 행랑방주인의 사나운 눈썹앞에 보태어 내놓곤 하였다.

...그 당시 미술공부는 윤룡숙의 집안형편으로 써는 오르기는 커녕 쳐다도 못 볼 너무나도 아득히 높은 《나무》였다.

재능이 아깝다며 몇가지 가르쳐보니 하늘천 하면 넘을천 하는 애인데 계속 저렇게 허드레일만 시킨다는 것은 부모된 도리로써 아니할 일이라고 여러번 되뇌이는 간관점주인의 말이 하루에도 그 몇번씩 가슴에 마쳐오는 어머니 림주옥이었다.

그즈음 밤이면 또 밤대로 한강가에 나가서 자갈까는 품을 팔아서야 여섯식구의 입에 풀칠이나 마 하는 어머니로서는 윤룡숙에게 미술공부의 길은 고사하고 일반배움의 문조차 열어줄래야 열어줄 수가 없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이 해방되어서야 윤룡숙은 평양국립미술학교(당시)학생이었다는 인민군병사에게서 연필주는 법부터 배울 수 있었다.

...만가울의 불타는 단풍과 노란빛으로 화려하게 단장한 정든 산천을 깡그리 재더미로 만들려는 듯 화광과 폭음이 광란하는 속을 윤룡숙은 무서움도 잊고 집걸쳐를 향해 뛰고 또 뛰었다.

동구밖을 훨씬 벗어나서였다. 문득 뒤에서 룡숙아 하고 찾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

목소리 같았다. 착각이겠지, 자신을 타일렀다. 그런데 어느새 어깨에 와닿는 어머니의 손길.

뜨겁다.

《어머니!》

숨가빠 속삭이듯 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귀전에 울린다.

《경섭이, 은섭이랑 그 녀석들이 이젠 사과상자 두개만 겹쳐놓고 올라서면 뒤통박ض은 닝큼 들어 내리운다. 네가 언제쯤이나 돌아오겠는지?! ... 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 다래 어디 건디여내겠더라구?! ...전번 산골에 피난갔다올 때 따다둔 것인데 너 떠난 다음에야 생각이 나서...

목이 마를 때마다 입에 넣어 녹여라. 부디부디 죽지 말고 살아돌아와다오!...》

그날이 어머니와 영영 헤어지는 날로 되어버리고만 것이다.

(어머니! 어머니에게 웃음 한번 안겨드리고 싶던 소원도 풀어볼 수 없었던 이 딸이 오늘은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예술가로 자랐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환히 웃으시는 어머니의 그리운 모습이 저의 눈앞에 선히 안겨옵니다.)

이제 헤쳐가야 할 보람차고도 힘겨운 창작로정에 대하여 엄정하게 내다보려는 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리만큼 윤룡숙의 감동과 감격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보답

누이의 이야기에 심취된 경섭은 손수건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기도 하고 더 붉게 상기되어가는 얼굴에 감격에 겨운 웃음발을 날리기도 했다.

저도 몰래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누이의 한손을 두손으로 꼭 그러잡은 채 그의 다음이야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의 눈동자를 정겹게 들여다보며 윤룡숙은 생각하였다.

(우린 단 하루도 헤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 역시 혈육간에는 반세기가 넘는 아득한 시공간적인 격세감쯤은 순간에 해소되어 버리는 것이구나! ...한 가정의, 한 민족의 혈맥은 그 어떤 외세의 힘도 결코 갈라놓지도 끊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

은행나무의 도톰하게 살져보이는 잎사귀엔 뽀얀 안개발이 서린 듯 하고 밟그레한 다래순에서 돌는 파아란 잎마다엔 자르르 기름기가 흐른다.

아아한 창공높이에선 부지런한 종다리의 희망찬 지저귐소리...

절기가 불려오는 다함없는 생의 활력이 그 어디나 차넘치는 아침이다.

반년전 그리도 격동에 넘쳐서있던 그 사연깊은 다래덩굴앞에 윤룡숙은 오늘 깊은 생각에 잠겨 오래도록 서있다.

위대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원숙한 인격미가 점점 더 뚜렷한 조형적완벽감을 띠며 심장에 안겨올수록 그이의 모습을 기어이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리라는 마음이 다져지는것과 함께 예술가로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뼈아픈 통탄이 엄습해오는것이였다.

너무도 뜻깊은 력사적조각작품의 직접적인 형상담당자로 나선 그의 어깨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자신에 대한 믿음부터 찾는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였다.

(어머니! 이 딸이 자신을 이겨낼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보태주세요! 이 딸을 무섭게 채찍질해주세요!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를 목메여 부르며 뜻과 용기를 다시금 새롭게 가다듬는 윤룡숙의 눈앞에 불현듯 입학시험응시자격심사를 위한 첫 예비담화장이 방불히 그려졌다.

...

《너동무가 고집도 어지간해야지?! 동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야 대학에 입학한다고 그러니까?! 게다가 조각은 미술계에서도 가장 고된 중노동과 같은것인데, 그것도 녀성인 동무가?!

동무, 좀 깊이 생각해봅시다.

혹심한 전쟁의 피해를 가시는데 얼마나 큰 자금이 드는지 동무도 모르진 않을겁니다. 허리띠를 모질게 졸라매가며 조국과 인민이 투자하는 막대한 교육비는 조국의 앞날에 반드시 보다 더 큰 실리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우기 오늘날 조국앞에서 모든 공민은 향유의 권리에 앞서 창조와 노동의 의무, 웅대한 보답의 의무를 깊이 자각해야 될 때입니다. 자— 다음동무 들여보내시오.》

《선생님, 둘도 십년을 보고있으면 구멍이 뚫린다고 합니다. 저의 집안은 대대로 미술에 뜻을 두고있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였습니

다. 서울이 해방되어서야 진정한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었던 저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서나 제대후에도 계속 미술에 뜻을 두고 자체로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전 꼭 조각가가 되어야 합니다.》

《동무, 그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동문 대학입학나이가 지났다고 하지 않습니다가?!》

《선생님, 응시자격을 위한 예비담화의 첫 공정인것만큼 더욱더 순차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주시시오.》

(아! 반드시 조각가가 되고야말려는 나의 이절절한 심정을 이 학자풍의 교원예술가에게, 그토록

도고하고 엄격한 실력가라는 이 심사위원에게 어떻게 해야 납득이 가게 할수가 있단 말인가?!)

저도 몰래 눈물이 솟구쳤다.

인간의 끈고 깨끗하고 뜨거운 마음이 얼음같은 마음의 장벽에 부닥치게 되면 슬픔으로 응결되고 보다 더 열렬한 마음의 포옹을 받게 되면 환희로 분출된다는 그 눈물이 그의 옷섶을 흠뻑 적실듯 그냥 샘솟았다.

리성으로써는 걸잡을 길이 없는 그 어떤 격렬한 불길이 회오리치다 절로 응결되어 흘러내리는 것이였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그는 교수에게 아버지의 참혹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하였다.

물 한고뿌를 가져다 윤룡숙에게 친절히 권한 《랭랭》한 교수는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어내며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심중히 들어주었다.

...서울에 올라와 고학으로 조각공부를 하던 아버지 윤철구는 왜놈경찰을 통폐하 징벌한 김구의 단독의거에 열렬히 공감하던 끝에 자신도 그와 같은 애국적장거에 함께 나설 결심을 남몰래 다지였다.

마침내 온몸의 피가 무서운 환희로 끓어번지는 장쾌한 시각을 체험한 아버지는 경찰의 눈을 피하여 이웃나라의 변화한 도시로 피신하였다.

상해전차공사에서 일하다가 《반일분자》, 《불온분자》로 상해시 우쭐루에 있는 왜놈록전대병영에 끌려간 아버지는 왜놈들의 살인실전의 대상으로 되어 머리없는 시체로 발견되었던것이다. (왜놈들은 《기모다메시》 즉 일본혼을 키워준다는 살인실전의 대상으로 수많은 조종민인을 학살하였다.)

그때 시신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혼절하였던 어머니는 한생을 심장병으로 시달리다가 끝내는 그 병으로 비명에 가시였다.

그때 그 야수들과 맞설 힘이 없는 자신을 그 얼마나 통탄하였던가!

그러한 참극을 막아줄 진정한 조국이 없다는것조차 알수 없었던 자신이 두고두고 그 얼마나 저주스러웠던가?!

하지만 간호원, 무전수, 병사미술가로 부대의 극진한 사랑속에 성장하였고 오늘은 대학입학시험응시자격심사장에 나선 그는 어제날의 그 소녀가 아니였다.

조국의 무궁번영에 굳건한 초석으로 될 삶의 목적과 구체적인 삶의 목표까지 세운 당당한 공화국공민이였고 조선로동당원이였다. ...

《향유의 권리가 아니라 창조의 의무를 무겁게 여기라》던 그 심사위원은 한생 윤룡숙의 고마운 은사로 되였다.

위대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의 그리운 영상을 조각으로 형상할 그날을 맞이해볼 일념으

로 남몰래 가슴불태워온 윤룡숙은 국내외의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된 조각가들의 기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분과 초를 조개여갔다.

십여년의 세월은 살같이 흘렀다.

그런데 드디어 바로 그날이 온 것이었다.

(강반석어머님의 그 모습에 대한 조국과 인민의 한없는 그리움을 풀어드리리라!)

윤룡숙의 심장은 하루에도 몇번씩 이 불타는 열의를 새기고 다시 또 새기곤 하였다.

...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강반석어머님의 동상이 웅당한 형상적 높이에 오르지 못하여 고심을 거듭해온지 두달...

윤룡숙의 이마에 맺혔던 땀방울이 구울러내리며 그의 눈을 쓰리게 한다.

더없이 정가로우면서도 폭이 큰 조선적인 정서가 함뿍 담긴 독특한 기법을 살려내고싶은 윤룡숙이어서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웅당한 높이에서 엄격히 견지하고있었다.

...이렇다할 전진이 없는 또 하루...

찰각찰각...찰각찰각...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간다.

종횡으로는 우아한 조화와 세련된 균형을 잡아 주고 비였던 공간에도 기세찬 영상을 우뚝 부각 해주며 무형의 덩어리를 깎고 다듬어 예술적조형으로 번쩍 솟아오르게 하여 풍만한 량감과 질감을 한껏 돋구어 무한한 안정감과 무게를 안겨주던 그의 조각칼들도 어쩐지 지금은 그와 혈액이 통하지 않아 그만 무뎠해진것만 같았다.

...찰각찰각... 찰각찰각...

시계의 초침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크게 들려오며 한껏 고요가 깃든 창작실안을 꽉 채우는것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손목시계의 초침소리가 점차 윤룡숙의 귀에는 덜컹덜컹하는 기차바퀴소리로 바뀌어지는듯싶다.

그 기차바퀴소리는 언제나 그의 가슴에 칼로 에이는듯 한 아픔을 주는 소리였다.

...아버지를 잃은 그해 여름에 윤룡숙과 그의 두 동생은 《수화물》로 조선에 부처졌다. 윤룡숙의 오빠와 등에 업은 유복자만을 그곳에 남겨둔 어머니가 윤룡숙과 그의 두 동생을 고향의 친척들앞으로 《부처》던 것이다.

그들 셋이 입고있는 옷과 내의의 앞과 뒤에는 먹으로 써서 껌맨 꼬리표가 붙어있었다. 이 아이들을 조선 경기도 포천으로 가당게 이글을 읽은 이들은 다 도와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써여있는 꼬리표였다.

열살이 채 못된 윤룡숙이 동생들의 손목을 잡고 갈따구가 생살점을 녹두알만큼씩 물어뜯어내던 머나먼 대륙을 몇달이나 방랑하며 지나왔다.

그 어디론가살길 찾아 떠나버린 친척을 찾아 이파출소, 또다시 저 파출소로 이리저리 던져지던 숨쉬는 세 짐짝이 바로 그들 형제였다.

얼어터져서 진물이 흐르는 손으로 한덩이의 찬밥을 구걸하던 때 그의 불에서 마를줄 모르던 피눈물의감촉을 어이 잊을수 있으랴?!

...그러던 그의 눈에 행복과 기쁨, 삶의 보람과 아름다움에 감격한 보화같은 눈물만이 샘솟게 하여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자애로우신 영상을 한없이 우러르던 윤룡숙은 심장으로 환성을 울리었다.

(아! 분명 그 모습 그대로이시리라!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 수령님 그대로이시리라!)

그의 손은 저도 모를 무한히 신비로운 힘에 이끌리듯 세차게 살아 숨쉬기 시작하였다.

그윽한 빛으로 누리를 가득히 채우는듯 한 어글어글한 강반석어머님의 안광! 아름답게 비껴간 쌍까풀의 그토록 오묘한 곡선의 황홀함! 정깊은 사색과 기대가 어린 그 눈빛이 발산하는 다함없는 사랑! 아! 분명 어머니의 심혼이 비졌다!

드디어 강반석어머님의 빛나는 영상은 동상으로 완성되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게 되었던것이다.

×

윤룡숙은 동생과 작별의 말을 절절하게 나누었다.

...한 나라의 력사는 그를 보다 완성해가려는 고결한 인간들이 쌓은 무수한 뉘의 탑들로 하여 진보한다.

내 조국은 이 땅의 참된 아들딸들이 세운 뉘의 탑들로 하여 나날이 강성해간다.

우리 민족성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쌓아올려야 할 제일 높이 솟은 탑, 제일 빛나는 탑, 길이 길이 불멸할 뉘의 탑은 조국통일이다.

남녘에 있는 나의 모든 혈육들에게 꼭 전하여다오.

뉘에 뿌리가 있으라고, 뉘에 불길이 있으라고, 그 뉘으로 일떠세운 각자의 뉘의 탑이 조국통일의 초석이 되도록 살라고!

그 길에 바로 하나된 천하제일의 강국— 내 조국의 앞날이 있다고.

통일된 조국을 하루빨리, 한시바삐 안아오자고.

...

공화국창건 60돐을 맞으며 80고령을 내다보는 윤룡숙은 월미도방위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형상한 조각 《조국이며 무궁번영하라!》를 창작하여 송화미술전시회에 내놓아 다시한번 인민의 크나큰 기쁨과 자랑으로 되었다.

《조국이며 무궁번영하라!》

윤룡숙은 조각의 제목을 자신의 한생의 념원과

실천, 총화이라고 생각한다.

《조국이어 무궁번영하라!》

할수만 있다면 저 푸르른 조국의 하늘에 그 글
발을 영원히 아로새겨놓고싶다는 녀성조각가 윤
룡숙!

이 행성의 그 어디에서 살든 그가 조선사람이
라면 그 언제나 바라보며 살도록 피로써 아로새
겨놓고싶은 그 심정을 후대들의 심장에 새겨주고

싶다는 윤룡숙!

헤어지며 말없이 누이의 손을 꼭 잡고 놓을줄
모르는 동생의 손아귀에 만나서 처음으로 손잡던
때와는 다른 억센 힘이 느껴진다.

마침내는 하나가 되고야말 조국의 래일이 확신
되어서이리라!

어머니조국이 안겨주는 향취런듯 다래향기는
끝안에 그윽하다.

우리는 백두산유격구시절처럼 산다

오상철

벌이라도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벌에서

곡식을 가꾸며

때없이 입에 올리는 말이다

—우리는 백두산유격구시절처럼 산다

그 감자꽃 물결우에

우리 장군님 터뜨리시던 호탕한 웃음

백두산유격구에 울려 퍼지던

《유격대행진곡》의 우렁찬 메아리처럼

이 벌에 끝없이 물결쳐갔거니

어찌 그렇지 않으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

백두산 이 벌에 펼쳐간 《감자농사혁명》

그 이랑을 타고 보란듯이

락원으로 줄달음쳐온 우리 대흥단

그런 대흥단이다

신념의 총대처럼

일터의 실참에도 손에서 놓은적 없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투사들의 그

모든 뉘와 열정, 념원을

삶을 품이는 불로 심장에 지피며 사는 우리

어찌 잊으랴

빨찌산의 식량을 보장해주던

항일전의 유격구에서처럼 살고픈 대흥단에

우리 장군님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피주실 때

심장으로 그 믿음 받아안았던 우리 대흥단

아, 피어린 조국해방의 그 한자육한자육

크게 떠밀어준 유격구와도 같이

선군조국의 발걸음

힘차게 떠밀어주는 대흥단

그날의 유격구인민들 그대로 닮아

그렇게 살아야 할 대흥단의 삶들!

그래서 지금도

철령, 초도, 판문점과 오성산

누구나 외우는 그 이름들도

우리의 가슴에선 《로야령》, 《천교령》...

항일전구의 지명들처럼

뜨겁게 안겨오고

그렇게 조국앞에 서있을 우리다

항일의 피어린 백두산전구

빨찌산의 군량미 보장하던 유격구처럼

선군조국의 보루를 억척같이 다지며

우리는 오늘의 백두산유격구에 산다

우리는 백두산유격구시절의 그 정신으로 산다

고난의 날에 우리 피워낸 감자꽃



초소

김흥균

1

언덕배기의 작은 집을 나선 처녀가 L자로 꺾인 계단을 내려 강가에 나섰다. 하얀 장판지가 드러나게 바지를 걷고 물에 들어선 처녀는 가래기가 젖지 않을만큼 사뿐사뿐 가운데쪽으로 들어갔다.

서두르는양없이 팔소매를 걷은 처녀는 물속에 빠죽빠죽 내민 돌사이에 가로 질린 나무가지며 풀잎, 줄거리따위들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상류의 발전소건설장에서 떠내려온 각자조박이며 대패밥 같은것들도 보였다. 물동처럼 된 그것들을 걷어내자 물면에서 붙잡혀있던 파숨덩이같이 허연 거품들이 핑그르르 돌고 흩어지면서 바빠 흘러갔다. 완만해보이던 물흐름이 눈에 알려게 빨라졌다.

처녀는 기슭에 나와 너래돌우에 놓아둔 기재를 들고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 관측기재를 물에 드리우고 물흐름속도며 수온을 재던 그는 이윽해서야 허리를 폈다. 물물은 손으로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붙이며 강우쪽에 시선을 보냈다.

처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호—》하는 바람새는 소리같은 가는한숨이 흘러나왔다.

처녀의 눈길에 닿은 그곳, 버드나무가 휘우듬히 자빠질듯 강물위로 내뻗친 곳에 한 청년이 낚시대를 드리우고 앉아있었다. 한쪽팔굽을 박고 제뺨듬히 앉아 부지런히 숨박꼭질하는 갸부기엔 관심이 없이 상류쪽만 넋없이 바라보는것이 낚시질엔 영 흥미가 없다는것이 헛동했다.

정신이 온통 건설장에 가있는 청년이었다.

처녀가 청년이 앉은쪽으로 다가가 저어하듯 조용히 일깨웠다.

《관측보고시간이 되었어요.》

《동무가 하오.》

눈길도 돌리지 않고 던지는 통명스런 말에 처녀는 무슨 말을 할듯 바깥을 하다 종시 아무말도 못하고 물러섰다. 몹시 뒤틀린 청년의 속을 자기로서는 어떻게 풀어줄 길이 없다고 여겨져서였다.

그들 두사람은 이곳 무림천예보초소에서 일하는 순영과 성춘이었다.

순영은 계단을 올라 하얀 회칠을 한 높이 않은

널대문앞에서 성춘의 성실한 노력이 깃든 아담한 초소건물을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강기슭언덕배기에 오희 선 크지 않은 무림천예보초소는 빨간 기와를 얹어 사방 눈이 미치는 어데서나 유난했지만 초소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지 못했다. 적합한 후임자가 없어 자리를 내지 못하는 수많은 관측원이 괜한 역사라고 했지만 이곳에 새로 온 성춘이 저혼자 뛰여다니며 몇년 사이에 초소를 이렇게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하지만 예나제나 이곳 성원들이 하는 일은 누구나의 관심밖이었고 눈에 잘 띄이지도 않았다.

도리어 강맞은편 도로를 오가는 사람들은 건물의 이마에 써붙인 군기상관측소 무림천예보초소 패쪽을 보고 《다람이네 고간》이라거나 무슨 동산의 《원두막》이라거나 룡을 했다. 그것까지는 아무래도 좋았다.

급한것은 이곳에서 20리남짓한 상류에 일떠서는 청년발전소건설장에 나드는 돌격대원들이 걸죽한 룡담을 뿌려놓고 갈 때였다.

귀 술가운 익살에 못 들은척 제 할일만 하는 순영의 얼굴이 활짝 붉어지는것은 물론이고 어지간히 배포가 유하다고 하는 성춘이조차 속이 피여올라 영 죽을맛이었다. 그 여운이 오래갔다. 그런 뒤면 성춘은 사내의 자존심을 이기지 못해 한 식경이나 풀떡거렸다.

《내 참 더러워서...》

어데 해볼데가 없어 돌맹이를 집어 괜히 먼지만 타래쳐오르는 뿐엔 행길에 휘익 던지곤 했다.

《하긴 짧은 눈이 이런데서 빈둥거리니 모욕을 받아 짜지, 짜!》

나중엔 자기를 욕해버리고마는 성춘이었다.

예보초소의 일이란 다분히 남의 눈에 그렇게 보일만도 했다. 하루 몇번 꼭꼭 같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관측기재를 든 두사람이 예보초소에서 계단을 내려 물에들어선다. 늘 같은 모양으로 류속의 자그마한 변화와 수온을 재여 관측일지에 기록했다. 네 계절 어느 하루도 번짐이 없는 일과였다. 다르다면 계절에 따라 관측방식이 다를뿐이었다. 장마철엔 다리우에서 했고 겨울에는 얼음을 까고 했다.

그 시간이라야 길게 잡아 20분이면 충분했다.

그런 뒤엔 다시 예보초소에 돌아와 전화로 군 기상관측소에 결과를 보고하는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밖에 봄가을나무심기니 나무모가꾸기니 하는 것은 다 그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이었다.

일감이 많았다. 발전소건설과 함께 염소키우기와 예보소주변에 새땅을 일구어 곡식을 심어가꾸는 일까지 별려놓아 남보기에 호사스러운 직업이었지만 도무지 한가할새가 없었다.

어쨌든 이 사서 《고생》만 아니라면 예보초소일이 단순하고 쉬운 일인것만은 사실이였다.

《책임성을 요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몇명 안되는 기상관측소성원들의 인식에나 필요하고 그들이나 알노릇이였다. 한생을 관측사업으로 늙어온 머리 하얀 군기상관측소장이 전화배나 그들이 읍에 모이는 기회에 드문히 언급하는 예보초소의 중요성소리만 아니라면 그 관측사업을 일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상싶지 않았다.

그래도 혈기가 넘쳐나는 성춘이 지금껏 예서 군소리없이 일한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것이였다. 소장이 늘 말하는 중요성을 그도 납득한때문이였다.

그러던 그가 요즈음 와서 달라졌다.

나무모발김매기, 줄당콩따기, 염소우리청소... 잠시도 쉴새없이 팽이처럼 돌아가던 그가 취미도 없는 낚시대를 드리우고 앉아 딴 생각을 하고있는것을 봐도 그렇다. 하루도 아니고 벌써 며칠째 저렇게 사기를 잃고있다고 생각하니 은연중 고까운 감정중에도 따뜻한 련민과 동정이 차올랐다.

처녀에게 느닷없이 며칠전일이 떠올랐다.

그날 오후녘 관측시간이였다.

강 한가운데 들어서 순영과 머리를 맞대고 관측을 하던 성춘이 불쑥 허리를 펴며 《차소리가 들리지 않소?》했다.

순영이 역시 그 소리를 들었다. 저 아래 굽인돌이 경사지를 뚫느라 가롱대는 소리가 아슴푸레하더니 점점 뚜렷해졌다.

성춘이 피곳 순영이쪽을 보며 낮을 찡그렸다. 공교롭게도 관측시간에 차가 나타났다는것으로 몹시 언짢은 얼굴이다.

지금까지 보던 대체로 차가 지나갈 때마다 기분 나쁜일이 터지곤 했다.

건설장에 려객수단이 따로 없는데문인지 아니면 상하차인원들이였는지 어쨌든 이곳을 나드는 차에는 사람이 없을 때가 없었다. 아니나다를가 적재함우에 네댓명의 돌격대원들이 보였다.

둘은 약속한듯 행길을 등지고 못 본척 머리를 짓수긋했다. 순영도 성춘이도 대형화물차가 먼지를 타래쳐올리며 자기들옆을 지나갈 때 목을 빼들고 이쪽에 시선을 모은 돌격대원들이 제발 말없이 가기를 바랐다.

잠시도 가만있으면 오금이 저려하는 청년돌격대원들이 그저 지나갈리 만무했다.

《여, 친구. 거기서 무슨 놀이를 하나?》

한 돌격대원의 이죽거림이 관측을 하느라 허리를 꺾은 그들의 잔등으로 굴러내렸다.

꺾꺾거리는 속에 다른 대원이 큰소리로 받았다. 아빠는 물길고

엄마는 쌀씻는다네

...

순영은 쥐구멍에라도 숨어버리고싶은 심정이였다. 류속기의 줄을 무의식적으로 손에 감는 성춘의 바른손이 눈에 알리게 떨리고있었다.

하지만 성춘이 익살로만 받아들일수 없는 그 빈정거림을 속으로 갖히느라 모지름쓰는것을 만사에 랑만적이고 태평스런 그들이 알리 없었다.

이번엔 먼저 말을 건넨 대원이 코맹맹이할머니소리를 흉내내여 소리쳤다.

《예끼, 이너석. 그렇게 물장난할 시간이 있으면 건설장에가서 몰탈 한삽 뜨겠다.》

그만해야 울컥해진 성춘이 벌떡 허리를 솟구었다. 손에 들린 관측기가 놀라 사방에 물방울을 튕기며 흔들흔들 그네뼉을 했다.

《장난이라구?...》

당장 불꽃이 일것만 같은 매서운 눈길로 행길을 쏘아보았다.

차는 그 눈길에 쫓긴듯 벌써 꿈무늬에 먼지구름을 피워놓고 저만치로 달아나고있었다.

성춘이 펄펄해 당장 읍에 있는 기상관측소를 찾아 전화기의 수자판을 두드려댔다.

소장은 느글느글한 성미 그대로 성춘의 제기를 마감까지 너그럽게 들어주고나서 레의 그 늘어빠진 어조로 설교를 시작했다.

《음, 리해돼. 리해되지 않구... 헌데 말이야. 예보소를 지키는 일도 다 언제건설과 련관되어있다는걸 자네도 모르지야 않겠지?》

《압니다. 하지만...》

소장이 그의 말을 밀막아버렸다.

《알면 됐구먼. ... 물론 젊은 사람이 언제건설장에 가서 몰탈을 뜨면 눈에 뜨이게 일자리도 내겠으니 좋기야 하겠지. 헌데...》

이쪽에서는 쓴 입을 다시는데 듣는지 마는지 아랑곳없이 소장은 번마다 들어온 말을 되풀이했다.

《자넨 건설장에 보내구 누굴 거기에 넣겠나? 류속이 뭔지 말도 번지지 못하는 뼈꾸기같은 우리 로친을 거기 보낼가. 그랬다 만약... 자네도 알지 않나. 지금의 예보사업이 옛날의 기상관측하군 다르다는걸 말일세. 컴퓨터—컴퓨터가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 말에는 할 소리가 없었다. 무림천초소에 자원하기 전까지 관측소의 컴퓨터를 맡아 다룬 성춘이였다.

능글맞은 소장은 몇마디 말로 상대의 입에 빗장을 지르고 제멋대로 갈개는 몸에 오라를 지워놓았다.

성춘이 풀이 죽어 괜히 두덜거렸다.
《그만하십시오. 제가 아주 달아나겠다는것도 아는데. ... 그저 마감막이공사에 다문 며칠만이라도 참가하게 해달라는겁니다.》

소장은 노래의 후렴구 외듯 또 만약 소리를 했다.

성춘은 높낮이가 없어 기대소리처럼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단조롭고 늘어진 소리에 증이 났다. 도무지 이렇지 않는 소장이 야속하여 책상에 놓인 애꽃은 전화통만 노려보았다.

《제가 와서 4년동안 없은 일이 오늘, 래일이라구 해서 있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관측을 잘못해서 물이 좀 불기로서 치산치수가 잘된 무림천에 무슨 일이 나진 않을겁니다.》

《그걸 누가 알아. ... 그리구 뭐 관측이 오늘래일 멈추어놓았다가 돌려도 되는 기대일과 같은줄 아나. 형— 나갔다 들어와서 잘해보겠다?!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 일이야.》

소장은 성춘이 더 조르지 못하게 잘라 말했다.

《안되네! 허파에 바람이 들어 기웃거리지 말구 제일이나 착실히 하게. 예보소는 언제가 다될 때까지 철수하지 못할뿐더러 하루라도 관측을 중단하면 사고야 사고!》

공사가 다 되면 언제상류로 이동할 마음의 준비나 갖추라고 억속했다.

성춘은 약이 올랐다. 본의아니게 아무말이나 망탕 나갔다.

《난 건달군같은 이 노릇 더는 못해먹겠습니다.》

《뭘라구?》

소장의 짹 소리에 고막이 징징거렸다.

소장이 노발대발했다.

《그럼 우리모두가 다 건달군이란 말이야?》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으로 성실하게 한생을 살아온 소장이니 노여워할수밖에 없다.

성춘은 자기의 실언을 깨달았다. 결김에 뺄은 말이 소장뿐아니라 바로 자기가 이제껏 해온 일에 대한 부정으로 되었던것이다. 돌이켜보면 기상 관측사업이 중요한 일이기에 귀중한 청춘시절 몇해를 여기 한적한 무림천기슭에서 흘려보내고도 아쉬움을 몰랐던 그였다. 그만 송수화기를 내려놓고말았다. 맥없이 초소박으로 나섰다.

전화가 끊기자 소장이 다시 예보소를 찾았다.

《이게 어떻게 된거냐?》

순영이 사연을 이야기했다.

성이 똑같이 났던 소장이 한결 누그러졌다.

《음, 지나가던 싱검둥이들이 몇마디 수작질한걸가지구 그렇게까지 울퉁할거야 뭐 있냐. 어쨌든 네가 옆에서 잘 일깨워라.》

그러마고 대답은 했으나 순영은 잡도리가 여느때와 다른 성춘을 일깨우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껏 그런 놀림을 한두번만 받지 않은 그들이었고 그때마다 엇드레질을 해온 성춘이었지

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이 되어 제 할 일을 찾아 일손을 잡았었다. 그런데...

2

성춘은 낚시대를 등에 걸쳐놓고 풀밭에 벌렁 드러누워있었다. 풀대를 질근질근 씹는것을 봐선 자는것 같진 않은데 순영이 풀대를 차며 다가가는데도 눈을 지씨 감고있었다.

《뭘 생각하세요?》

대답이 없다.

처녀는 한들거리는 가는 대우에 털벌레같은 열매가 팬 긴 풀대를 꺾어 성춘의 볼우로 살살 굴렸다.

그만해야 간지럼을 못 참고 성춘이 버죽이 웃었다. 한쪽입귀만 들린 서글픈 웃음이었다.

《고기가 물리지 않나보지요?》

성춘이 눈도 뜨지 않고 대답했다.

《잡은걸 놓아주고말았소. ... 하는 일없이 빈둥거리는 내가 그 고길 먹을 자격이 있나 말이요? 그래서 발전소건설장예나 가보라구 놓아주었지.》

《아이참... 엉터리!》

처녀는 입을 가리고 소리없이 웃다 눈을 치뜨고 자기를 올려다보는 성춘의 눈길에 웃음을 거두었다. 말속에 숨은 뜻이 느껴졌기때문이었다.

《성춘동무, 너무 마음쓰지 마세요. 소장동지가 돌격대려단장에게 얘기를 해서 싱검둥이들을 혼내도록 하겠다 했으니...》

성춘이 벌벌 몸을 일으켰다.

《그치들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구. 그들은 죄다 옳게 말했소.》

멀리 채석장에서 파당, 팡 팡— 하는 발과소리가 둔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왔다. 거리가 퍼그나 먼데도 앓은 자리가 움쭉움쭉 떨었다. 주변에서 풀을 뜯던 염소들까지 대가리를 쳐들고 멀건 눈이 울롱해서 골짜기쪽을 바라보았다.

연해연방 터지는 소리를 유심히 듣고있던 성춘이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순영이, 내 아무래도 건설장에 가봐야겠소.》

《초소는 어떡하구요?》

《초소?... 이제껏 아무 일없었는데 장마철도 지난 이 가을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다구. 걱정마오.》

처녀는 어쩌면 그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다 흘러나올가하는 아연한 생각에 입만 벅긋이 하고서 한참이나 마주보았다.

우리 초소가 작긴 해도 결코 작게만 볼수 없다고 예보사업이 눈에 띄이지 않는 일이긴 해도 그 어느 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외워온 성춘이 아니었던가. 되려 순영이 철새처럼 날아가버릴가봐 은근히 원심을 써온 그였는데...

처녀의 얼굴에 떠오른 실망의 빛을 띄여본 성춘이 변명하듯 말했다.

《나도 늘 말해왔소. 우리 일이 중요하다는걸 말
이요. 그래서 예보초소에도 자원해왔고 내 힘으로
초소건물도 새로 일떠세웠소. 지금 기상예보사업
이 필요하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 이젠...》

성춘은 순영이 하고싶었던 말을 제가 먼저 자
동무기의 편발사격처럼 쭈욱 내리워었다.

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건설장, 수산어업... 하
늘이면 하늘, 땅이면 땅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가 없다.

《그뿐이요? 새 가정을 이룬 부부의 신혼여행,
야영생들의 등산길에도 필요하지. 나는 내가 여기
서 관측한 몇년간의 자료들도 아마 모름지기 어
디에든 도움이 되었을거라고 믿소. 하다못해 휴식
일어느 가정에서 조직한 들놀이계획이라도 말이
요. 하지만...》

성춘은 숨도 쉬지 않고 한참 내리워은 그 모든
걸 부정하는 뜻으로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흔적이 없소. 남들은 천을 짜고 기계를 만들고
땀흘려 언제를 쌓아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는데
말이요. 난...》

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허— 하는 짧은 탄식
이 흘러나왔다.

순영은 성춘의 가슴에 들어차 연기처럼 그물거
리는 공허가 거슬러 반발하듯 말했다.

《왜 흔적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모르게 더기의 예보초소며 그 주변에 펼
쳐진 작황좋은 누런 밭들을 둘러보았다.

《흔적이 있다?!...》

야릇한 어조로 반문한 성춘이 다시 벌렁 누워
버렸다. 멍청한 눈으로 솜덩이같이 크지 않은 하
얀 구름이 헤엄치듯 떠가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
았다. 버릇처럼 풀대를 쥐여당겨 자끈자끈 씹었
다.

팔짱을 끼고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은 그는 물
건너 노박덩굴이 어지럽게 엉킨 곳을 뚫어져라
보다 생각난듯 《흔적이라?》하고 다시 뇌였다.

《그래 흔적이 없는것도 아니지. 굳이 흔적이라
고 말한다면 말이요... 일지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관측자료를 흔적이라 할수 있지... 예보초
소? 그래 그것도 흔적이지. 헌데 그건 없어질것이
니 아마 몇년후면 사람들이 여기에 예보초소가
있었다는것도 기억하지 못할거요.》

성춘에겐 그 흔적이 한줄금의 비로 흩어져내릴
저 하늘의 구름같은거라고 생각되었다.

《왜 그렇게만 생각해요. 언제가 오늘처럼 일떠
선데는 우리의 숨은 노력도 깃들어있지 않나요?》

성춘이 눈을 거느죽이 하고서 입을 비쭉거렸
다.

《숨은 노력?... 그래 노력도 많이 했지. 새땅을
일구어 많은 농사를 짓고 염소, 토끼, 계사니를
기르고... 그걸 고스란히 건설장에 보냈지. 그 평
가가 뭐요. 흔들거릴새 있으면 몰탈한삽 뜨라는거
요. 그래서 내 건설장에 가서 몰탈을 뜨자는거

요.》

《그건 룡담이예요.》

《 룡담인줄은 나도 아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소릴 한두번만 들어온게 아니지만 다 귀등으로
흘러보냈소. 워낙 기상관측이란게 남의 눈에 뜨이
지않게 조용하고 힘내기가 아니여서 번번이 평가
를 받으며 일할수는 없지. 리해하오. 허지만 난
발전소건설이 진행된 몇년간에 한번은 꼭 우리
일이 중요하다는걸 실질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기
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소. 없었소. 당장 마감막
이를 하겠다는 이 가을까지 말이요. 현실적으로
우리 일의 중요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룡담
도 진실로 될거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아마 그 희떠운 친구들이 오
늘은 몰탈을 뜨라고 룡을 하지만 언제가 다된 래
일에 가선 전기를 쓸 자격이 없노라고 몰아떨거
요.》

성춘은 팔을 뻗쳐 낚시대를 당겨다 툭툭 고기
채는 시늉을 했다.

《내가 그지간 언제를 쌓았더라면 아마... 낚시
꾼이 매번 큰 고기가 물리기를 바라는건 어리석
은 욕심이지. 난 한번이면 되오. 그런데 나에겐
그 한번도 안 차례지누만. 나는 행운아가 못되나
보오.》

빈낚시가 성춘의 코앞에서 조롱하듯 흔들흔들
그네뻬을 했다.

순영은 낮선 사람을 보듯 서툰한 눈으로 성춘
을 보았다. 이제껏 성춘이 풀떡거릴 때면 혈기가
넘치는 시절이니 더러 《몸살》을 앓을수 있다고
생각해온 처녀였다. 그의 모태김을 두고 일면적으
로 자기를 바치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좋은 성품
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오늘 새삼스레 성춘의 인
간됨에서 느껴보는 불만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처녀에게는 자기가 이곳에 처음 배치돼오던 날
의 일이 떠올랐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군기상관측소에 배치받은
순영은 기상예보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소장의 지
루한 《강의》를 받았다. 학교에서 배워 이미 알
고도 남음이 있는, 그래서 맨날 먹는 남새볶음치
럼 별맛을 느낄수 없는 《강의》였으나 이곳 관측
소에 입직하는 사람이라면 내키는 내키지 않는
꼭 주의해들어야 되는것으로 짐작되어 가만히 듣
고있을수밖에 없었다. 누에 실뿔듯 한정없이 풀고
ړ고 한뒤에야 지루해하는 눈치를 짐작했는지
《자꾸 말해야 같고같은 소리니 길게 말하지 않겠
네.》해서 순영은 그만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웃
었다.

소장은 년초에 무림천예보초소에서 일하던 관
측원이 년로보장을 받다보니 지금 한사람이 불편
하게 관측을 한다며 마침 집도 그 근방에 있으니
순영이 거기서 일해달라고 했다.

방학때면 늘 예보초소에 나가 배우기도 하고

실습도 해온 처녀는 벌써부터 야릇한 흥분으로 이미 정든 그곳에 가서 초소장이 된 성춘이와 함께 일할 생각에 가슴이 들떠었다.

처녀는 혼자서 가겠다고 했으나 소장은 그림 인사불성이라며 그냥 붙들어두었다.

《좀 기다리라구. 예보초소에서 사람이 올거야. 아마 몇달을 혼자서 적적하게 일했으니 반가워할 거네.》

예보초소가 집에서 오리남짓하다니 출퇴근길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를 가늠해보던 소장이 목을 빼들고 창밖을 내다보며 《어, 왔어!》하고 반가운 소리를 했다.

관측소마당으로 자전거 한대가 굴러들어왔다. 크지 않은 마당을 한바퀴 휘뚜루 돌아 현관앞에 섰다.

미출한 골격에 근육이 단단해보이는 잠바차림의 청년이 성큼성큼 탄력있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성춘이었다.

소장이 창문을 열어젖히고 반갑게 소리쳤다.

《오느라 수고했네. ... 건 무슨 집인가?》

자전거에 처맨 커다란 배낭을 보고 하는 소리였다.

성춘이 대답대신 벌썬 웃었다.

잠간새 짧은 복도를 지나 사무실에 들어서서야 대답했다.

《다시 걸음할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창 집까지 쫓겨가지고 왔습니다.》

《집까지? ... 그럼 예보소일은 누가 하구?》

소장은 소장대로 놀라와하는데 성춘은 또 그대로 뻔뻔해했다.

《오래지 않아 예보초소가 필요없게 될거라구 소장아버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에 발전소건설장에 나가겠다고 제기한 문제가 승인될 줄 알았습니다.》

소장은 입을 찻 다셨다.

《앞으로 언젠가 선 다음의 일을 얘기했지 지금 예보소를 없앤다구 했나? 건설장소린 하지두 말게. 자넨 건설장에 필요한게 아니라 예보소에 필요한 사람이야.》

성춘이 무엇인가 말하려 하니 소장은 지레 손을 내흔들었다.

《뭐 두말할것 없네. 건설장일은 아무나 할수 있지만 예보소일은 누구도 대신 못해. 그러니 당장 도루 내려가라구. 그간 혼자서 수고 많았는데 이제부터 이 처녀가 자네와 함께 일하기루 됐네.》

맹랑한듯 말쑥처럼 박혀서 머리만 기웃거리는 성춘을 넘겨다보며 소장이 은근한 소리로 물었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나?》

《압니다.》

락심한 태도에 비해 대답은 펄 가벼웠다. 그만 예야 순영이쪽을 보는등만둥 《갑시다.》하고 통명스레 뻗고 저먼저 씩— 밖으로 나갔다.

그래도 성격이 좋아 관측소정문을 나설 때는 언제 찌뿌둥했던가싶었다.

《오늘 아침 예보소 풍향기우에서 까치가 야단스레 깍깍거려 별스럽다 했더니 동무가 오자고 그랬구만.》

굽높은 구두로 때각때각 포석을 울리며 바지런히 성춘을 따라서던 순영이 부지중놀래여 자전거를 멈춰세웠다.

자전거에 실은 배낭을 적시며 배어나온 물이 메마른 포석우에 점점이 떨어져 한가닥 선을 그어놓고있었다.

영문을 몰라 뛰여내린 성춘이 배낭을 살펴보고 나서 씩 웃었다.

《아침에 빨래를 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겠소. 제나름으로 생각하고 집을 공지다나니 빨래도 대충 짜서 넣었구만, 하하... 동무 마중인줄은 모르 고말이요.》

길녘의 나리덩굴뒤에 자전거를 비껴세우고 빨래를 다시 짜서 넣었다. 지나쳐가던 사람들이 자꾸만 흘끔거리려 들은 웃지 않을수 없었다.

성춘은 순영이 집에 들려가지 않느냐 물을 때는 길이 바쁜데 그냥 가자 하더니 운동장을 지날 때는 자기가 먼저 쉬자고 했다.

운동장에서는 이동훈련을 나온 중앙의 어느 체육단축구선수들이 한창 훈련을 하고있었다.

성춘은 품놓고 구경할셈으로 자전거까지 뺄쳐세우고 《야! —야!》했다. 구경에 흥미가 없어 무료한 눈으로 자기를 보는 순영에 대해서는 감감 잊은듯 했다.

이윽해서 기다리기에 지친 순영이 성춘의 기분을 거스릴가 조심히 일깨웠다.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내겠어요. 경기도 아닌 훈련을 무슨 볼밧이 있다고... 어서 가요.》

성춘이 훈련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대꾸했다.

《무슨 소릴, 구경하는 우리에게 훈련이지 저 선수들에게는 훈련도 실전과 갈단 말이요. ... 한때는 학교팀의 전도유망한 공격수였던 내가 왜 그걸 모르겠소. 일이 별나게 꼬여 종내 전문체육단에 못 가고 지금은 촌구석에서 기상관측을 하는 신체가 되긴 했지만.》

순영은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대포인지 대중할수 없는 성춘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할게 있다고 생각했다.

훈련장에서 튀어나온 공이 그들앞으로 날아왔다. 성춘이 입을 벙긋이 한채 그쪽으로 몇걸음 맞받아가더니 여유있게 공을 차질렀다. 그리고는 근질거리던 속이 한결 개운해 큰 일을 해제낀 사람처럼 두손을 툭툭 털었다.

《이젠 가볼가?》

여운이 컸던모양 읊거리를 벗어난 고개길에서 또 경기장쪽을 바라보았다. 문득 야릇한 눈길을 순영이쪽에 돌린 성춘이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내가 왜 컴퓨터를 마주한 읊거리의 화려한 일

터를 떠나 무림천초소에 갔는지 아오? ... 다 생각이 있어서지. 그러니 동무도 읍에 떨어지지 못했대구 너무 서운해하지 마오.》

성춘이 고개길을 내리다 골개수에 푸푸 세면을 하고나 맨손으로 얼굴을 닦아내며 말했다.

《저 선수들이 밥먹고 훈련만 하는것은 한번의 경기에서 세상을 깜짝 놀래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겠소? 그렇게 보면 우리 일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느 기회에 돌발적으로 닥친 폭우나 폭설의 피해를 막을수 있게 예보사업을 잘하면 그땐 우리도 금메달은 몰라도 꽃목걸이쯤은 목에 걸수 있지. 안그렇소?》 순영은 성춘의 말이 평가에 너무 신경을 쓰는것으로 서운하게 들렸지만 자기를 위안하는 소리라고 좋게 리해했다. ...

오늘에 와서 그때가 돌이켜지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3

이들후 성춘은 한무리의 염소를 휘몰아가지고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났다.

맨 앞장에서 우두머리격인 몸집 큰 수놈이 삐죽한 뺨을 데క్క거리며 무리를 이끌었다.

물론 성춘이 지원물자만 넘겨주고 곧 돌아선다고 했지만 순영은믿지 않았다. 구실이 없어 건설장에 못 가던 그였으니 며칠간은 건설장에서 로력지원을 할것이었다. 그걸 아는 소장이 성춘의 제기를 종내 허락해주지 않아 지원물자에 빙자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마감막이공사에라도 힘을 보래겠다 등이 달아 안절부절이던 성춘이 지원을 예견한 날자를 열흘이나 앞당겼다.

물론 그렇게 돌아와서는 지난 봄 첫물남새를 가져다주고 닻새나 늦게 돌아와서 둘러댄것처럼 《거참, 모두 힘들게 일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구만!》 할것이었다. 성춘은 정수리에 떨어져내릴 소장의 욕도 내 집 올라타 막으려 갔나 하는 배짱이었다.

순영은 괜한 소린줄 알면서도 그가 없는새 정황이 생기면 어찌나싫어 당부를 했다.

《지체말고 돌아오세요. 이삼일새 비도 올것같은데...》

물가에서 꺾어든 버들회초리를 휘두르며 《발전소건설장을 향하여 지원물자 앞으로!》 하고 너스레를 떨던 성춘이 건성으로 머리를 건뎡거렸다.

《관측을 해보고도 그러누만. 별일 없을거요.》한수더 떠서 《발전소지휘부에서 예보를 물어오면 파견원이 이미 건설장에 나갔다고 말해주오. 하긴 이제 올라가 만날테니 오늘부터 아예 찾지도 않을거요.》했다.

성춘이 천연스런 웃음을 남겨놓고 떠났으나 순영은 웃을수 없었다. 성춘에 대한 가질수 없는 서

운함때문에 염소떼와 어울려 사라진 골짜기에 눈길을 박은채 점도록 서있었다. 처녀는 자기가 관측을 위해 강가에 들어서있다는것도 잊고있었다.

이윽하여 관측을 끝내고 돌아온 처녀는 초소마당에서 차편에 보낼 지원물자를 꾸미기 시작했다.

올해도 초소주변 비경지에서 생산한 많은 강냉이며 콩, 줄당콩 같은 량곡을 건설장에 말끔히 보내주기로 했다. 물동을 나르는 발전소차편을 리용해야 했다. 어느 시간에 차편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했다. 얼굴에 송골송골 땀발이 돋쳤으나 칠념을 안했다.

문득 차경적소리가 울렸다.

일하는 정신에 강건너에 차가 와선것도 모르고 있었다.

차는 자기 존재를 관심해주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터뜨리듯 연방 경적을 울려댔다.

허리를 펴고 내려다보니 차에서 내린 청년돌격대원 한명이 다리의 널바닥을 탕탕 울리며 달려오고있었다. 차에서는 일여덟명 청년들이 적재함을 열어제끼고 만재한 화목을 부리기 시작했다.

별과 골바람에 익고 거칠어진 검붉은 얼굴에 몸이 우람해 중경기선수같은 청년이 어느새 계단을 뛰어올라왔다. 급하게 숨을 쉰쉴거리며 주변을 휘돌러보는것이 꼭 무슨 시비라도 가리러 온것 같았다.

《초소장동문 왜 보이지않소?》

《없어요.》

거칠게 보이는 청년의 행동에 놀라 조심히 웬일인가 물었다.

청년은 대거리로 해볼듯 한 인상과는 달리 이마를 가리운 총센 머리를 넘겨보려고 공연히 노력해보며 말을 갑잡랐다. 의외로 동정을 바라는 해석은 웃음이 얼굴에 떠올랐다.

《사과하러 왔소.》

《?!...》

《그래, 용서를 빌러 왔소. 전번날...》

순영은 청년이 며칠전 차를 타고 지나가며 걸쭉한 룡담으로 성춘의 기분을 잡쳐놓은 돌격대원임을 알았다.

청년이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오늘 아침 돌격대려단장이 아무날 자재운반에 동원된 동무들은 대렬앞으로 나서라고 했다. 대렬앞에 나선 대원들을 호되게 닦아세웠다.

...동무들의 로력으로만 언제가 일떠섰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그들이 언제건설현장에서 몰탈을 다지는 동무들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우리 건설지휘부는 매일매일의 일정계획을 예보소동무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작전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현장에 오지 못하는게 미안해 술한 난알과 염소를 비롯한 고기를 생산해 보내주고있다. 그런데 뭐 장난할새가 있으면 건설장에 와서 몰탈을 프라구... 가서 당장 용서를 빌라!

려단장은 누구라없이 한참 다블러대고나서 용서를 빈다는게 말로는 안된다며 침수지에서 베어낸 화목 한차를 싣고가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오게 된 그들이었다.

솔직한 청년돌격대원이었다.

《무식한 놈 아무 소리나 망탕 췌친걸 용서하오. 다신 그런 일이 없을거요. 그런데 초소장동문 어데 갔소?》

《건설장에 갔어요. 아침에 지원물자— 염소를 몰아가지고 갔어요.》

내려오면서 보지 못했다 하니 아마 지름길에 들었을 때 어긋난 모양이었다.

돌격대원들은 순영이 만류하는데도 그냥 예보 초소마당까지 나무를 날라들었다. 그러고도 준비해온 톱과 도끼로 썰고 채고 하여 한마당 가려놓았다. 려단장이 준 과업이라고 했다.

《려단장동지가 닦아세울 때 갈아선 당장 무슨 일이 나는가 했소. 처벌이 이만해도 약과요.》

관측시간이 되어 처녀와 함께 강가에 들어선 그들은 일손을 거들어주며 자못 놀라와했다.

《눈감고 점치듯 하는게 기상예보인줄 알았더니 우리같이 무식한 놈들은 눈을 부릅뜨구두 안되겠구만.》

《하하...》

《그래, 이런 일에 비하면 몰탈 다지는 일이야 두부에 꺾쇠박이지.》 그들의 감동은 떠나기에 앞서 지원물자를 싣으며 더 커졌다. 마당에 포장해서 쌓은 포대의 식량들이 모두 건설지원물자라니 입을 딱 벌렸다.

《우리가 이제껏 받은 수많은 지원물자속에 초소에서 보낸것도 있다는걸 모르고있었구만!》

《내 이제 초소장동무를 만나거든 정신이 번쩍 들게 코등이든 머리통이든 한대 단단히 맥여달라구 하겠소.》

《하하... 코등을 쥐여박히구 가만있을가?》

《왜 그래. 내가 잘못된 일이니 코등이 아니라 이마뺨을 깨두할말이 없지.》

돌격대원들은 발전소조업식날 잊지 않고 알릴테니 꼭 와달라며 헤어지는것을 무척 아쉬워했다.

다음날 발전소건설지휘부에서 려단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지원물자를 보내준데 대해 청년돌격대의 이름으로 거듭 감사를 표하고나서 물었다.

《비가 온다는 중앙기상예보와 군기상관측통보도 받았소. 어제 지원물자를 가지고온 초소장동문 가을비를 놓고 근심할게 없다고 장담하는데 어떻게? 다시 확인하고싶구만.》

언제통과구간 마감막이를 위해 지금 휘틀을 설치하기때문에 강우량예견이 특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 예보소의 관측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는 보통정도의 비가 내린다는 중앙예보를 참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협곡을 막은 산줄기가 높아서 무림천상류의 강우량이 드문히 예보보다 높은 때가 있다는걸 참고해주세요.》

순영은 차후 관측에서 변동이 있으면 제때제때 알려줬노라 했다.

려단장은 예보초소가 중요하다며 다시한번 《우리못난 친구들을 대신해서 내가 용서를 비오.》해서 순영을 웅색하게 했다.

처녀는 《우리 친구들이 나라에서 사람이 남아돌아가서 거기에 두사람을 배치한줄 아나 보오.》하는 려단장의 소리에 기상예보사업의 중요성을 제삼새겨보았다.

건설장에서 오지 않는 성춘의 처사가 불만스러웠다. 그것이 단순한 로력지원만이 아니었기때문이었다. 남의 밭에서 무엇을 바라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고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동정과 련민으로 마음이 괴로웠다.

4

밤부터 선기를 머금은 가을비가 치적치적 내렸다.

성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래도 판장을 보면서 자기 본분은 영 잊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다소 었힌 속이 풀렸던 순영은 전화내용에 그만 실망했다. 일할 맛이 있다며 오늘은 휘틀조립작업을 했는데 돌격대원들이 자기의 일숨씨를 보고 재간둥이라고 혀를 찼다는 자랑만 늘어놓았던 것이다.

순영은 돌격대원들이 왔다간 이야기를 해주며 성춘이 자기를 돌이켜보기를 은근히 바랐다.

동문서답이었다.

《나도 만났소. 우리 일이 중요하다는걸 알았노라구 하긴 하더구만. 그래두 그 친구 내 일숨씨를 보고 뭐했는지 아오? 직업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데서 일했으면 앞으로 틀림없는 영웅감이라는거요. 그래두 언제가 언제지...》

처녀는 입술을 자끈자끈 깨물었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들리는 성춘의 말을 듣지 않으려 애썼다. 전화기를 든 손이 매시시해져 그만 맥없이 축 처졌다.

순영은 성춘이가 한 말이 이제껏 그자신이 꾸려온 생활에대한 부정이라고 따끔히 말해주고싶었다.

전화기에서는 들뜬 성춘의 소리가 귀만 웅얼거림처럼 가늘게 들려오고있었다.

《내 이제 돌아가서 봉창을 할테니 그간 수고를 해주오. 헌데 그리 걱정할건 없소. 내리는 흥내나 내다마는 가을비를 놓고 공연한 걱정이요. 꼭 쉬라니까.》

《일을 봉창한다구요? ... 우리 초소야 오늘 못한 일을 래일 벌충하는 식으로 해도 되는 곳이 아니지 않아요?》

동무도 늘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고 꼬집으려다 그만두었다. 몇마디 말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수 없다는 생각이였다.

《...아마 동문 초소일을 예전처럼 하지 못할거예요.》

처녀는 밤에 전지를 켜들고 관측을 진행했다. 가을비는 비발이 가늘어 내리는지 마는지 했으나 먼길가는 나그네의 걸음처럼 한본새로 꾸준했다. 내리는 정도를 봐선 별일없을것 같았으나 마음을 놓을수는 없었다. 류속의 변화로 보아 상류에서는 비량이 더 많음을 알수 있었다.

걱정이 커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언제건설에 대해 다 알수는 없었지만 마감막이공사준비를 한다면 특별히 예보가 필요하다고 한 려단장의 말이 자꾸만 귀에 살아났기때문이었다.

새벽에 다시한번 관측을 진행하고 공연한 걱정이 아니였음을 알았다. 레년에 없는 강우량이였다. 예견한 반나절을 비가 더 오면 발전소건설지휘부에서 타산한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될것이었다. 군에 보고를 했다. 군기상관측소에서는 건설지휘부와 전화연계가 되지 않는다며 걱정했다. 순영이 행어나 하여 건설장을 찾아보았으나 달리될수 없었다. 기본나쁜 잡음이 한본새로 찌죽거리는것으로 보아 간밤 비에 전화선이 잘못된듯 했다.

어떻게든 건설지휘부에 정황을 알려야 했다.

초조감이 불안으로 바뀌였다. 어둠이 무서워 측수무책으로 앉아 처녀라고 자기를 위안할수가 없었다.

등이 단 소장이 전화로 순영을 찾았다. 처녀에게 비내리는 산길을 혼자 가라는 소리는 못하고 없는 성춘을 두고 소용에 닿지 않는 욕을 퍼부었다.

듣다못해 딱해난 순영이 제가 가서 기상예보정황을 알려졌노라 끝이 날상싶지 않은 욕을 밀박았다.

처녀는 창가에 다가서 앞뒤산에 포로되어 꾸물거리는 짙은 어둠과 우중충한 안개가 엉켜 굴속같은 박을 내다보았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락수소리가 긴장과 불안이 서려도는 가슴에 그대로 날아와 박히는듯 하였다.

서둘러 박을 나서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발타는 역한 냄새에 황황히 달려들어갔다. 아궁에서 활활 타는 장작을 걷어내어 마당에 내동댕이치며 언뜻 아침끼니생각을 했다. 몇술 뜨고싶었으나 그렇게 꾸물거리는새 일이 날것만 같은 조바심에 종시 그대로 나서고말았다.

쫓기듯 종종걸음을 놓았다. 가는 비발에 어느새 옷이 스르시 젖어들기 시작했다. 공포와 함께 어릴적 옛말에서 들은 밤도깨비가 어데선가 금시 달려나올것만 같았다. 무섬증을 잊으려고 가만가만 노래를 불렀다. 입밖에 소리가 나오면 누가 들을가 입속으로만 웅얼거렸다. 이제껏 초소가 너무

산골막바지에 외롭게 섰다고 서운해했던 처녀는 처음으로 예보초소가 더 깊은 발전소건설현장 가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당치 않은 생각을 했다.

물이 불어 한층 소란스러운 물소리가 어둠에 잠긴 계곡을 흔들었다.

순영은 어둠이 걷히고 재빛운무에 잠긴 계곡이 희벗해질무렵 건설장가까이에서 통신선로를 검열하며 내려오는 동무들을 만났다.

그들은 시급히 통신을 살리라는 과업을 받고 떠났으며 자기들때문에 처녀가 고생한다고 무척 미안해했다.

순영은 건설현장에 도착하여서야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무인지경 어둠속에 주저없이 나선 자기의 용단이 놀라운것이었다고 생각하였다. 기다린듯 자기를 둘러싸고 기빠 어쩔줄 모르는 일군들을 보며 자기가 서둘러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밤새 기상관측자료를 받지 못해 초조해하던 려단장은 처녀가 나타난게 반가와 아이들처럼 벅글거렸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순영이 웅색해 어쩔바를 모르는데 려단장은 흥분을 누르지 못해 방안을 오락가락하며 말했다.

《아니요, 동문 자기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다 모르고있소!》

물에 빠진 날짐승같이 휘주근해 서있는 처녀를 정겹게 바라보았다.

《여기 있는 초소장동무가 강이 더 불지 않는다고 장담해서 우린 휘틀설치작업을 그대로 내밀고있소. 가물막이를 보장하려니구름이 어떻소 가을비가 어떻소 포목장수 자대넌기듯 척척 둘러대며 괜한 로력랑비라는거요. 통신이 안되니 어쩔수없이 그 소리를 듣게 되더구만.》

려단장이 두툼한 입술을 인상적으로 삐죽 내밀었다.

《허풍쟁이같은 초소장의 말을 믿었다 아까운 자재를 다 물에 실어보낼번 했구만... 자, 동무들, 잘못된 작전을 바로 잡아야지. 시간이 없으니 현장에서 직접 전투조직을 합시다. 앞으로! 가만, 림동문 처녀동무에게 식사를 시키시오.》

언제건설현장이 한눈에 안겨오는 취수구도로에 현장방송차를 끌어다 세웠다.

려단장이 직접 마이크를 쥐고 휘틀조립작업에 인입된 중대들을 모두 가물막이보강에 인입하는 전투명령을 내렸다.

잠간 무질서하게 널린 휘틀조립장의 전투원들이 가물막이작업장쪽으로 이동했다. 채석장쪽에서도 인원이 보충되어 달려왔다.

순영은 자기가 현장에 나와야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것을 알면서도 한가스레 식당에 앉아있을수 없어 고집쓰고 현장에 나왔다. 거창한 건설장현장을 환희에 넘쳐 바라보았다.

《자, 우리도 전투장에 내려갑시다.》

려단장이 앞선 뒤를 따라 바삐 가물막이쪽으로 가는데 한 청년이 뛰어왔다.

순영은 성춘의 진곤색잡바를 멀리서부터 알아 보았다. 김매기를 하거나 염소젖짜기를 할 때면 늘 입근 하는 색깔은 작업복이었다.

《려단장동지,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그까짓 늙은이 덕수염아래서 그어간다는 가을비를 놓고 아까운 로력을 가물막이보강에 돌리면...》

성춘이 대들듯 숨을 쉰다.

《허—초소장동무, 이럴 땐 누구 말을 들어야 할가?》

사람 좋게 웃으며 려단장이 물었다.

《동무네 초소에서 관측자료를 가져와서 우린 전투조직을 다시 했구만.》

이러며 뒤편에 선 순영을 돌아보았다.

《초소장동무 여기서 소경 팔김매듯 주먹치기루 일기를 가늠했지만 저 처녀동문 정확한 관측자료를 가지고 달려왔소. 그러니 누구 말을 믿어야겠소?》

그때에야 성춘은 뒤편에 선 순영을 알아보았다. 그는 괜히 물에 흠뻑 젖은 모자를 벗어 얼굴을 뻗 문질렀다. 처녀결에 다가서며 확신성없이 혼자 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난 별일 없을거라고 보았는데...》

처녀는 주눅이 든 성춘을 보기가 딱했으나 진실을 숨길수는 없었다.

《이대로 몇시간후면 물량이 갑자기 불어나 지금의 가물막이를 밀어버릴거예요. 두고보세요!》

라관할수 없는 정황을 자랑처럼 떠들수 없어 성춘이만 듣게 가만히 말했다.

《이놈의 가을비가 뭐 잘못된것 같구만.》

성춘은 아직도 무엇이 미덥지 않은듯 머리를 긁적거리며 두덜거렸다.

하지만 일은 성춘이 바라는대로 되지 않았다.

오히려 순영이 예견한 《몇시간》이 너무도 빨리 닥쳐와 사람들을 아연하게 했다.

가물막이보강을 시작하여 한시간 되나마나해서였다.

《홍수다!》

누군가 다급히 소리질렀다.

모두들 강웃쪽을 바라보고 경악했다. 삽시에 닥쳐든 정황에 놀라 경황없이 질러대는 자지러진 소리가 터져올랐다.

누런 탕수가 물머리를 잔뜩 쳐들고 어마어마한 기세로 밀려오고있었다. 꼭 보이지 않는 불도젤의 거대한 삽날이 물을 떠안고오는것 같았다. 잠간새 가물막이에 이른 물기둥이 거대한 힘으로 똑을 짓쫓고나서 허연 물보라로 휘솟았다. 물보라의 어지러운 란무가 물려선 사람들의 머리에 쏟아져내렸다. 또 한번 놀란 사람들의 산발적인 비명소리가 터져올랐다. 거기에 사나운 흐름에 떠밀려 물속에서 바위가 굴러내리면서 내는 웅글고 요란한 소리가 가슴을 섬찍하게 했다.

《가물막이가 위험하다!》

려단장이 모래가마니를 둘러메고 달리며 소리쳤다. 그뒤를 따라 돌이던 돌, 모래가마니면 모래가마니, 닥치는대로 안고지고 한 돌격대원들이 와!— 소리치며 쫓았다. 폭발적인 힘으로 가물막이에 이른 한때의 무리가 그대로 성을 쌓았다.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탕수가 가물막이뚝을 부시고 때리며 아래로 지쳐내렸다.

돌격대원들이 소리소리 지르며 맹렬히 달려가고 달려오고 하였다. 그렇게 한시간가까이 기를 쓰고 물과의 싸움을 하였다.

드디어 가물막이가 보강되었다. 비와 땀에 흠뻑 젖고 흙에 매닥질된 대원들이 질척한 땅에 그대로 퍼터버리고 앉아 모두숨을 내그었다. 조금만 지체했더라면 어떤 무서운 사고가 있을지도 몰랐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보강된 가물막이우에서 무섭게 쓸어내리는 급류를 내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순영의 바로 앞에 머리를 푹 떨구고 앉은 성춘이 보였다. 아마도 다른 누구보다 생각이 많을것이었다.

성춘이 앉은데로 한 대원이 지척지척 다가왔다. 순영에게 용서를 빌러 왔던 청년이었다.

《초소장동무, 동무네 예보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걸 내 오늘 절감했소. ... 나때문에 동무가 초소를 두고 여기 왔지.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났구...》

머리를 푹 떨구고 앉았던 성춘이 이윽해서 머리를 들었다. 자기앞에 선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니요. 동무때문이 아니요. ... 내가 어리석게 생각한때문이요.》

우쭐 몸을 일으켜세운 성춘이 몇걸음 걷다 자기를 보는 려단장의 눈길에 부딪쳐 무릎 멈춰섰다.

《어델 가오?》

《우리 초소가 비엿습니다.》

의기소침해진 성춘이 어깨가 처져 나직이 대답했다.

《벌써 그랬어야지. 동무네 자기 초소를 지키는일이 곧 큰일이라는걸 잊지 마오.》

려단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벌써 몇번 초소에 가라고 하는걸 이구실저구실 둘러대며 건설장에 박혀있는 성춘이었다.

성춘은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한참 그렇게 걷다 가물막이쪽을 돌아보았다. 그만에야 무엇에 떠밀린듯 초소를 향해 걸음발을 빨리했다.

처녀도 의미있게 자기를 보는 려단장에게 살포이 눈인사를 하고는 총총히 그뒤를 따랐다. ...

열시

안명국

대동강의 가지흐름인 비류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느라면 삭창리라는 크지 않은 마을이 나진다.

어릴적에 나는 외가집이 있는 그곳에서 자랐다.

돌기와를 엮은 집에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나 이렇게 세식구가 살았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적적해할가봐 어머니가 나를 그리로 보냈던 것이다.

깎아지른듯 한 벼랑을 감돌아 비류강이 흘러내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봄이면 벼랑가마다에 진달래가 만발하여 맑은 물결우에 어우러져 비끼고 여름이면 밤꽃향기 그윽히 차넘치는 동네.

가을이 오면 유명한 성천약밤을 주머니가 불쑥하게 넣고 내 나이또래 조무래기들과 숨박꼭질을 하던 잊지 못할 산천이다.

전쟁참가자이며 영예군인인 외할아버지는 저녁이면 나를 이끌고 강가로 나가곤 했다. 허약한 내 몸을 추세워준다면 낚시대를 들고서...

외할아버지는 성급하게 낚시를 무는 물고기들을 연방 따내며 《꼭지》요, 《누치》요 하는 생소한 물고기들의 이름을 부르곤 했다. 그렇게 낚시질을 하며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도래굽이를 돌아서게 되면 외할아버지는 낚시대를 드리운채 명상에 잠기곤 했다. 낚시를 문 고기가 푸들쩍 뛰어도 모든것을 잊은듯...

그러다가는 나에게 말씀하시곤 했다.

《명국아, 저오동나무숲속에서 우리 집과 가까이 지내던 리인민위원회 위원장 박운향이랑 리자위대장을 하던 차문하랑 술한 애국자들이 무참히 희생되었다. 저기 채등너머 샘골에도 렬사들의 피가 스며여있지.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매일 이다실이 강가로 나온 외할아버지는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우에 피빛노을이 물들 때까지 그렇게 있곤 하였다. 아마도 먼저 간 혼들을 추억하는양 낚시질도 잊고 망연히 산천을 바라보면서...

오래동안 내가 지루해할 정도로 그렇게 있다가는 낚시대를 거두고 물고기떼미를 들고 강변으로 나오곤 했다. 그리고는 강기슭이며 등판에 다투어 피어난 들꽃들로 다발을 엮어가치고 전후에 마을 사람들이 세웠다는 애국렬사묘로 가곤 했다.

거기에 새겨진 렬사들의 이름은 무려 백여명이 나 되었다.

마을에 황혼이 사라지고 어둠이 깃들 때까지

외할아버지는 비돌앞에 앉아 혼자소리로 이제는 령혼이 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일곤 하였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외할아버지는 어린 손주에게 전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놈들이 저지른 만행과 희생된 애국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들려주곤 했다.

그후 외할아버지는 전쟁시기의 부상자리가 도져 인차 세상을 떠나고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어언 3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

벼랑상모씨뿌리기가 한창인 협동벌에 대한 현실체험을 떠날 차비를 하던 나는 다급히 울리는 전화종소리에 송수화기를 들었다.

웅글은 목소리가 송수화기를 타고 울려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작가선생이지요. 제 성천군 삭창리당비서입니다.》

나는 삭창리라는 말에 불쑥 어릴적 추억을 되살리며 어떻게 전화를 하는가고 각근히 물었다.

《우리 삭창리 샘물집손주가 옳지 않습니까?》

나는 불쑥 찾아드는 마음속 긴장감을 느끼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리당비서는 지금 삭창리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계급적원수들에 의해서 무참히 희생된 애국렬사들의 유해를 새로 발굴해내고있는데 마을사람들이 나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일정을 바꾸어 서둘러 그리로 떠났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강바람이 불어 날은 쌀쌀했다. 화강암들이 비죽비죽 솟아있는 밤나무골에 몸매 체소한 사람이나 겨우 드나들수 있는 수직자연동굴속에서 애국렬사들의 유해발굴사업이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내가 80여구에 달하는 렬사들의 유해를 돌아보고있는데 젊은 리당비서가 내곁에 다가왔다.

《작가선생, 방금 애국렬사들의 유물들을 찾아냈습니다.》

나는 서둘러 수직굴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안경을 추슬렀다.

고삭아버린 고무신짝들과 엽전, 녀성들의 머리에 꽂는 비녀들을 비롯한 치레거리들과 로인들이 구수한 성천초를 꺾꺾 눌러담아 피웠을 담배대통들 그리고 아이들의 책보에 싸여있었을 유리펜대와 반지들...

나는 그속에서 쇠죽이 올라 투실투실하게 된것을 집어들었다.

고리가 달린 대문열쇠였다.

그순간 나의 가슴속에서는 쿵—하고 둔중하게 치는 울림이 있었다.

열쇠!

이는 그가 이 땅과 집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물이다. 열쇠를 손에 쥐었을 때 그는 분명한 모든것의 주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서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존엄을 지켜낼수 없었고 이렇게 희생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와 계급적원썹들은 이 크지 않은 삭창리에서만도 당원들과 애국자들, 그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주민들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방법으로 집단학살하였다.

놈들은 야수적인 고문으로 다리뼈, 허리뼈가 다 부서진 리농민동맹일군(당시)을 비롯한 많은 당원들과 애국자들을 방공호에 처넣은 다음 총탄을 퍼붓고 수류탄을 던져 학살하였다. 15살가량 되는 소년들에게는 《이놈새끼들이 이제 크면 우리를 복수한다. 그러니 다시는 살아남지 못하게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지껄이며 커다란 돌로 그들의 머리를 내리쳐 죽이고 늙은이, 부녀자,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총탄을 퍼붓고 총창으로 찢러막 죽이었다. 그리고는 쓰러진 사람들을 한명한명 끌어다가 자연수직굴에 거꾸로 처넣었다.

근 6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력사의 증거물로 남아있는 녹이 오른 열쇠!

원썹들에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리까지 매여 가슴에 깊이 간수했건만

집집의 대문들은 부서지고 그 주인들은 피살되었다.

바로 그 열쇠가 계급적원썹들의 만행을 고발하며 웨치고있었다.

비록 열쇠를 가졌다해도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조그마한 환상이라도 가지고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지 못하면 그는 벌써 주인의 가치를 상실하고 비참한 희생을 당해야 한다는것을...

력사에는 잊어야 할것보다 잊지 말아야 할것이 더 많다. 삭창리의 피의 교훈이 전하는 열쇠처럼...

그렇다!

우리 시대,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맞서싸우고있는 오늘의 선군시대에 자기를 지키고 혁명과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열쇠는 총이다.

자연은 제나름대로 아름다울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이 배인 진정한 아름다움은 총대만이 가꾸어줄수 있고 담보해줄수 있는것이다.

삭창리에서 새로 발굴된 애국렬사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력사에 변할줄 모르는 교훈을 이름대신 새겨주고있다.

총, 총만이 내 집, 내 고향, 내 나라의 주인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유일무이한 열쇠라는 피의 교훈을...

나는 렬사들의 유해에서 올려나오는 피의 교훈을 저 비류강절벽에 새겨넣자고 말하고싶었다.

총, 총은 인간의 행복과 번영과 승리의 영원한 열쇠이라고...

-평안남도 성천군 삭창리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전광원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불굴의 항일혁명투사
마동희동지여

등근테 안경속에서
나를 보는 눈빛은 근엄한데
한번만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를

그앞에 엄숙히 서서
마음은 원썹의 총구앞에도 서뵙니다
시뻔건 불판우에도 올라서뵙니다

하니 이 심장엔 들립니다

투사의 그 신념 그 의지의 숨결이
허를 꿰어도 하는 심장의 말을

말로 하지 않는
수령결사옹위
심장으로 지키는
전사의 의리

오, 당신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 투사는 세월을 넘어
시련을 이기고 영생하는 심장으로
오늘도 래일도 진리로 깨우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취녀의 사진

양 건

전선중부의 외진 골짜기에 자리잡은 련대군의 소를 취재하러 찾아갔던 나는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되었다. 경찰소대의 박세진이라는 병사가 경찰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중 포위속에 들었던 조원들을 구원하기 위해 적들을 유인하여 련대의 작전을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가 지금 심한 부상을 입고 군의소에 누워있다는 것이었다. 특보감이 저절로 나를 찾아온셈이었다.

《그 사람 거 보통이 아니더군. 다리와 어깨에 심한 관통상을 입었는데 신음소리 한마디 없어서 처음엔 죽은줄 알았다니까요. 허 참!》

구급처치를 담당했던 늑수그레한 군의는 수염 자욱이 시퍼런 주걱턱을 쓸면서 못내 감탄을 금치 못해했다.

《의식은 차렸는가요?》

나는 어지간히 성급하게물었다.

《왜, 취재하러구요? 아직은 안됩니다. 원체 의식은 잃지 않고있었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동통이 심해서 말을 주고받을 형편이 못됩니다. 수혈후 진정제를 놓아 잠을 재웠습니다.》

얼핏 팔목시계를 내려다본 나는 지그시 아래입술을 깨물었다. 하루 늦어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꼭 그를 만나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던것이다.

《아 참, 지금 함께 온 그의 분대장이 침대머리에 노상 지켜앉아있답니다. 그를 만나면 아마...》

《아바이도 참, 그말을 왜 인제야 합니까?》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군의실문을 성급히 나섰다.

《원, 그렇게 급해서야...》

등뒤에서 군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

얼굴은 가름하나 뺨쪽에 밤알을 문것처럼 두볼이 볼록한 간호원처녀가 사정하며 말렸으나 나는 처치실문을 소리 안나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환자를 그어안을듯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있던 중사가 허우대 큰 몸집을 벌떡 일으키며 거수경례를 했다.

《소좌동지!...》

나는 얼른 지시손가락을 곧추 세워 입술에 가져다댔다. 그도 열적게 웃으며 손을 내리우더니 소곤거리듯 말했다.

《경찰소대 분대장 선우명석입니다.》

《거 이름에서 학자냄새가 풍기누만. 내 종군기자 최대천이요.》

《그렇습니까? 소좌동지의 이름을 전선신문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씨름군처럼 든든한 체격에 짙은 눈썹과 그에 비해 가는 눈을 가진 선우명석을 건네다보며 싱그레 웃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눌러짊으며 함께 붙어앉았다.

《이보게, 선우명석동무! 지금 환자상태가 어떤가?》

《기적입니다. 그렇게 험상한 부상을 입고도 살았다는게... 성격이 여자처럼 조용한 사람인데... 싸움터에선 호랑이처럼 용감하지요.》

동문서답격이다. 하지만 자기 대원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철철 넘치는 말이어서 마음에 들었다.

《저 동무의 이름이 박세진이라고 했지?》

《예!》

《우리 신문에 낼가?》

《야,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우명석은 나의 손을 덥석 잡아 흔들었다. 손아귀가 어찌나 센지 집게한테 집힌것처럼 아파났다.

《분대장이니까 저 세진동무에 대해 잘 알겠구만.》

《알다뿐이겠습니까? 제 필요한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 우리 저 세진동무가 꼭 자게 놔두고 밖에 좀 나가자구.》

우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석은 나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봉대를 감고 죽은듯이 누워있는 세진의 얼굴을 한참이나 지켜보았다. 나도 그를 눈여겨보았다.

녀자의것처럼 얹으면서도 선이 또렷한 입술, 알릴듯말듯 날개가 오르내리는 곱살한 마늘코... 사나이다운데가 있다면 눈두덩이 불쑥 올라와 짙은 눈썹이 성난 모양 뻗뻗 일어선것처럼 보이는것뿐이었다.

방에서 나온 명석은 마주오는 간호원에게 세진의 곁에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고나서 빠른 걸음으로 나를 따라나왔다.

이 근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름답디오동나무 밑에 이른 나는 땅에다 엉치를 붙이고 아예 울방자를 틀며 명석이와 마주앉았다.

내가 취재수첩을 펴들기도 전에 명석은 입을 열었다.

《저 친구 우리한테 처음 왔을 땐 대단한 겁쟁이었습니다.》

《뭘... 겁쟁이? 거 잘 믿어지지 않는 얘기다.》

나는 시물거리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명석은 호박잎처럼 넓고 살이 찐 오동나무잎사귀들을 올려다보며 자기로서도 믿어지지 않는듯 설레설레 머리를 가로저었다.

《사실입니다. 저 친구가 겁을 먹는 통에 우리분대는 습격전투훈련관정에서 락제국을 먹었던적도 있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고 쓰거운듯 입맛을 다시고난 명석은 그때의 사실을 세세히 들려주었다.

조금도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는 재미있고 심각한 이야기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요약하며 부지런히 적어나갔다.

...어느날 명석이네 정찰분대는 적포진지습격전투훈련관정을 받게 되었다. 이 관정결과에 따라 다음에 예견되는 정찰과 습격이 배합된 전투임무를 자기네가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대에 넘겨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게 된다는것을 명석은 직감하고있었다.

출발전에 명석은 분대원들 한사람한사람의 준비정도를 따져보았는데 제일 미타한것이 신입병사 박세진이었다.

송덕군에서 온 한고향내기여서 무작정 정을 주고 믿고있었는데 정작 훈련관정을 앞에 두고보니 어느때와는 심정이 달랐다. (세진이가 과연 그 어려운 고비들을 극복하고 제몫을 다 해낼수 있을까?... 동작이 날래고 용감한것 같기는 한데... 생긴것도 처녀같고 말도 없고...)

이러루한 생각에 잠겨 머리를 기웃거리며 적당한 핑계를 대고 떼어놓을가 하고 궁리하던 명석은 저절로 자기가 졸렬하고 편협하게 여겨져서 피씩 웃으며 얼굴을 붉혔다.

(민자, 그는 꼭 해낼것이다!)

드디어 분대는 적포진지습격전투훈련관정에 진입하였다. 명석은 가상적인 포진지가 있는 등판을 향하여 분대를 이끌고 은밀히 접근하기 시작했다.

소리없는 각개 포복진진으로 최대의 은밀성을 보장하느라 명석은 신경을 바늘끝처럼 곤두세웠다. 등판에는 풀들이 무성했다. 9월이어서 새벽이슬이 잔뜩 내린탓에 풀들은 흠뻑 젖어있었다.

어느새 대원들의 웃은 온통 물주머니가 되어버렸다.

《적》포진지에 거의 접근했을 때 분대앞에는 퍼

그나 넓은 산골개울을 가로지른 외나무다리가 나타났다.

랑쪽 벼랑에 의지한 외나무다리는 보기만 해도 아찔할 정도로 높았는데 그밑으로는 개울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뭇쳐흐르고있었다.

엿그제 내린 비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있었고 다리로 가로질리운 껌질벗긴 통나무는 미끄럽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건너야만 습격에 진입할수있었다.

《한사람씩 날 따라 외나무다리를 건널것!》

명석은 낮으나 맵싸게 명령하며 나는듯이 앞장서서 다리를 건너가 뚝뚝뚝 뿔을 내민 너럭바위 밑에 엎드리었다.

이따금 탐조등빛이 외나무다리주변을 훑곤 했다.

분대원들은 소리없이 바람처럼 날아넘어와 명석의 옆에 차례로 엎드리었다. 다 건너왔는가를 확인하려고 명석은 《번호!》하고 구령을 쳤다.

《하나!》

《둘!》

...

《여섯!》

...

웅당 울려야 할 《일곱!》 소리가 나지 않았다.

《다시!》

명석이 두번씩이나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일곱》은 잠잠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고개를 돌려 다리쪽을 바라보던 명석은 그만 기가 막히고 오금이 저려들어 입을 딱 벌린채 다물지 못하였다.

다리를 건느다가 자신이 없었던지 세진은 통나무를 부둥켜안듯 주저앉아 엉기적엉기적 앉은뱅이 걸음을 치다가는 그것마저 무서운 모양 아래를 내려다보며 어쩔줄 몰라하고있었다.

《헛, 참!》

나의 입에서는 황소숨소리같은 한탄이 튀어나왔다.

1분, 2분... 5분...

시계를 보니 《적》포진지공격에 진입해야 할 시간이 다되었다.

어느새 《적》의 조명등은 다리우에서 엉기적거리는 박세진을 포착한채 움직이지 않았고 그와 분대를 향해 《맹사격》을 가하고있었다.

《제길!》

명석은 리성을 잃고 벌떡 일어나 세진을 향해 목이 터지게 고아댔다.

《여, 동무도 경찰병이야?... 굼벵이같은것...》

강평원이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웃으며 명석의 어깨를 툭 쳤다.

《분대장, 그만하지. 목터지겠네.》

명석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오른손을 뻗 내리그었다.

《습격전투》는 분대의 여지없는 실패로 끝나버

리고말았다. ...

선우명석은 여기에서 잠시 말을 끊더니 매우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저, 기사동지! 담배 한대 피워도 일없겠습니까?》

나는 어서 그러라고 펜을 놀리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듯이 그에게 말했다.

《내 이름을 대주지 않았나, 최대천이라고... 이름을 부르라구. 그래야 가까워지거든.》

나도 그와 함께 담배를 붙여물고 맛나게 연기를 들이키었다.

《그런데 그렇게 겁이 많던 굼벵이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병사가 됐나?》

나는 자못 궁금하여 명석을 바라보았다.

명석은 길게 담배연기를 내뿜더니 자못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날 훈련총화때 아예 혼살이 나게 조겨대고 싶은걸 꼭 참고 따로 만나 조용히 물었지요. 사실 그야 신대원이 아닙니까. 내가 어쩌면 사내가 외나무다리 하나 건느지 못해 쪼쪼매여 분대를 망신시켰는가고 웃으며 묻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눈물이 그렇게서 나를 바라보는것이었습니다.》

〈분대장동지, 사실 난 어릴 때 다람쥐를 쫓아 그런 외나무다리를 건느다가 깊은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날 아예 죽은것으로알고 통곡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외나무다리만 만나면 나도 모르게 겁이 나서... 분대장동지, 내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고야말겠습니다.〉 울먹이며 하는 그의 솔직한 대답이 왜 그런지 나를 무척 감동시키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남들은 다 깊은 잠에 들었는데 세진동무만은 탄피등밑에 쭈그리고 앉아 무슨 사진인가를 꺼내들고 오래도록 들여다보고있었습니다. 나는 슬며시 다가가 그 사진을 어깨너머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스파나를 쥔 세진이와 나란히 권양기옆에서 찍은 아름다운 처녀의 사진이었는데 얼핏 보기에 도 그 처녀가 정말 기가 막히게 곱더군요.

〈세진동무, 애인인가?〉

내가 낮은 소리로 묻자 그는 약간 놀라며 나를 돌아보더니 슬며시 사진을 무릎우에 뒤집어놓더군요. 그리고는 쑥스러운듯 더수기를 굵적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솔직히 말하면 나에겐 이 처녀가 애인이지만 이 처녀한테 내가 애인이 아닙니다. 아마 생각조차 안할지도 모릅니다. 증산전쟁때 이 처녀의 권양기정비를 내가 말아보았는데 내 동무인 사진사가 현장에 찾아왔다가 이 사진을 찍었었지요. 내 동무가 사진을 뽑아 나에게 쥐여준 이튿날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에 나옴다나니 그만 이걸 처녀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처녀(이름은 옥명이라고 합니다.)에게 왼손약손가락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권양기의 제

동장치가 고장나서 광차들이 바람을 났었는데 자칫하면 술한 사람들이 죽거나 상할수 있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처녀는 서슴없이 옆에 놓인 짧은 각자를 집어 들고 권양기치차에 밀어넣었는데 자기 손가락이 이바퀴에 걸리우는데도 그 각자를 놓지 않고 견디며 큰 사고를 막아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배인동지는 옥명이의 상처 입은 손을 제 옷깃을 찢어 싸매주며 울먹거리며 말했지요.

〈넌 얼굴보다 마음이 더 곱구나. 너야말로 말이 아니라 피를 바쳐 애국할줄 아는 진짜 아름다운 처녀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말이 저의 가슴에는 불심지처럼 깊이 들이박혔습니다. 말이 아니라 피를 바쳐 애국할줄 아는 처녀. 분대장동지, 나도 것처럼 살고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를 열렬히 사랑하였지요. 그의 권양기보수를 내가 말았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고 그나마 함께 일한 날자가 고작 닷새밖에 안되었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 고있는지...

분대장동지, 난 오늘 이 처녀를 거울삼아 비렷했던 나를 비춰보고있는중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나는 그만 너무도 가슴이 격해져서 세진동무를 꼭 부둥켜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게 될거야, 떳떳하게 말이야!〉

다음날부터 그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잠과 휴식시간을 엄청나게 줄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성실한 방조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며칠후부터 그는 그 외나무다리를 눈을 감고도 건너가는 담을 가지게 되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담과 의지를 천성에서 찾는데 전 그게 전혀 틀리는 말이라는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담과 의지는 천성이 아니라 사상적각오의 열매입니다. ...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는 적진에 정찰 나갔다가 전분대가 적들의 포위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고급작전장교 한놈을 생포해가지고 오는 걸음이어서 대단히 힘든 전투를 치르어야 했습니다. 자칫하면 분대모두가 희생될 상황이였지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동무들, 내가 적들을 유인하겠으니 동무들은 《허》를 끌고 무사히 런대까지 가달아야 하오. 정찰자료를 잘 간수하시오. 우리가 만날 장소는...〉

내가 말을 채끝내기도 전에 누군가의 손이 나의 입을 가볍게 가리워버리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세진동무였습니다.

〈그건 분대장동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부탁입니다. 내가 살아돌아오지 못하면 이 사진을 옥명동무에게 보내주십시오. 허락없이 그를 사랑한 나의 잘못을 대신하여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약속된 3호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말없이 그가 내주는 종이에 쓴 사진을 받아든 나의 몸은 그저 걱정으로 떨리기만 할뿐이었습니다. 나도 동무들도 예비탄창을 다 뽑아 그의 허리에 찬 탄창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싱긋 웃으며 손을 저어 보이더니 적들이 밀려드는쪽으로 표범처럼 날아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엔 자지러진 총소리… 메아리로 울리는 세진의 고향소리… 우린 그 소리를 들으며 산릉선을 내려 골짜기로 유유히 빠지었습니다.

우리가 다음날 약속된 장소에서 세진동무를 찾아냈을 때는 온통 피투성이였습니다. 지형을 보니 까마득한 벼랑우에서 내려뿔것이 분명하더군요. 개울을 가로지른 외나무다리도 무서워하던 그가 그보다 몇배나 높은 벼랑에서 내려뛰었던 말입니다. 임무를 수행하자고… 아마 총에 맞고 주먹에 맞아 숨줄이 끊긴 적이 수십놈은 잡힐겁니다. 그의 희생적인 노력으로련대의 공격작전은 승리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

선우명석의 말은 끝났다. 하지만 나는 설설 끓는 심장의 열을 쏟아붓듯 고개를 수그린채 계속 만년필만 놀렸다.

전투위훈이라기보다 매혹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안은 나의 마음속 환희를 그 어디에 비기랴!…

나는 명석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세진동무와 옥명이라는 처녀가 함께 찍었다는 사진을 좀 보여주오.》

명석은 주저없이 안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내 손우에 놓아주었다.

밝게 웃으며 스카파를 높이 든 세진이, 살며시 미소하며 앞을 바라보고있는 옥명이…

아, 얼마나 아름다운 청춘들이 지금 조국을 위하여 피흘리며 싸우고있는가.

《이보게 분대장, 난 이 사진을 전선신문에 기사와 함께 낼 결심이네.》

나의 말을 듣자 그는 찬성이라는듯 철썩 손뼉을 치다가 인차 도리머리를 저었다.

《저… 그건 세진동무에게 물어보고 내야 할것 같습니다. 더구나 처녀가 자기를 생각조차 안할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걸 신문에 공개하면 좀…》

리해되었다. 그의 말이 백번 옳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음을 조이며 세진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었다.

이윽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 비록 상처투성이의 얼굴이지만 미소를 담고 나의 소개에 고개를 끄덕일 때 사진을 기사와 함께 신문에 내려 한다는 의향을 표시하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안됩니다. 그가 나를 생각지도 않거니와 따르는 총각들이 많았는데 이미 시집을 갔거나 누구와 약속이라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심사숙고해주시시오. 자칫하다가는 옥명동무의 생활에 내가 상처를 입히는 격이 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나는 할 말을 못 찾았다. 그의말 역시 백번 옳았기때문이었다.

그러고보니 나는 뜻밖에 굴러든 특보감으로 하여 멋없이 들떠있던 맹랑한 기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아직은 속단할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내심 굳은 결심을 가지고 지그시 아래입술을 깨물었다. …

다음날 신문사에 도착한 나는 편집부장과 신문사책임일군들에게 사연을 얘기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송덕광산의 그 옥명이라는 처녀를 찾아 떠났다.

내가 그의 집을 찾았을 때 옥명은 집뜰안에서 동무들과 함께 전선에 보낼 원호물자를 포장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나는 소개인사가 끝나기 바쁘게 매미가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뜰안의 추리나무밑으로 옥명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우선 하나 묻기요. 동무 시집을 갔소?》

《어마나, 소좌동지두. … 지금 그런 새빠진 생각을 할 처녀가 어디 있습니까?》

옥명은 나를 질책하듯 곱게 흘려보았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음,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이제부터 여기 좀 앉아서 내 말을 듣고 솔직한 고백을 해주길 바라오. 이걸 내 기사문제가기 전에 한 영웅의 인생문제가요.》

나는 옥명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처녀는 고개를 수긋하고 한마디의 말도 없이 새겨듣고있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깊숙이 건사해가지고온 그 사진을 꺼내 처녀에게 내어주었다.

옥명은 그 사진을 점도록 들여다보았다.

한방울, 두방울… 맑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사진우에 점점이 떨어져 부서졌다. 잠시후 옥명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나의 손을 꼭 부여잡고 울음에 젖은 목소리로 그리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에게 이런 애인이 있었다는게 꿈만 같습니다. 나 같은게 뭐라고… 이런 사람을 마다하면 전 이 나라의 딸이 아니지요. 저에게는 그를 받아들이고 따를 심장밖에 없습니다. 외람된 부탁이지만 이 사진을 세진동무와 저의 약혼사진으로 싸우는 조국앞에 공개해주시시오.》

《!…》

젖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옥명의 얼굴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서는 건잡을새없이 후더운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아, 조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청춘들을 품에 안고 싸우고있는가!…

농민전사

리근지

바위마저 타버린 고지에
농민전사 그는 홀로 남았다
열번째 또 기여오르는
딱정벌레같은 적땅크들
그에게 남은건 반땅크수류탄

허나 농민전사는
설참 발머리에 앉아
담배를 두툼히 말아피우던 그날처럼
전호에서 담배를 빨고있었다

그물그물 피는 연기속에 보여왔다
발머리의 제 이름 큼직한 패말이며
씨앗을 뿌리며 마주 웃던 안해의 얼굴이
흙냄새에 취한 얼룩소의 영각소리—

보여왔다 안겨왔다
두엄내 구수한 검붉은 땅
채 갈지 못하고 보습날 박아둔
아지랑이 피며 뒤채기는 발이랑이—
들로 불려내던 뻐꾸기울음소리—

×

하루일 끝낸 밤 둥근달 이고
안해와 나란히 발머리에 앉았지
하늘엔 견우직녀 만난다는
은하수바다

곡식들 커가는 소리 흐뭇이 안고
보물처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었지
이 가을엔 토실토실 영근 이삭 알알이 골라
영명하신 김장군님께 큰절 드리러 가자고
꿈도 많고 기쁨도 크던 행복한 밤

남진의 길에서도
싸움의 고지들에서도
그밤을 안고 살았다
애국미 싣고 평양으로 가는
왈랑질랑 소방울소리 들으며

아, 쓸어보고 안아보아도 꿈만 같아
부드러운 발이랑에 발목 푹푹 묻으며
걸고걸다가는 끝내
장군님 고마움에
끌어안고 눈물로 푹 적시던 땅

×

번쩍— 일어서는 불기둥 불기둥
땅을 물어뜯는 적땅크 앙칼진 소리
허나 농민전사는 담배쌈지 차곡히 접으며
발갈이에 흠뻑 뚫은 땀 마저 들이듯
깊숙이 담배를 빨며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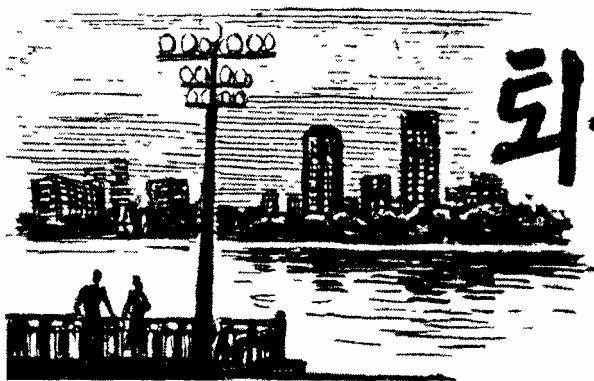
저것은 분명
푸르게 자라는 곡식을 갇아먹으려
내 발이랑에 기여드는 늑벌레무리
소담하게 이삭영근 발이랑에 기여들다가
박달몽둥이에 허리부러지던 메돼지

한심하고 흠향기 한껏 들이키며
보탑을 잡으려 일어서듯
농민전사 그는 수류탄을 틀어쥐고
전호우에 우뚝 섰다두발 뻗칠 땅도 없던
머슴군에게
첫 씨앗과 함께 첫사랑을 꽃피워준
장군님이 주신 내 땅
난알과 함께 행복을 거둬들이던
장군님이 주신 내 땅

죽어서도 안고갈 그 사랑 그 은혜
부푸는 가슴을 터치였다
《이놈들아, 머슴살던 어제날 바우가 아니다
장군님을 쌀로 받든
새 민주조선의 억척같은 바우다》

...

농민전사가 터친
봄날우뢰소리가 고지를 흔들며
아지랑이 피는 발이랑으로 올라갔다



퇴근길에서

김기범

《제가 도와드릴까요?》

명희는 문득 놀라 옆을 돌아보았다. 동시에 돌덩어리처럼 매달려 팔을 잡아뜯는것 같던 짐이 건듯 가벼워짐을 느꼈다.

흰칠한 이마말에서 서늘한 눈매가 명희를 마주 보며 가볍게 웃음짓고있었다.

(어마나, 그 사람이로구나!)

명희는 대뜸 그 청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상대방은 명희의 표정에는 아랑곳 않고 려행가방의 한쪽손잡이를 잡더니 보폭을 맞추며 걷기 시작했다. 명희로서는 참으로 그 마음이 고맙고 다행스러웠다. 퇴근길에 상점에 들러 이것저것 물건들을 사서 공질 때에는 모르겠더니 불룩해진 려행가방을 들고나서니 처음부터 어깨가 빠근해왔다.

처음에는 그까짓거 하는 배심을 가지고 걸음발을 쉽게 내디디었으나 걸을수록 기운이 진하고 힘에 부쳐 자주 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명희는 퇴근길에 봄버대는 사람들속에서 행어나 하여 낮익은 얼굴들을 찾아보려고 주위를 자주 살피었다.

그런데 어느날에는 정해놓은듯 꼭꼭 부딪치더니 그날따라 약속이나 한듯이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할수없이 길건너편으로 바라보이는 집쪽을 향해 긴숨을 호 내쉬며 늘씬한 허리를 굽혀 가방을 드는 순간에 이 고마운 청년이 불쑥 나타난것이였다. 얼마나 선량한 청년인가!

《고맙습니다. 바쁜 길을 지체시켜서 안됐습니 다.》

명희의 레절바른 말에 싱긋이 웃기만 하는 청년이였다. 하나의 짐을 들고 그들은 어깨나란히 보폭을 맞추며 걸었다. 굵높은 구두를 신어서인지 명희쪽이 약간 더 커보이였다.

이제 청년은 자기에게 이것저것 말을 시킬것이다. 어디까지 가는가? 이 짐속에 무엇이 있는가? 왜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고나섰는가 등등...

그러면 명희는 선선히 그러나 얼마간의 경계심

을 남겨두고 그 물음들에 적절한 대답을 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청년은 전혀 아무 말도 없이 발끝만 내려다보며 걸을뿐이였다.

마치나 자기는 짐을 들어다주기만 하면 된다는듯이 말이다. 오히려 이체나저체나 먼저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리고있던 명희쪽에서 참 난처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다고 먼저 입을 열자니 부끄럽기도 하여 두사람은 자연히 어색한 침묵속에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색블록들이 구색맞추어 깔려진 인도로우에 명희의 굵높은 구두뒤축이 부딪치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릴뿐이였다.

마침내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가는 곳까지 갑시다.》

(?!...)

명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수 없었다.

누가 누구의 가는 곳까지 가자는 소리인지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걸가?

그렇다고 두번다시묻기가 멋적어 자기도 역시 발끝만 내려다보며 걸었다. 다시금 명희의 고르로운 구두뒤축소리...

명희의 팔힘이 빠질 때쯤에는 청년이 눈치있게 명희와 자리를 바꾸군 했다.

여직껏 말 한마디 건네는적 없고 아예 그런 낯새조차 느낄수 없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되더니 걸을수록 그 생각은 차츰차츰 호기심으로 변해갔다.

아름다운 처녀들은 못사람들 특히 나이찬 총각들의 눈길을 끌기마련이다.

명희는 자기가 굵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아침마다 문을 나서기 전에 건강미가 흐르는 늘씬한 몸매의 곡선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화려한 거울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의 상냥한 목소리에서, 자석처럼 자기의 몸에 떨어질 줄 모르는 총각들의 눈길에서, 때로 자기앞을 뚝

가로막고 대담하게 싱거운 수작을 붙이려드는 심검둥이들의 행동에서 자기의 미모를 느끼곤 했다.

여러가지 방법과 수를 다해가며 접근하려드는 총각들의 태도를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장미가 시처럼 꼭 찌르며 명희는 처녀의 《성새》를 지켜왔다. 그러는 과정에 그는 자연히 마음속 깊은 구석에 자기의 어여쁨에 대한 긍지의 감정을 묻어두게 되었으며 다만 경망스럽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할뿐이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명희같은 처녀는 아예 눈에도 차지 않는다는듯이 눈길 한번 맞추지 않고 갈길만 곳곳이 바라볼뿐이었다.

오히려 그런 자세가 명희의 묻어두었던 그 감정을 어지간히 자극시켰다.

《외국어를 잘하시더군요.》

《?!...》

이 말에 청년은 처음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명희는 자기가 던진 이 말의 효과적인 즉시반응을 재미있게 마주보았다.

처녀의 부끄럼없이 마주보는 눈길앞에 총각은 먼저 눈을 돌리었다.

《전번주 일요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외국인참관단성원들과 회화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참 류창하단데요.》

뜻밖의 칭찬을 받아서인지 청년의 얼굴은 목덜미까지 붉어졌다.

명희는 누군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수집어하는 모습이다.》라고 한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인지 얼굴붉히는 청년의 순진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외국어전문가들의 눈으로 본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겸손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이것은 명희의 자존심을 꼭 찢어놓았다.

명희도 대학시절 대학적인 외국어회화경연때마다 모든 학생들을 뒤떨고 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으며 졸업후에는 희망대로 생물연구소에 배치받아 얼마 안있어 외국어실력가로 단연 물망에 올라 연구소외국어강사로 추천되었다.

아마 이것으로 하여 명희는 못사람들의 시선을 더욱더 끌어당기는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청년은 명희 자기를 외국어뽕내기로 여기는것이 아닌가?...

물론 모르고 한 말이니 크게 신경쓸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손상당한 자존심으로 하여 언짢은 것만은 사실이었다.

《저도 외국어초학도는 아니랍니다.》

처녀의 류다른 어조에서 자기의 실수를 느꼈던지 청년은 힐끗 명희를 돌아보았다.

명희는 재빨리 말머리를 돌리었다.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지금 다니고있습니다.》

《그래요, 김일성종합대학 아니면 외국어대학?》

대답은 없이 빙긋이 웃기만 하는 청년의 얼굴을 보자 명희는 제편에서 멋적어졌다. 초면에 어쩐지 경박한 질문을 한 느낌이 들었던것이다.

《동문 대학을 나왔겠지요?》

《예!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답하는 명희의 목소리에는 자량이 넘치었다.

추억의 한토막을 소중히 간직하고있고 청춘시절의 꿈씨앗을 묻어 움티워온 귀중한 대학시절을 그는 즐겁게 돌이켜보곤 했다.

청년의 얼굴에 선망의 표정이 얼핏 나타났다가 사라지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면 과학과 기술을 지향하는 청년들치고 누구나가 다 동경하는 대학이 아닌가. 자기는 그 대학의 당당한 최우등졸업생이다.

《훌륭한 대학에서 배웠구만요. 그러나 대학이 훌륭하다고 졸업생도 다 훌륭한것이 아니지요.》

(심술쟁이로구나!)

언뜻 떠오르는것이 이 생각이었다.

생활에는 심술주머니를 흔들며 괜히 엇드레질하는 속미운 사람들도 종종 볼수 있다.

동행자에 대한 종던 인상이 확 잡혀졌다.

그 말은 곧 동무가 아무리 선망의 눈길속에 공부했다고 해도 실제로 사회에 리익을 주고 사람들속에 쓸모있는 존재로 되겠는가 하는것은 두고 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것은 연구소의 사랑과 관심속에 받들려사는 명희자신에 대한 무근거한 비난으로 지어 모독으로까지 느껴졌다.

《저도 제대되어와서 김책공업종합대학입학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못하다나니 시험에서 떨어졌지요.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대학공부를 하고있습니다.》

혼자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리는 청년의 말에 반발적으로 튀어나려던 말들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뒤이어 동정과 리해의 감정이 슬며시 머리를 들었다. 어찌 보면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으로 하여 감추어진 아쉬움에서 내뿜어진 울픈지 못한 말이였을수 있다고 너그ერი 리해하고싶었다.

《그 말이 옳아요. 문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이는 비록 아래이지만 대학과정을 먼저 마친 선배연한 자세로 명희는 아량을 보이였다.

이것은 그의 진심이기도 하였다.

그날 인민대학습당에서 통역을 거치지 않고 외국인파와 원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이 청년의

도담한 자세와 높은 수준의 구사능력에 명희는 물론 지켜보던 여러 사람들이 감탄했으며 그로 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었다.

명희가 힘겨워하는 것을 눈치챈 청년은 제먼저 위치를 바꾸었다. 결도 한번 보지 않고 앞길만 주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때맞춰 손을 바꾸어주는지 명희로서는 의문스럽고 신기하기도 하였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번에도 명희가 먼저 물었다.

《저기 보이는 25층아파트입니다.》

이 말에 명희의 두눈이 울렁하니 커졌다.

《그 아파트 누구를...》

《진명선선생님 집을 찾아갑니다.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어마나!》

명희의 입술사이로 가벼운 탄성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김진명선생님이라면 ○○○연구소 박사선생이어서 온 아파트가 다 잘 알고있었고 더우기 명희네 옷집이었다.

명희가 평양제1중학교에 입학한 첫날부터 대학졸업의 날까지 명희는 그 선생님의 사심없는 방조 밑에서 최우등생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그리고보니 《훌륭한 대학을 나왔다고 훌륭한 사람이 다 되는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진명선생님이 대학졸업의 날 명희에게 조용히 말해주었던 조언이기도 하였다.

혹시 이 청년도 그 선생님에게서 외국어를 배웠을런지도 모른다.

문득 청년이 걸음을 멈추었다.

《왜 그러니까?》

《수첩이... 그걸...》

《예?!... 수첩이요?》

명희가 지켜보는 앞에서 청년은 그 무슨 수첩을 애써 찾느라 온몸을 더듬었다.

끝내 나타나지 않는 수첩을 두고 락심천만해하는 그의 표정은 명희의 마음까지도 자연히 함께 상심케 했다.

《됐습니다. 찾게 되겠지요.》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다시 명희의 집을 땀 흘렸다. 그러나 눈빛은 다른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가장 소중한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서만이 볼수 있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착잡하게 엮힌 그 눈길은 눈빛이었다.

두사람은 다시 짐을 사이에 두고 가지런히 걷기 시작했다. 퇴근길에 봄비는 사람들속을 차분히 헤치며 가는 그들의 련인같은 모습을 보며 젊은 이들은 부러운 눈길을, 중년배들은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저 친구 좋겠는걸. 저런 멋쟁이처녀와 나란히

가다니...) 하는 속생각들이 그대로 내비쳐진 눈길들이었고 미소였다. 또 어떤 처녀들은 깔끔한 눈길로 그 두사람을 비교하며 (그 남자는 어느모로 보나 동무와 어울리지 않아.) 하고 명희에게 충고해주는듯싶었다.

(내가 이 사람을 애인으로 택한다면 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지.)

느닷없이 떠오른 실없는 생각에 명희는 저도 모르게 실웃음을 지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또 함께 가는 미인이 자기를 두고 어떤 감쪽한 속생각을 했든 관계치 않는듯 청년은 머리를 짓수긋하고 생각에 잠긴 표정뿐이었다.

《진명선생님을 잘 아십니까?》

무언가 깊은 회억에 잠긴듯 한 청년의 바닥없는 생각을 깨뜨릴가 저어하며 명희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리고는 재차 뒤를 달았다.

《저의 옷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요?》

놀라리라고 예견했던 청년의 응답은 반대로 평이하고 조용했다.

《글쎄 뭐라고 해야 할가. 살아계실적에는 잘 몰랐지만 돌아가신 지금에야 어떤분인지 절감했다고 할가. 참 훌륭한분이였습니다.》

청년의 어조는 낮았으나 명희의 심금을 드세게 울리기에는 충분했다.

바다물은 다 마셔보지 않고도 단 한방울이든 그 짙맛을 알수 있다.

청년의 말은 짧았으나 그에 담겨진 진정은 그가 얼마나 박사선생님을 존경했는가를 알수 있게 하였으며 수십수백마디의 장광설보다 더 무게있고 깊이있었다.

또 이것은 처녀의 마음에 이어진 다리가 되여 또다시 친근한 감정이 가슴에 흘러들었다.

《한가지 물어볼가요?》

이 말에 명희는 어리둥절해졌다.

구답시험치는 학생마냥 물음에 대답만 하던 《학생》이 이번에는 도리어 《선생님》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이었다.

《생물연구소의 김명희동무를 아십니까?》

명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명희가 반아안은 놀라움은 그 어떤 말로써도 표현할수 없었다.

보다 더 의문스러운것은 자기가 생물연구소에 있다는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듯이 청년은 인차 주해를 달았다.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무가 자주 와서 외국기술잡지들을 열람하기에 열람실사서동무에게 물어보고 생물연구소에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영리한 사람!)

이런 생각이 새처럼 불쑥 찾아들었다.

그러니 이 사람도 나를 보는 순간에 이미 알아 보았다는 소리가 아닌가. 어느 책에선가 녀자들은 깊이 보고 남자들은 멀리 본다고 써여있었는데 과연 그 말대로 남자들이란 녀자들보다 더 엉큼하고 지어 흉측하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혹시 내 이름까지도 알고 시치미를 떼는게 아닐까?

그러나 결보기에 사람이 자기의 속을 숨씨있게 감출줄 아는 그런 능란한 《배우》 같지는 않았다. 《예! 알아도 잘 알지요. 우린 딱친구랍니다.》

알국은 생각에 명희는 우정 모르쇠를 하며 어울리지 않은 《연기》를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언닐 아십니까?》

《뭐 별다른게 아니고 딱친구라니 말하지만 래일 그 동무를 만나면 선을 보게 되었던 총각이 제시간에 가지 못해서 참 미안해하더란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명희의 손끝에서 가방이 툭 떨어졌다.

그 바람에 청년이 옆으로 약간 비칠거리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웬일인가싶어 쳐너를, 다음은 청년을 번갈아보았다.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는가, 운명의 희롱이면 이보다 더한 희롱이 또 있으랴.

우연히 길에서 만나 같은 길을 걷는 그들이 원래 서로 선보게 되었던 사이인줄이야 누군들 꿈조차 꿀수 있었으랴.

총각이 눈치챈듯싶어 명희는 재빨리 가방끈을 잡았다.

《왜 그럼니까?》

《아니 그저 괜히, 그 언니와 선보게 되었던 사람과 같이 가게 될줄은...》

그렇듯한 변명속에 황황히 자신을 다잡은 명희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입귀에 그려졌다.

그날 아침에 광성이 할머니가(그는 김진명박사 선생님의 어머니였다.) 명희를 찾아왔다.

좋은 총각을 소개해줄테니 한번 보지 않겠느냐는 혼사담을 안고왔다.

《어디 총각입니까?》

딸보다도 어머니가 더 극성이 돼서 바짝 다가 앉았다.

《우리 아들과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는 젊은인데 사람이 진실하더군요. 내 명희를 남처럼 여기지 않는터에 이런 멋진 대상자를 놓칠가봐 걱정되어 왔다니까.》

이 말에 경대앞에 앉아서 화장을 하던 명희도 슬며시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명희만은 꼭 총각을 맞세워주고싶어 그러니 한번 만나보라구.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내가 이 자리에

서 별의별 소릴 다 늘어놓아도 명희가 직접 만나 보느니만 못할걸세. 어땐가, 명희 아버지 생각엔?》

《어머니가 소개해주는 사람이야 두말없이 봐주세요, 허허.》

명희 어머니는 무턱대고 좋다고만 하는 남편을 곱게 흘겨보고는 찾아온 할머니의 손에 정히 짝은 사과를 들려주었다.

귀한 외동딸을 강아지 팔듯 아무 사람에게나 쥐여주고싶지 않은것이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의 심정이 아닌가.

《그 총각이 무얼 하는 총각입니까?》

《평범한 로동자이지.》

어머니는 물론이고 명희도 이마에 주름이 가도록 얼굴을 찡그렸다. 중앙기관책임일군의 딸이며 당당한 대학졸업생이고 연구사인 자기에게 로동자를 맞세워주겠다고 집에 온 웃집할머니가 지어 섭섭하기까지 했다. 제대군인인데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적으로도 선망을 받는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시뚱해진 모녀의 심정을 웃집할머니가 모를리 없었다.

《왜 로동자총각은 싫나?》

《로동자면 더욱 좋구만요. 명희야, 할머니가 우정 걸음을 하셨는데 한번 만나보아라.》

아버지의 말에 명희는 아무 말도 안했다.

《명희가 싫어하는걸 보니 내가 괜히 온가부다.》

《아닙니다. 할머니, 처음부터 좋다고 하는 처녀가 어디 있습니까. 꼭 만나봐야지요.》

아버지가 그루박는 바람에 어머니도 명희도 다른 말을 못했다.

할머니는 서운한 눈길로 명희의 상기된 얼굴에 도장을 찍고 돌아갔다. 썩 내키는 기분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이미 약속을 해놓은 이상 명희는 퇴근시간보다 좀 먼저 약속한 장소에 가서 청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30분나마 지났어도 청년은 나타나지 않았다. 성이 나지 않을수 없었다. 만나보지도 못한채 제가 채운듯 한 불쾌감에 그는 뺨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무례한 청년이라고 눈먼 욕을 하였고 또 그런 사람을 참인간이라고 소개해준 웃집할머니까지 좋지 않게 생각되었다.

무슨 일이 있어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나타났던 광성이 할머니도 참 난처한 표정이였다.

명희는 한편으로는 차라리 거절할 구실이 생겨서 잘된셈이라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다시 말하기를 원하지 않던 사람과 바로 나란히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가게되었으니 우연도 이런 우연을 또 어디서 찾으랴.

명희는 불쑥 이 청년을 놀리고싶은 앞망스런 마음이 꿈틀거렸다.

《그런 말이야 후날 본인을 다시 만나서 하든가 아니면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야지 저같은것한테 말해야 되겠습니까?》

명희는 자기가 멋지게 꼴을 먹었다고 속으로 패재를 불렀다. 그리고는 차마 청년의 리지적인 눈길을 마주할수 없어 속눈섭을 내리깔고 머리를 외로 틀었다. 청년은 싱긋이 웃었다.

명희는 혹시 자기를 떠보는게 아닌가 하고 버쩍 의심이 들었다.

《뭐 그런 번잡한 과정은 필요없습니다. 그런 처녀와 다시는 만나고싶지 않으니깐요.》

《예?! 어째서요?》

희멀끔하게 잘난 총각들이 지하철도에서, 집앞에서 자기앞을 두억시니같이 불쑥 가로막을 때도 이렇게까지 놀라지 않았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볼 때 외모나 용모에서 못 처녀들의 눈길 한번 끌지 못할 사람에게서 도리어 무시당한것이 슬그머니 약이 올랐다.

《그 언니 우리 연구소적으로 수재라고 소문났고 또 얼마나 미인이게요?》

명희는 더욱더 총각을 중편보았다.

사람을 떠보는것이 일종의 비렬한짓임을 알면서도 청년의 속마음을 알고싶은 호기심은 보다 더 강했던것이다.

《아름답다고 다 훌륭한가요?》

《예!!》

《로동자를 알보는 처녀는 제아무리 수재라고 해도 싫고 뛰어난 절색이라고 해도 그런 얼굴은 쳐다보고싶지 않습니다.》

명희의 도통한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휘우듬히 곱게 활등을 그린 눈섭초리가 그 순간에는 우로 쳐들리는듯싶었다. 그러나 자기의 흥분을 서둘러 드러낼수는 없었다.

상처입은 자존심은 바람 찬 풍선같아 이제 더 누르면 터질것 같았다. 그러나 지성인답게 차디찬 리성으로 달아오른 감정을 지그시 식히며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그언니를 두고 그렇게 막 말하지 마십시오. 동지가 알면 얼마나 잘 알아서...》

숨이 차올라 말끝을 제대로 이을수 없었다.

《하나의 물방울에 우주가 비낀다고 했지요?》

청년은 똑바로 그를 응시하며 나직이 그러나 힘을 주며말했다. 그때 명희는 처음으로 밑바닥까지 꿰비쳐보이는 맑고 정갈한 샘물을 들여다보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람을 알려면 소금 세말은 함께 먹어야 합니다.》

문득 시원한 웃음소리가 터지었다. 이에 놀라

마주오던 한쌍의 련인들이 약속이나 한듯 이쪽으로 시선을 던지었다. 그런데 그 웃음속에서 명희는 야유와 조롱이 아니라 충만한 자신심과 배짱이 느껴지는것은 어찌된 까닭인가?

《속담에 가재도 계편이라고 했지요. 언니를 적극 두둔하는걸 보니 동무도 그 언니와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있는 모양이군요.》

정말이지 약이 올랐다. 혹시 나를 만나서 통쾌하게 꼴먹이치고 이제껏 기다리고있지나 않았을가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품게 되었다.

명희는 청년의 손에서 가방손잡이를 뺏 나꾸어냈다. 그리고는 연약한 팔에 힘을 애써 돋구며 비칭비칭 걷기 시작했다.

느닷없는 도전적인 반발에 청년은 어리뻑한 표정이었다. 명희는 힘이 약한것이 한스러웠다.

더우기 뒤에서 그 《심술쟁이》이며 《흥측한》총각이 자기를 지켜보는것이 더욱더 부끄럽고 화가 났다. 분노와 반발이 모두 힘으로 전환된다면 명희는 산이라도 등에 지고 씨엉씨엉 갈것만 같았다. 뒤에서 힘줄뻗친 단단한 팔뚝이 쑥 뻗치더니 어느새그 청년의 손에 다시금 가방이 쥐여졌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라면 훌쩍 가버리고말겠지만 내가 스스로 한 일이니 끝까지 도와주어야지요.》

장난감가방이라도 들고가듯 별로 힘들지 않게 걸어가는 청년의 다부진 뒤모습은 처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있었다.

명희는 종종걸음쳐 그를 따라잡았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갑시다. 저도 빠근하군요.》

청년은 길옆의 의자에 짐을 내려놓으며 명희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요구라기보다 명령에 더 가까웠다. 명희는 반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 이 장면을 보게 될가봐 걱정되었던것이다.

하지만 자기도 맥을 뿔은데다가 또 청년의 명령속에 느껴지는 거절할수 없는 억센 힘에 끌리어 명희는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가방결에 조심히 앉았다.

《도덕없이 행동해서 안됐습니다. 그러나 저도 처녀로서 한마디 동지께 충고한다면 동지는 처녀들의 일반적인 심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우리 처녀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걸 간섭하거나 가르치려든다면 그야말로 비도덕적이고 저조한 행위가 아닐가요?》

청년의 눈길이 처녀의 얼굴에 날아들어 칼끝처럼 박혔다.

명희는 그 눈길을 마주할 용기가 감히 생기지 않았다. 《사실 전 길에서 우연히 만난 동무와 론쟁하고싶은 생각도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지

요. 그러나 이 문제가 나 하나뿐 아니라 우리 로동계급청년들의 존엄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볼 때는 꼭 이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명희는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다소곳이 앉아있었다. 마치나 욕을 먹는 어린 소녀같이 가엾게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나 심장은 더욱더 쿵쿵 뛴다. 머리우에서 폐부깊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리었다. 그것은 보다 더 심각하고 예리한 말마디들을 총탄처럼 퍼부으려는 순간 직전의 무서운 예고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예상외로 잔잔하고 퍽 가라앉은 목소리가 그의 머리우에서 울리었다.

《직급과 직업에 따라 사람을 저울질하는 그런 처녀가 과연 우리 시대에 살 자격이 있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걸 전 도리어 저울에 놓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지, 명희언니는 동지가 생각하는 그런 처녀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무역성 어느 부원으로 일하는 청년의 청혼도 거절했답니다.》

창백하게 질린 명희의 얼굴이었다.

쌔근쌔근 숨을 몰아쉬는 명희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던 청년은 피씩 쓴 웃음을 입에 물었다.

《로동자청년을 위해서 거절한것이아 아니겠지요.》

명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심중처럼 치마자락이 바람에 휘말려 진정하지 못했다.

《동진 지내 편협하군요.》

《좋을대로 생각하십시오. 아까 무슨 선택의 자유소리를 했는데 선택의 기준점 하나 똑바로 정하지 못하는 처녀에게 선택의 자유라는건 그럴듯한 체면이지요. 찌그러진 집터에다 기와집을 짓겠다는 소리란 말입니다.》

청년은 할말을 다 끝냈다는듯이 자리에서 훌쩍 일어나 가방을 들고 앞서걸었다.

명희도 일어서고싶었으나 어쩐지 온몸이 나른해지는것이 그냥 앉아서 흠어진 마음을 다잡고싶었다. 이때였다.

《아지미!》하는 애된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리더니 동시에 오동통한 꼬마가 공처럼 튀어나와 명희잔등에 담쑥 매달리었다.

누군가 하여 뒤돌아볼새도 없이 이번에는 《삼촌!》하며 저만치 앞서가던 청년에게로 툭툭 뛰어간다. 뛰어가더니 발을 구르며 훌쩍 청년의 가슴에까지 훌 솟구치며 안기였다.

웃집의 장난꾸러기 다섯살짜이 광성이었다.

《에구, 철딱서니없는 녀석이라고야. 빨리 내려와. 삼촌웃 어지러워지겠다.》

광성이 할머니가 명희의 뒤로 다가서며 다급히 손짓했다. 그렇든말든 광성이는 청년의 옷주머니

에 꽂혀있는 원주필을 제것처럼 쑥 뽑아들더니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삼촌, 우리 집 텔레비존 고쳐주러 오나?》

《응 그래. 우리 광성이 남의 집에 가서 아동영화랑 본다면서.》

《야! 좋구나. 삼촌, 빨리 가자. 오늘 〈소년장수〉 새거 한대요.》

(텔레비존을 고쳐준다구?)

불현듯 명희는 얼마전에 집에 놀러왔던 광성이 가텔레비존이 고장났다는 말을 했던것이 생각났다. 녀자들만 사는 집에 텔레비존까지 고장났다는 말을 듣고 동정심이 생겨나 아무때건 놀러와서 텔레비를 보라고 말한적이 있었다.

아마 이 청년은 이 사실을 알고 퇴근길을 진명선생님의 집으로 정한지도 모른다.

《만나보니 어쩐가?》

누군가의 투박한 손이 어깨에 얹어지는 바람에 돌아보니 옷집할머니였다.

명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몰라 주춤거리었다.

삼거웃처럼 뒤엀킨 생각속에서 딱히 무어라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것이다.

《좀 있다가 우리 집에 오라구.》

할머니는 눈귀에 얹혀진 잔주름들을 펴며 슬그시 웃음지었다. 명희의 눈길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허둥거리었다.

《아이쿠, 이게 뭘데 이렇게 무겁나?》

《저 처녀동무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도 뭘지 모르고 힘을 뿜는답니다.》

명희는 급히 다가서며 말했다.

《저— 광옥이가 야영간다는 말을 듣고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히야, 이거 다 우리 누나거나? 굉장하구나.》

광성이는 마치 자기가 야영을 가는것처럼 좋아라 들까불며 명희의 치마폭에 물어돌아갔다.

고마움에 폭 젖은 눈시울이 바르르 떨리었다.

《고맙네, 다들 어쩐면...》

《할머니, 사회와 집단을 위해 일하다 먼저간 동지들을 잘 돌봐드리는것이야 우리들의 의무이고 도리가 아닙니까. 전 이것을 군사복무나날에 귀중한 체험으로 깨달았습니다.》

명희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맞게 균형잡힌 체격, 수수한 옷차림, 환칠한 이마아래 눈귀가 꼭 맞물린 시원한 눈매, 사람들속에 섞이면 쉬이 묻히어버릴 그가 어째서 명희의 눈에 두드러지게 커보이는걸가. 우연히 만난 청년, 생각지 않게 당한 운명의 희롱, 자기를 격분시켰던 청년의 맵판 비판, 그러면서도 처녀의 가슴에 돌을 던져놓은 티없는 솔직성, 그것은 꾸며낸것도 아니며 또 꾸며낼수도

없는 인간의 진심이고 참모습이 아닐까. 자기가 만나보았던 무역성 총각에게서 억지스럽게 느껴지던 표정과 목소리가 저 청년에게서는 들려오지도 보이지지도 않았다. 그에게서는 명희에 대한 신랄한 말속에서 오히려 무게가 느껴지고 인격이 비껴들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아름다운것을 지향하고 추악한것을 경멸하며 타협하지 않으려는 기품이 행동속에 느껴지는 청년.

《전 이것을 군사복무나날 귀중한 체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청년의 말이 명희의 귀전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혹시 내가 그에게 반한것이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명희는 흠칫 놀랐다.

그리고는 머리를 저으며 애써 부정했다.

순간의 충동과 감정으로 인간을 평가하는것은 실패의 근원이라고 했다.

청년의 됬됨을 속단하기에는 명희가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고 나눈 이야기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명희는 후날 다시한번 꼼꼼히 생각해보리라 마음을 다잡고 집안에 들어섰다. 들어선 그의 눈길이 마비된듯 굳어졌다.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이 되어 침대에 누워있었고 그곁에 담당의사가 앉아 혈압을 재고있었던것이다. 대뜸 명희는 어머니의 심장병이 발작했음을 직감했다.

거의 울상이 되다싶이 한 명희의 곁에서 의사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빠스에서 갑자기 심장쇼크를 일으킨 어머니를 한 고마운 청년이 구급대차를 세우고 우리 진료소에 업고왔더군요. 그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뻔 했다. 그리고 이젠 그 청년이 우리 진료소에 홀리고간 수첩인데 어머니가 꼭 제손으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가져왔단다.》

의사는 치료방에서 밤색투명수첩을 꺼냈다.

상점이나 시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상품이 아닌, 그 누군가의 섬세한 손품이 엿보이는 큼직한 수첩이었다.

어찌나 애지중지하였는지 수첩가위들은 나슬나슬 닳았어도 표지는 새것이나 다름없이 깨끗하였다.

명희는 두툼한 수첩을 펼쳐들었다. 어느수첩장이나 손때가 묻지 않은 장이 없었다.

안에는 전자공학술어들이 외국어로 가득히 적혀있었다. 앞장을 펼치니 활달한 글씨로 휘갈겨쓴 문장이 한눈에 확 안겨왔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배우고 또 배워 최첨단전자공학의 기수가 되자!》

글자마다 만만치 않은 야심과 모가 나는 패기

가 느껴지는 글이었다.

지향이 높고 포부가 큰 청년이라는것이 느껴졌다. 다음장을 펼치니 사진 한장이 끼워져있었다.

사진을 들여다본 명희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낮익은 두사람이 자기를 마주보며 환히 웃고있었던것이다.

인민대학습당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속에는 진명박사선생님이 외국기술잡지를 손에 든 청년, 다름아닌 자기와 함께 온 그 이름모를 청년의 어깨를 동생마냥 다정히 그려안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니 이 수첩은 그 사람의것이구나.

번개치듯이 눈앞에 함께 오다가 수첩이 없어졌다고 하며 못내 안타까와하던 청년의 모습이 스쳐지났다. 뒤따라 특허자료열람실에서 시간가는줄 모르고 앉아 학습에 전념하던 그 청년의 뒤모습도 눈앞으로 다가들었다.

어머니를 구원해준 고마운 청년!

명희는 수첩을 들고 급히 옷집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고 광성이 할머니가 내다보았다.

《방금전에 텔레비존부속품을 사러 밖에 나갔네.》

《인차 오겠지요?》

《글쎄 오다가 진료소에 들러서 무슨 수첩을 찾아오겠더구만. 그런데 왜?》

《저...》 명희는 머뭇머뭇거리며 손에 든 수첩을 내밀었다.

그것을 어느새 할머니치마꼬리를 잡고 서있던 광성이가 담썩 앓아잡았다.

《이거 우리 삼촌 수첩이구나.》

영문을 몰라 얼머름해진 할머니에게 명희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할머니는 연방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귀담았다.

《그래서 오늘 그 장소에 늦게 갔겠구만. 내가 물어보니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게 가보니 명희가 없더라는거지. 그래서 이자 같이 온 처녀가 바로 명희라고 말해주니 깜짝 놀라더구만. 참 일두.》

명희는 생각이 깊어졌다.

오늘 그가 만난 총각, 그가 본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편함보다 남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기쁨보다 남의 불행을 더 우에 놓고 자기를 바치는 고상한 정신세계, 고결한 심장의 박동소리를 명희는 들었다.

이것은 명희의 이목을 끌기 위한 멋들어진 연극도 아니며 처녀의 환심을 사려드는 그럴듯하게 엮어진 행동도 아니다.

우연적인 사건에서 드러난 수양된 인간의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진심이고 본색이었다.

《전 이것을 군사복무나날에 귀중한 체험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시금 공명되어 울려오는 청년의 목소리.

고막을 두드리며 사라질줄 모르는 이 말이다.

《아지미, 이거 수첩 내가 줄래요.》

광성이가 수첩을 작은 가슴에 대고 여돌지게 말했다.

《예끼, 이녀석. 그걸 아지미에게 돌려드려라. 그건 아지미가 직접 만나서 주어야 하는거란다.》

애매하게 엉치를 맞은 광성이는 뚱그려진 눈으로 흐뭇하게 웃는 할머니와 얼굴이 빨개진 명희 아지미를 뵈히 올려다보았다.

착한 일을 하려다가 되려 꾸중을 들은 광성이로서는 웬일인지알수 없는 또 풀수 없는 어른들의 수수께끼였던것이다. ...×이 이야기는 나의 친구 정혁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사연이다.

중학시절 담임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여 한자리에 모여있었던 우리 동창생들은 그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었다.

《그래 정혁이, 자넨 정말 길을 함께 걷는 처녀

가 명희동무인줄 몰랐나?》

《처음엔 몰랐어. 그런데 말을 할수록 그런 짐작도 없지 않아 들더군. 하지만 까짓거 내친김에 제대군인배심을 부리었지.》

모두가 과연 엉큼하다고 손벽치며 웃었다.

누군가 정혁의 잔등을 철썩 갈기며 그것이 바로 우연히 이루어진 인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하지만 나는 달리 생각하였다.

참인간이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기마련이다.

그들사이에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었으니 그것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으려는 높은 뜻과 불타는 정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려는 고상한 정신세계였다.

이것으로 하여 그들은 서로를 긍정하였고 리해하였으며 결코 순탄치만 않은 인생길에 함께 갈 길동무로 정을 맺은것이 아니겠는가.그렇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선군시대가 낳은 량만적필연이었다.

어머니마음

김명옥

구구구—

병아리들이 뛰노는 마당가
토방앞에 모이를 주다가도
문득 그리운 아들 생각

농장일 끝내고 돌아온 저녁이면
보름달 등실 솟은 마당가에 앉아
순을 뻗쳐 싱싱하게 오르는
오이넝쿨을 봐도 시원한 땀국들며
기뻐하던네 모습 그려본다

아들아

지금 이밤도 너 저 달빛아래
강행군의 높고 험한
벼랑길을 뚫고있지 않느냐
무거운 장구류 추켜올리며
진펄길도 주저없이
너 앞장에서 달리고있지 않느냐

그득히 차오르는 어머니마음
네가 심고간 뒤울안의 앵두나무
뜨락에 무르익은 복숭아나무
너처럼 푸른 아지 펼치며
이 어머니품에 마주 달려와 안기는듯...
이슬맺힌 절감모

네 틀어진 총창의 서슬푸름으로 하여
내 집 뜨락가에 고운 꽃
망울져 피고
네 적서가는 후더운 땀방울로 하여
내 집 추너 내 집 기둥
억년 드놀지 않으리

그래서 이랑이랑 밭김을 매는
이 어머니 손에선 번개가 인다
안아 가꾸는 이삭마다 총알처럼 여물어
풍요한 고향의 벌이
무겁게 설레인다

알아다오 아들아
너 쉬여가는행군의 월참
네 얼굴을 스치는 바람결
이삭의 정겨운 설레임도
고향집뜨락에서
미덥고 장한 아들들의 모습 그려보는
어머니들의 뜨거운 마음인줄

선군을 명줄처럼 잇고사는
이 나라 녀인들의 말없는 진정들이
이밤도 조국의 산밭과 골짜기를 누비며
너의 대오를 따라서고있는줄

인생의 뿌리

허용삼

나는 전화의 불구름 헤쳐
승리와 영광에 넘친
년대와 년대를 넘어
오늘은 우리 장군님 펼치시는
선군시대에 살고있는 로병

세월은 흘러
포연에 그슬린 군복을 벗고
머리에 흰서리 덮이니
생각도 깊어지노라

걸어온 길 더듬어보니
깨끗한 량심으로
내 조국을 빛내인
위훈의 나날도 있었건만
더 어엿이 살지 못한 때도 있어
가슴아픈 후회속에
잠들지 못한 밤은 그 얼마

하여
내 생을 돌이켜보며
이제 걸어갈 길 많은 후대들에게
가슴속의 이 진정 터치고싶어
팔순나이 거쿨진 손에
펜을 들었노라

추억을 거슬러
전화의 그날
우리가 싸우던 불타는 고지에
내 먼저 오르노라

불과 불이 맞부딪치는
가렬치절한 격전
적들도 무리로 너부러지고
우리 전우들도
한사람두사람 쓰러졌다 총창을 비껴들고
돌격의 앞장에서 달리던

우리 소대장도
적의 화점을 까부시고
그만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스물두살 꽃나이 청춘을
조국을 위해 기꺼이 바쳤거니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신입병사였던 나의 마음속에
소대장의 그 최후의 모습이
오늘도 그대로 자리잡고있거니
내 생활의 거울이 되어
내 인생의 밑뿌리되어

정녕 그렇더라
자신의 생명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하는
그 고결하고 깨끗한 량심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심장이며
삶의 뿌리가 아니라

만일 그 누구든
인생길에서 량심을 저버리면
그는 벌써 인간이 아니거늘
그 혐오스러운 뿌리에서
종당에는 배신도 나오고
반역도 불의도 나와
인간아닌 추물로 변하리라

아, 오늘도 때없이 떠올려보는
불타는 고지
목숨을 바쳐 량심으로 몇몇한
나의 소대장은 이야기하네
어머니조국앞에
한생애 후회없이
량심으로 빛나게 살라고

상식

항가

우리 나라 중세기에 발생발전한 민족시가형식이다.

옛문헌기록들에 의하면 항가는 원래 우리 나라 고유말로 사뇌가라고 하였고 그후 사뇌가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그것이 향찰표기법에 의하여 씌여졌다는 뜻에서 항가라고 하였다. 항가의 대표적작품으로 《도술가》, 《풍요》, 《서동요》, 《혜성가》, 《제망매가》 등을 들수 있다.

나는 영원히 백두의 딸입니다 (외 2 편)

권성희

추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백두산대지를 정든 집 프락인듯
웃으며 오가던 돌격대의 숙소길
아침이면 환희롭던 백두산의 해돋이

태어나 처음으로 성스러운 백두의 땅에
내 손으로 땀흘려 새 거리를 세운 궁지
정을 담아 애지중지 옮겨심은 봇나무
정겨운 그 설레임 그립습니다
백두산기슭에서 첫 인연 맺은
돌격대동무들은 더욱 그립습니다

어머니처럼 언니처럼 오빠처럼
구운 감자 한알도 양보하던 그 정은
힘이 들어도 지치지 않게 한 동지애의 힘입니다
그 정이 이 가슴에도 샘처럼 고였습니다

정을 떠나서는 살수 없어
백두의 댁으로 하나가 된 돌격대의 정은
장군님사랑에서 시작되고 꽃이 핀것
조국땅에 활짝 꽃핀 수천만의 백두꽃은
그 어떤 광풍에도 지지 않습니다
나는영원한 백두의 딸입니다

백두의 해연은 사랑을 노래한다

나는 푸르른 백두의 밀림의 바다우에 날으는
해연
봄이 오면 봄이어서 달리는 이 마음
겨울이면 겨울이 와서 안기고만싶은 마음
가없이 넓고 푸르른 이깎숲
끝을 알수 없는 서리꽃의 그 세계

이미 나의 심장은
웅심깊은 그 세계를 호호합니다
백두는 이 해연의 심장에
시대의 맥박을 주었습니다

하기에

백두의 숨결로 뿜어주는 나의 심장에
백두의 뜻으로 살고 그 댁으로 이 땅에 바치는
사랑의 세월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나래 언제나 백두의 하늘을 날아
역경이 닥친대도 무섭지 않고
나의 하늘이 있기에
애어렸던 이 처녀의 마음도 강해졌습니다

백두에 영원히 심장을 맡겼기에
죽어도 그 품에만 깃들것입니다
백두의 댁으로만 자기의 생을 이어가는
나는 영원한 백두의 해연입니다

이것은 추억이 아닙니다

너울너울 다가드는 눈송이를 보느라니
집채같은 눈무지를 한손으로 거머쥐고
내달는 땡호마냥 휘—익— 소리치며
하늘향해 치솟는 백룡의 모습인듯 한
장쾌한 눈보라가 그립습니다
온갖 비겁하고 속된 리기심
백두산밀림에서 용용히 짓조기며
우리를 키워준 눈보라가 그립습니다

우리들이 자리궤 숙소건설보다 먼저
읍거리건설의 기초가 될 돌을 찾아
삼지연과 리명수 무봉과 대흥단
가없이 넓고넓은 백두산기슭에
발구전의 세찬 불길 지켰습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행군길속에
항일의 혁명군가 높이 부르며
백두산식솔이 되었습니다
이 가슴에 새겨진 추억이

어찌 백두의 눈보라뿐이라
흰눈 소복이 이고 다가오는 가로수를 보니
광풍속에서도 머리들고 미소짓던
사나이다운 용맹을 키워주고
은빛세계 이깎숲에 서리꽃을 피워주던
천지의 웅심과 자애가 그립습니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역세계 흐르며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속삭이던
소백수의 물소리가 마음에 울립니다

이것은 추억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순결한 마음으로
백두산돌격대 그 시절처럼 살라고
이 가슴에 맑은 거울을 비쳐주는
백두의 아름다운 은빛세계는
가장 깨끗하고 강의한 인간을 키우는
영원한 량심의 거울입니다

작가 리동규와 그의 창작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카프〉작가들은 작품에서 당대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주장하였으며 무산계급의 선각자를 전형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적리상을 표현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카프》의 프로레타리아문학은 일제의 식민지파썸통치하에서도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품들을 수많은 내놓아 해방전 우리 나라 진보적문학발전에 적극 기여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시는 항일무장투쟁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지난 시기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이 시기 《카프》의 아동문학도 자기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 반동적인 부르쥬아아동문학은 《카프》의 아동문학에 눌리워 고개도 못들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카프》의 아동문학이 이처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 근본요인은 《카프》의 아동문학작가들의 맹렬한 활동이다. 주체16(1927)년 《카프》는 전국대회를 열고 새로운 강령을 제시하고 재조직되었다. 이로써 비판적사실주의로부터 사회주의적사실주의로 창작적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카프》는 자기 산하에 아동문학조를 새로 내고 박세영, 리원우, 송영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편 근로소년들속에서 신인들을 선발육성하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이때 선발된 우수한 신인들중의 한 사람이 바로 리동규였다.

작가는 주체2(1913)년 서울의 어느 한 극빈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어린시절부터 나라앓고 수난당하는 겨레의 비참한 처지와 착취받고 억압받는 무산자의 설움을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성장하였다.

그는 13살때 가요《무산자아리랑》을 발표하여 문단과 첫 인연을 맺었으며 그후 고된 소년로동속에서 반일의식, 계급의식을 자래웠다.

주체17(1928)년 《카프》에 가입한 작가는 로동운동이 급격히 양양되고있던 당시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작품창작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이 시기 프로레타리아아동문학발전에 적극 기여하였다. 그는 1930년대 전반기에만도 동요《조선아기의 노래》〔주체19(1930)년〕, 《옛집》〔주체19(1930)년 3월〕, 《자랑》〔주체19(1930)년 9월〕, 《동무》〔주체19(1930)년 12월〕, 《노래를 부르자》〔주체20(1931)년 9월〕, 《이어러차》〔주체20(1931)년 12월〕, 《버를 심어》〔주체21(1932)

년 1월〕, 《일터의 노래》〔주체21(1932)년 4월〕, 《행렬》〔주체22(1933)년 6월〕, 《전보대》〔주체23(1934)년 2월〕와 아동소설《나무군》〔주체20(1931)년〕 등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여 재능있는 아동문학작가로 뚜렷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작가는 이 시기 《카프》아동문학의 주제탐구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초기프로레타리아아동문학은 분산적으로 활동한데다가 작가들의 사상적제약성으로 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과 계급적모순의 해부가 예리하지 못한 부족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작품의 주제사상을 직선적으로 출시키는 생경한 어휘들을 람발하여 예술적가치를 적지 않게 상실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로소년들의 전투적단결과 투쟁정신을 호소하는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프로레타리아아동문학의 기본주제사상적경향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는 계급적으로 각성된 무산아동들의 조직적인 투쟁세계를 기본주제로 하여 작품창작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그의 작품의 공통된 주제는 우선 무산아동들의 계급적단결과 조직적인 투쟁세계이다. 이 주제는 이 작가만이 아니라 일제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했던 당시 우리 아동들의 시대적감정을 담기 위해 노력한 진보적작가들의 창작적지향의 반영이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아동문학의 주제탐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었으며 《카프》아동문학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바로 여기에 리동규 아동문학작품의 주제의 적극성, 진보성이 있으며 《카프》아동문학에서 차지하는 그의 문학사적지위가 있는것이다.

작가는 또한 자기의 작품들에서 로동계급의식에 기초하여 현실을 보고 대하는 선진적인 리상의 체현자—새로운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그의 작품들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성격적특질은 사회제도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착취계급에 맞서나서는 항거와 투쟁정신이다. 이것은 대중투쟁이 양양되던 당대의 사회적 환경이 낳은 성격의 시대적특성이다. 단순한 불행의 수난자가 아니라 계급적압박과 착취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여 나서는 항거자의 형상은 피압박무산아동들의 자주의식을 새로운 높이에서 형상화한것이다. 여기서 주목할만 한것은 주인공들의 계급적각성과정을 그들이 처한 사회계급적관계속에서 나타나는 생활적인 계기들과 결부시켜

보여준것이다.

이것은 이전 시기는 말할것도 없고 동시대의 작가들속에서도 얼마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형상이었다.

동요 《벼를 심어》에서는 빈부의 차이로 인하여 빚어진 현실의 모순을 심각한 생활적계기를 통하여 인식해나가는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벼를 심고 가꾸어 가을에 잘 살아 불가 하는 소박한 꿈이 산산이 깨어져나가는 계기를 통하여 당대 사회제도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에 넘쳐있는 무산아동들의 계급적자각과 각성과정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동요 《행렬》에서는 한결음 더 나아가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호소하는 선각자의 모습을 형상하였다.

울언니도 깃대 잡고
너도나도 깃대 잡고
휠— 휠— 나아간다
척— 척— 나아간다

우리 동무 일천동무
모두모두 백만동무
한데 뭉쳐 나아간다
뫼렁이채 나아간다

창취계급에 항거하여 나서는 무산아동들의 투쟁의식은 그들이 극빈한 생활처지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체협세계와 련결되고있다. 피땀흘려 일하는 노동생활속에서 그들은 생활의 모순을 발견하고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며 점차 항거어로 소개

나가게 되는것이다. 더는 살래야 살수 없는 막다른 처지에서 자기들을 못살게 구는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투쟁에 나서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생활의 논리, 성격의 논리가 아닐수 없다.

작품에서 이처럼 사회적불평등과 예속을 반대하여 떨쳐나서는 투쟁정신을 주인공성격의 주도적특질로 형상화한것은 무산아동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일정하게 이바지한것으로 하여 의의를 가진다.

작가는 이밖에도 당대 사회제도하에서 신음하는 무산계급의 불우한 처지를 동정하고 모순된 사회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한 《어느 한로인의 죽음》, 《여름》 등 일련의 가치있는 단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소설들은 일반적으로 언어묘사가 진실하면서도 간결한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그는 또한 반동적부르조아문학에 대한 비평활동을 통하여 이 시기 프로레타리아문학의 계급성을 철저히 옹호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물론 작가는 해방전 창작활동에서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지 못한탓으로 하여 창작상 일련의 부족점도 나타내고있다. 그러나 조선민족이 가장 엄혹한 수난을 겪던 그 시기 일제의 식민지파쑸폭압에도 굴함없이 창작활동의 전기간 험벗고 굶주리는 무산아동들의 운명을 깊이 동정하고 그들의 사회적해방을 이룩할것을 주장함으로써 작가적면모와 개성을 잘 나타내었다.

작가는 해방후에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진정한 창작의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적인 문필활동을 벌려 단편소설 《눈》, 《그전날밤》 등 여러편의 우수한 작품들을 남기였다.

림영주

중세문학의 한페지를 장식한 고려 말기 시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찬란한 문학예술유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며 민족문화예술을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단군조선으로부터 이어온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에는 동족의 나라를 하나로 통합한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이름도 새겨져있다.

《고려》라는 이름은 고구려에서 유래된것이였고 고려사람들은 민족통일을 지향한 고구려의 위업을 계승한것을 자랑으로, 민족적긍지로 여기였다.

고려시기 문학은 력사적발전에서 획기적사변으로 된 이러한 사회력사적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다.

고려시기 문학발전에서 획기적성과가 이룩된 시기는 고려말기이다.

고려말기는 《상승기》, 《안정기》라고 하는 전반기와 구별되게 봉건통치제도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외세의 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던 시기이다.

고려말기 문학은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당대의 복잡하고 첨예한 현실생활을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전반기와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면서 발전하였다.

고려말기 문학에서 특징적인것은 사실주의경향이 뚜렷한 사조적현상을 이루고 발전하는 과정에 주제령역이 확대되고 사회적성격이 현저히 강화된것이다.

이 시기 시문학에서 표현된 생활반영의 사실주

의적경향은 무엇보다먼저 착취받고 억압당하는 인민들의 도란에 빠진 생활과 부패무능하고 탐욕적인 통치배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는 작품들이 많이 창작된것이다.

윤여형의 시 《도톨밤의 노래》, 홍간의 시 《가난한 너인의 노래》, 최해의 시 《삼월 스무사흘날 비가 내린다》, 리곡의 시 《사자의 웨침》, 정추의 시 《욕심많은 관리들》 등은 봉건통치배들의 그릇된 정사와 탐욕성으로 하여 빚어지는 온갖 사회적모순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들이다.

오늘도 전해지고있는 《도톨밤의 노래》는 이 시기 근로인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결부하여 진실하게 묘사하면서 그들의 운명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대표적작품이다.

시는 사라구보다 쓰고 숫갈이 검은 도토리들 밤과 같이 달게 먹으며 도토리를 주으러 이른새벽부터 험산속을 헤매야 하는 농촌마을 늙은이의 눈물겨운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

농사집의 늙은이들
점심밥을 끓여지고
첫새벽 닭소리를 들으며
도토리를 주으러 가는구나

몇만길 드높은

산벼랑에 기여올라
원숭이떼들과 다투면서
매일 이것을 주어야 하네

...

보는바와 같이 시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참혹한 농촌의 실태와 농민들의 고통을 진실하게 그려보이면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시의 마지막부분에서는 《쓸쓸히 울리는 늙은이의 말/이야기는 짧고 소박하나》, 《다 듣고나니 대답할 말 없어/마음은 아프고 목은 잠기여라》고 하면서 농촌은 황폐화되고 농민들의 피땀을 짜내는 통치배들을 참을수 없는 격분속에 규탄하였다.

고려 말기 시문학에서의 사실주의적경향은 또한 반침략애국주의를 사실주의적으로 깊이있게 반영한 작품들에서도 표현되고있다.

고려 말기에는 거듭되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제기되었으며 고려사람들의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감정도 간고한 반침략투쟁과정을 통하여 더욱 고조되었다.

리제현의 일련의 작품들과 함께 정추의 시 《밤에 우는 개구리소리》, 김구용의 시 《기해년에 흥

두군이 쳐들어왔다》, 설손의 시 《다듬이질하는 너인의 노래》 등은 이 시기에 창작된 애국적주제의 대표적작품들이다.

정추의 시 《밤에 우는 개구리소리》는 왜놈들이 강화도에 침입하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일을 걱정하는 심정을 국방을 등한시한 통치배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과 결부하여 노래한 작품이다.

잔잔한 비소리는
처마끝에 잠깐 멎고
가물가물 꺼지려던
등불은 다시 밝네

집의 남북쪽에서 울어대는
와글와글 개구리소리
너도 밤새 우는구나
나라일 근심이나 네 시름이나

...

들을수록 숙연해지는
노기가 섞인듯 한 너의 울음소리
세차게 불러일으키누나
세상을 걱정하는 내 마음을

...

시에서 처마끝에 들리는 잔잔한 비소리, 가물거리는 등잔불, 사방에서 밤새 울어대는 노기섞인듯한 개구리울음소리는 서정적주인공의 심리세계를 형상적으로 부각시키고 왜적에 의하여 온 강산이 다시금 짓밟히고 사람마다 피흘리며 간고한 싸움을 벌리고있는 엄혹한 현실을 애국적정서로 보여주고있다.

애국심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상감정이다.

자기의것, 자기 조국의 모든것을 사랑하는데서부터 애국의 감정이 싹트고 자라는것이다. 이 시는 고려인민들의 고상하고 순결한 애국심을 진실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이 시기의 시단을 빛나게 장식하고있다.

고려 말기에 창작된 반침략애국주의작품들은 외세의 거듭되는 침략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고려사람들의 강毅한 의지와 애국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사실주의적시문학을 풍부하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오늘도 우리 민족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며 단군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는 고려 말기의 문학유산은 길이 전해지고있다.

조준국



리성덕

1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인 1906년 병오년은 을사년 이듬해이다. 어쩌서 그저 병오년이라고 하지 않고 부디 을사년을 거들어서 그 이듬해라고 하는가.

병오년이란 간지의 순차에 따라 60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보통해에 지나지 않지만 을사년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잊혀질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되는 그런 운명적인 해이기때문이다.

이 나라 사람치고 부모의 제사날을 잊은 사람은 혹시 있을수 있으나 왜놈에 의해 《을사5조약》이 날조된 이 원한의 을사년을 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을사년을 넘긴지 겨우 여덟달이 지난 그해 8월 18일, 흐린 하늘에 짓눌려 무겁게 굽실거리는 남해의 검은 물결을 가르며 배 한척이 떠가고 있었다.

피눈물과 통곡과 비분의 덩어리로 변해버린 이 땅을 뒤에 두고 남동쪽으로 떠가는 배 선창안에 갇혀있는 여라문명 잘되는 사람들... 어느 외진 섬으로 귀양을 가는 《죄인》들인듯...

사람들은 모두 옷이 찢기고 상투가 풀어진 맨머리바람인데 좀 체소해보이는 로인 한사람만은 상투도 풀리지 않고 망건을 쓴채로이다. 옷모양도 과히 허술치 않아 지체높은 량반인듯...

배가 부두에 벗어나자 멀미에 시달리던 그 체소한 늙은 량반이 옆에 앉은 사람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딘가?》

《예, 아까부터 왜놈들이 지껄이는 소리로 짐작해보면 대마도인듯 합니다.》

《대마도라구?!...》

체소한 늙은이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분노에 떨리었다.

《어쩌서 하필이면 우릴 왜땅으로 실어왔단 말인가?》

《선생님이 잡힌 소식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는게 안심치 않으니 말썽없을 체놈들의 섬으로 실어온 듯 합니다.》

《흥, 간특한 왜놈들...》

늙은 량반은 뼈를 깎아내는듯 한 아픔에 젖은 처절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붓고나서 다시는 열지 않으려는듯 입을 꼭다물어버렸다.

설피고 흰 턱수염만 후들후들 떨고있었다. ...

배에서 내리자바람으로 《죄인》들은 왜놈들의 수감소로 끌려갔다.

수감소는 쓰시마(대마도) 이시하라에 있는 낡은 제사공장건물인데 이전에 일본사무라이가정의 녀성들에게 기능전습을 시키던 곳이었다.

수감된 첫날, 수비대장이 병졸 두엇을 데리고 수감소에 나타났다.

조선에서 의병대 대장이고 량반유학자인 큰 인물이 호송되어가니 엄중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은바 있는 수비대장은 긴 칼을 앞에 짚고 두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서 사나운 눈길로 수감자들을 살펴보고 물었다.

《누가 최익현인가?》

통역말은 병졸이 조선말로 번져주었지만 응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등을 돌려대고 앉은채 불이 이는듯 한 눈길로 한번 훑어보았을뿐 앉은 자세를 조금도 고치지 않았다.

그러자 수비대장은 칼끝으로 이사람저사람을 번갈아 짚어가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물었다.

《넌가? … 넌가?》

그래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그 체소한 량반을 가리키면서 《네가 최익현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지명된 사람은 응대가 없고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대신 대답했다.

《그분이 조선의 유명한 유학자이며 의병대 대장인 면암 최익현선생이시다.》

《음… 그런가? 그런데 큰 유학자라는자가 레절도 모르는가?》

최익현은 못 들은척 그대로 올방자를 틀고 돌아앉아있었다. 그의 이러한 태도에서 일종의 무시를 느낀 수비대장은 병졸들에게 명령했다.

《일어서서 인사를 하게 하랏!》

《핫!》

《저 머리에 쓴것도 벗겨라!》

《핫!》

왜병 두놈이 총창을 비껴든채 다가들었다. 그러자 최익현이 별안간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치면서 벼락같이 소리를 내질렀다.

《이—노—음—!》

높고 체소한 사람이 그 어디에서 이렇게 찌렁찌렁 울리는 호통소리가 터져나오는지 놀라왔다.

《이놈들, 무엄하게 어디라구 감히…》

병졸들이 주춤 서버리자 최익현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내 의병을 이끌고 총칼로 네놈들과 싸우다가 불행히 잡혔으니 네놈들과 나는 원수일뿐이다. 원수사이야 레절이란 웬말인가?… 내 살아있는 한 네놈들의 법을 따를것 같으나. 인사 같은것은 바라지도 말라!》

그래도 병졸들이 총창을 꼬나들고 다가와 망건을 벗기려들자 최익현은 저고리앞자락을 와락 헤치면서 앙상하게 드러난 동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두드렸다.

《이놈들, 여길 먼저 찢러라! 그다음에 망건을 벗기려거든 벗겨라만 그전에는 내 머리털 한오리 다치지 못한다! 네놈들이 내 한몸은 없앨수 있되 2천만 우리민족은 없앨수 없다. 나의 한 마음을 꺾어 우리 2천만의 굳은 마음에 상처를 내려함을 내 모르는바 아닌데 원수앞에서 마음을 굽힐줄 아느냐. 어서 찢러라!》

최익현의 두눈에서 불길이 펄펄 이는듯 했다. 그 기상에 놀리워 낮빛이 하얗게 질린채 한동안 안절부절하며 서있던 수비대장은 절격 소리나게 긴 칼을 감아쥐더니 《좋다, 어디 두고보자!》라고 한마디 내뱉고는 나가버렸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마음 후련해하였다.

올방자를 틀고 도고하게 앉아 몸가짐이나 얼굴 표정 하나 흐트리지 않고있는 로의병장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 개인의 강직한 성격과 함께 총칼로써도 꺾을수 없는 조선사람의 자존심과 존엄을

보았던것이다.

그날 저녁때였다.

다른 때 같으면 공연히 생트집을 걸어서라도 수감자들을 못살게 굴었을 왜놈간수가 최익현의 쪽을 흘끔흘끔 살피면서 보리밥그릇을 멀찍이 밀어놓고 아무 행패도 못하고 가버리는것이였다.

범의 굴에 들어가도 체 정신을 잃지 말겠다고 나라가 망하게 된 이 마당에서 조선사람된 자존심과 존엄마저 스스로 버리고 왜놈들에게 굽어드는것보다 더 어리석은것이 어디 있을것인가.

수감자들은 모두가 왜놈간수들앞에서 의젓이 행동하려고 애썼고 때식때가 오면 자기에게 차례진 얼마 안되는 보리밥덩이를 갈라내어 최익현의 밥그릇에 모아놓으면서 성의를 표시하였으나 최익현은 음식그릇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

《대장님, 로약하신 몸을 보전하자면 험한 서숙 밥일지라도 조금씩 드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극진히 청하자 최익현은 빙그레 웃었다.

《고맙네. 내 나이 일흔을 넘겼는데 적국에서 주는 밥을 받아먹으면서 구차히 더 살 생각이 없네.》

《아니,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만 자네들은 스러져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살아야 하고 의병을 다시 일으키고 내 뼈를 주어다가 고국땅에 묻기 위해서라도 꼭 살아남아야 하네. 일시 강한체 하나 왜놈들은 남의 집에 뛰어들어 도적이요, 우리는 제집을 지키는 주인일세. 주인이 도적을 겁낼 까닭이 없네. 아무리 역경속이라 해도 나갈 길은 반드시 있을것이고 하늘이 또한 무심치 않을것이니 조금도 낙심말게.》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수감소 담너머 어디서인가 밤부엉이 우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푸르스름한 달빛이 창살을 어루만지며 수감소 안으로 비쳐들었다.

2

최익현은 벽에 의지하여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한발 먼저 수감소에 와 갇혀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의 제자들이거나 아는 사람들이였다.

그들이 맨바닥일망정 밝은 창결에 자리를 꾸려주어서 몸은 불편없이 누웠으나 마음은 가실길 없는 시름으로 가득차있었다.

문득 전라도 태인에서 제자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던 때의 일이 우렷이 떠올랐다.

왜놈들에 의해 《을사5조약》이 날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나라가 죽가마끓듯 하는 가운데 을사년이듬해 1월에 영양에서 김순현이, 4월에 평해에서 신돌석이 의병을 일으키고 뒤따라 충청

도 정산, 청양, 보령, 레산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최익현은 의병을 일으켜 원수를 칠데 대한 상소를 임금에게 올리고 제자 림병석과 함께 무성서원에 들어가서 의병을 일으키는 취지를 밝힌 격문을 발표했다. 그 격문에 호응하여 수백여명의 제자들이 모여오자 6월 5일을 기하여 부대를 이끌고 호남으로 진격하여 정읍을 쳤다. 정읍에 주둔하고있던 왜놈수비대를 죽치고 군청을 습격하여 식량과 무기를 빼앗고 죄없이 갇힌 고을백성들을 석방시켰다. 뒤이어 순창, 담양, 곡성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고을마다에서 백성들이 호응해 일어나자 왜놈수비대와 군청관리들은 다 도망치고 몇명 안되는 고을군사들은 모두 의병에 넘어왔으므로 변변한 싸움도 해보지 못하였다. 이런 기세로 휩쓸어나가면 며칠어간에 전라도는 의병의 손에 들어오게 될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의병대참모 림병석이 급히 대장청으로 들어와 알리었다.

《전주와 남원에서 관군이 출동했다는 급보가 왔소이다. 전라도관찰사 한진창이 전주진위대와 남원진위대를 이끌고 순창으로 향했다 합니다.》

《뭐, 관군이?》

최익현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관군과 싸우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것이다.

《확실한 통보냐?》

《틀림없는 소식입니다.》

중군(부대장격의 지휘관)이 흥분으로 가슴을 들먹거리면서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나라를 건지려고 일어선 의병을 나라가 스스로 군대를 내몰아 꺾으려 한단 말인가?》

《왜놈들이 강요하면 군부대신도 별수 없을것입니다.》

중군과 참모가 번갈아가며 사태의 절박성을 납득시키려 하였지만 최익현의 귀에는 그들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다.

아무리 왜놈들이 강요해도 그렇지... 군사를 출동하는 일은 크나작으나 다 황제의 허락을 얻어야 할터인데... 그렇다면 폐하께서 관군의 출동을 허락하시었던 말인가?...

최익현은 모든 일에서 사리에 밝은 참모 림병석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림군, 아무래도 이 사태를 폐하께 상주하여 관군을 돌려세우게 해야겠네.》

림병석의 얼굴에 난처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럴 여유도 없거니와 일단 정의의 총칼을 들고 나섰으니 싸워 이길 방책을 세우는것이 급한 일인줄 압니다.》

《싸우다니?... 관군과 싸운단 말인가? 그것은 폐하의 뜻도 아닐게고 우리의 뜻도 아닐세.》

《이제 와서 폐하의 뜻을 쫓는다 하여 들었던 총칼을 거두겠습니까?》 《무엄한 소리로다!》

최익현의 목소리가 노기에 떨리었다.

《폐하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는 의병이 아니라 역적이 되네.》

그러자 림병석의 얼굴빛이 컴컴해지면서 숨결이 거칠어졌다.

《백성의 힘을 믿지 않고 왜놈들의 요구에 순응하면 우리가 도리어 역적이 됩니다.》

《뭘라구?!... 역적...》

최익현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림병석을 쏘아보았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래 임금의 뜻을 따르면 역적이 된다는게 사서삼경 어느곳에 적혀있더냐? 예끼, 배은망덕한...》

부들부들 떨던 최익현의 손바닥이 림병석의 볼에 날아가 철썩 떨어졌다. 림병석은 말없이 고개를 푹 떨구었으나 숨결도 말투도 거칠어졌다.

《그런게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라구? 이 면암에게는 그런 제자가 없다!》

최익현은 무섭게 발을 굴렀다.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옆에 서있던 중군과 유격장, 선봉장, 후봉장들이 의병장의 노염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

늙은 의병장을 조심히 부축하여 앉히고 관군의 출동에 대처할 일을 의논하려고 하였으나 무거운 분위기는 좀처럼 가시지지 않았다.

왜놈수비대가 들이닥치면 치되 관군이면 응전하지 말라는 의병장의 령이 내려졌을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채 새날이 밝았다.

아침해가 퍼질무렵에 벌써 의병들의 진을 에워싸며 관군이 쳐들어왔다.

최익현은 급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의병들을 일단 뒤로 물러서게 한 다음 관군지휘관인 한진창에게 사람을 띄워 동쪽끼리 싸우지 말고 나라를 먹으려드는 왜놈들과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관군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응전하지 말라는 대장의 명령이 떨어졌기에 이리지도저리지도 못하고있던 수많은 의병들이 체포되고 의병장의 서기였던 정시해는 목숨까지 잃었다. 이때 관군의 진에서 군관 한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와 의병대 진중에 통첩 한통을 던지고갔다.

《대역부도죄인 최익현은 투항하라. 투항하지 않으면 포로들을 다 죽일것ियो, 투항하면 살려보낼것이다.》

관찰사 한진창의 통첩을 한손에 구겨쥔채 먼하늘을 망연히 바라보며 서있는 최익현의 흰 수염이 거칠게 흘날렸다.

딱 힘주어 감은 주름잡힌 눈시울이 진정할길 없는 마음인양 푸들푸들 떨렸다.

내 한목숨은 주저없이 칼날우에 내던질수 있으나 저들의 아까운 생명을 어찌 값없이 버리게 하랴.

최익현은 결연히 머리에 없었던 전립을 벗어 땅바닥에 힘껏 내던지고 허리에 찼던 칼은 칼집채 끌려 높이 쳐들며 달려드는 관군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이 찾는 최익현이 여기 있다. 나를 묶어 가되 총질을 하여 인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

옆에서 의병장을 호위하던 림병석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통곡을 터뜨렸다.

《아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어찌 동족끼리 죽일내기를 하겠느냐. 군력이 약한탓에 나라가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른줄 폐하께서도 아시거늘 어찌하여 의병의 힘을 쓰려 하지 않고 도리어 꺾으라 하셨겠느냐. 차후에라도 그 연유를 꼭 알아보겠으니 그만 진정하고 나를 따르게.》

그러나 림병석은 고개를 쳐들고 불이 이는듯한 눈길로 쏘아보며 웨쳤다.

《백성의 힘을 믿고 자기의 총칼을 믿어야 합니다. 이 림병석이는 혼자서라도 왜놈들과 싸우겠으니... 선생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제자가 아니라마십시오.》

말을 마치자 그는 달려드는 관군을 피하여 제 빠르게 산비탈쪽으로 몸을 감추었다.

그 순간에 관군이 아무 저항도 없는 의병대진중으로 우르르 밀려들었다.

의병장 최익현과 함께 십여명의 지휘성원들이 관군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서울에서 최익현은 매일같이 황제를 알현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죄인》의 《외람된》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다.

명망높은 유학자이고 의병대장인 최익현의 차후처리를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있던 친일피퇴 정부는 끝내 시끄러운 일을 피하기 위하여 체포된 의병들을 일본헌병대사령부에 넘겨버리었고 일본헌병대 역시 그들을 조선땅에 두는것은 불안한 일이라고 여기고 비밀리에 쓰시마로 옮겨버리었다. ...

추연한 눈길로 살창밖에서 비쳐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최익현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백성의 힘을 믿고 자기의 총칼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피타게 웨치던 림병석의 말이 왜서인지 잊혀지지를 않는다.

돌이켜보면 이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한것은 벌써 저 올해(1875)년에 왜놈들이 일으킨 《운양》 호사건에 강경대처하지 못한 그때부터였다. 그 탓에 이듬해에 왜놈들과 굴욕적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르렀으니 그것이 나라의 명줄을 조이는 울가미인줄을 왜 그때 벌써 깨닫지 못했더라 말인가.

왜놈들이 개항과 통상, 거류지설치와 해상측량을 구실로 부산과 덕원(원산)항에 군함까지 끌고 들어와 위협할 때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강화할 대신왜놈들의 강요게 못이겨 겨우 유지하던 다섯군영마저 철폐하고 《무위》, 《장어》 두 영만 남긴데다가 일것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조직하고서도 일본군교관에게 훈련을 맡겨버렸으니 그 군대가 어찌 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로 되겠는가.

량반유생들로부터 발가는 농군들과 장거리 아낙네들에 이르기까지 왜놈에게 당하는 민족적수모를 참을수 없어 도처에서 들고일어났다.

령남의 량반유생 만여명이 《위정척사》(바른 학문을 지키고 간사한학문을 물리치다)의 구호를 들고 나라를 팔아먹는 조정관료들을 규탄하는 《령남만인상소》운동을 벌린것이며 정부가 일본관리들이 오가는 길을 막거나 돌을 던지는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공포했으나 한성(서울)시민들이 일본공사 하나부사놈에게 돌벼락을 안긴 일이 벌어졌던것도 다 이때의 일이었다.

나라 도처에서 백성들이 왜적을 치자고 들고일어나던 때인 임오(1882)년에 마침내 군란이 터졌다. 무장을 든 군인들이 왜놈군사교관을 쳐죽이고 일본공사관을 들이쳤으며 창덕궁에 들어가 나라를 파는 령의정과 병조판서를 처단하였다. 하지만 군란평정을 구실로 명성황후일당이 청나라군대를 불러들이자 그에 대응하여 일본이 또 군대를 들이밀어 결국 이 나라는 청나라와 일본의 무력대결장으로 화하였는데 정부는 남의 집에 뛰어들어 미쳐날뛰는 이 큰 도적들을 몰아낼 대신 도리어 《비전즉화 주화대국》(싸우지 않으면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곧 대국이다)이라는 피타는 웨침을 비석에 새겨 만년자손에게 나라를 지켜 싸우라고 경고하던 척화비를 다 철수하라는 령을 내렸으니 이로 인하여 정부의 목인밑에 도적무리에게 빼앗이 나라의 대문을 열어주는 전례 없는 사태가 빚어지고말았다.

문을 열어주자 일본, 청나라만이 아니라 그뒤를 따라 영국, 미국, 로씨야, 도이췌란트, 프랑스, 이딸리아... 헤아릴수 없는 서양제국들이 불가사리 떼처럼 달려들어 제각기 조약체결을 강요하면 하는데로 호박에 말뚝박기로 《조영수호조약》, 《조도수호조약》, 《조일통상장정》, 《조이수호조규》, 《조로수호조규》, 《인천제물포 각국조계장정》등이 체결되어 이 나라는 별거벗겨진채 탐욕스런 도적의 발치에 아주 내던져지고 말았다.

개화파가 이런 시국을 바로잡아볼가 하고 동분서주하면서 갑신년에 정변을 일으켰다가 그 역시

왜놈들의 모략행위로 좌절되고 물밀듯 쓸어드는 서학(그리스도교)을 막고 민족의 일을 지켜보려고 동학을 일으켜세우고 《척양척왜》, 《보국안민》, 《폐정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수십만 농민들이 무장을 들고 일어나 《동학란》이라는 일대 결전을 벌였으나 그 역시 청, 일 양군의 간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채 주저앉고말았다. 《동학란》 평정을 구실로 쓸어들었던 청나라군대와 일본군대는 드디어 조선을 독차지하려고 서로 맞붙어 싸우기에 이르렀으니 《청일전쟁》의 와중에서 《갑오개혁》은 실패하고 《척양척왜》를 주장하던 《동학란》도 전봉준의 체포처형으로 아쉬운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청일전쟁에서이긴 일본이 더욱 강도적인 요구를 들이대자 사면초가에 빠진 명성황후일파는 로씨야의 힘을 빌어 일본을 견제해볼가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로씨야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눈치를 알아차린 왜놈들은 명성황후일파를 정권에서 몰아내려고 압력을 가하다가 끝내 을미(1895)년 8월 왕궁에 쳐들어가 《을미사변》이라는 천추에 용서 못할 야만행위를 감행하였다.

간악한 왜놈들은 로씨야세력을 밀어내고 이 땅을 독차지하려고 갑진(1904)년 2월에 로일전쟁을 도발한 다음 아무 꺼리낌도 없이 군대를 들이밀어 이 나라를 무력으로 타고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을사(1905)년 11월 17일 궁성 남쪽 왜성대언덕에 왕궁을 향해 대포를 걸어놓고 황제와 여러 대신들을 위협하면서 《을사5조약》을 날조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을사5조약》의 날조로 이 나라는 일본의 통감 통치를 받는 완전한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고 반만년력사국이 하루아침에 자주독립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오호, 분노와 오열에 떠는 삼천리강산이여, 하늘에 사무쳐가는 2천만의 방성대곡(목놓아 크게 우는)소리여!

온 나라가 줄지에 상가집으로 변한 가운데 량반유생들로부터 시작하여 물지게군들과 저자보려나왔던 러염집아낙네들까지 모두가 왕궁문앞 맨땅에 엎드려 《조약》폐기와 매국역적의 처단을 호소하였다. 그 기세에 눌린 정부관리들도 앞을 다투어 사임상소를 올리고 각기 흩어져가니 그 정상이야말로 왜놈에게 짓밟혀 숨겨가는 이 나라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였으랴.

아, 면암! 그대도 이 나라 백성중의 한사람이였거든 나라가 숨을 거두는 그때를 당하여 어디 가 무엇을 하고있었더냐. ...

최익현의 주름잡힌 눈곱에서 소리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달빛에 번뜩이였다.

을사년이 저물어가던 그 시각 충청남도 정산면 외진 시골에서 을사《조약》날조소식을 들은 최익현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허둥지둥 한성으로 달려왔었다. 와보니 시종무관장 민영환이 《조약》폐기와 5적처단을 바라는 상소를 올렸으나 칙령이 내리지 않자 비분의 눈물을 뿌리며 《2천만동포에게 영결의 말을 고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뒤였고 특진관 조병세는 조정의 관리들과 함께 황제에게 올리는 상소문무음과 각국 공사관에 보내는 항의문, 5적을 규탄하는 탄핵서를 앞에 놓고 한겨울의 차가운 맨땅에 거적을 깔고 엎드려 상소를 벌리고있었다.

최익현은 찬바람부는 대한문앞 상소현장에서 조병세를 만났었다.

두사람은 조상집에 온 사람들처럼 만나자바람으로 서로 팔소매를 부여잡고 땅을 치며 큰소리로 곡성을 터뜨렸다.

당년 78살의 조병세는 최익현보다 나이로 보아도 여섯살 선배요 벼슬로 보아도 대사성, 대사헌, 판서를 력임하다가 궁내부 특진관에 이른 황제측근의 중신이었으나 자기보다 4년 먼저 문과에 오른 최익현을 학문이나 식견으로 따를수 없다고 하면서 늘 높이 대해주었다.

《면암도 기막힌 소식을 들었을테지?》

《예, 피눈물로 들었소이다.》

최익현은 눈물에 젖은 조병세의 흰 수염과 추위에 얼고 썩 초췌해진 그의 얼굴을 뜨거운 눈길로 더듬으며 물었다.

《폐하께서는 이번 일을 어떻게 수습하실 의향이신가요?》

조병세는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도 폐하를 뵈온지 오래 되었네. 폐하께서〈조약〉체결을 운허(승인)치 않으셨다 하니 어찌하실런지... 민영환의 상소에 칙령 한마디 내리지 않은걸 보면 강경대처할 용단은 못 가진듯 하네만...》

《그렇다고 신하되고 백성된 몸으로 어찌 함구무언하며 속수무책으로 나라 망하는걸 앉아서 보고만 있겠소이까?》

《그래서 모두들 이렇게 거적을 깔고 엎드리기에 이른것이네만...》

조병세는 더 말을 잇지 않았지만 최익현은 그에게서 황제에게 큰것을 바랄것이 없음을 벌써 오래전에 깨달은 사람의 태도를 느낄수 있었다.

최익현에게도 그 비슷한 체험이 있었다. 황제를 처음 알현했을 때였다.

그때가 갑진(1904)년 1월이였으니 겨우 한해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엇그제의 일이었다.

...멀리 충청남도 정산시골에 묻혀있다가 황제

의 부름을 받은 최익현은 덕수궁에 입궐하였다.

액정서관리들의 안내를 받으며 곤장 중화전으로 향하였다. 황제가 정사를 보는 정전이니만치 전문(전각으로 드나드는 대문)부터 들썩 높고 화려하였다.

돌로 포장된 앞뜰에 들어서니 연도 량옆에는 조희때마다 좌우에 벌려서는 신하들의 벼슬등급을 표시하는 돌패가 줄지어 서있는것이 보였다. 그 동북쪽과 서북쪽으로 함녕전, 관명전, 즉조당이 둘러서고 그밖의 크고작은 전각들이 사방에 즐비하였다.

중화전 섬돌우에 올라서서 룡상앞에 조심히 나가 었던 최익현은 우선 나직이 아뢰었다.

《신 최익현 삼가 문안드리웁니다. 옛사람들은 처음 섬돌에 올랐을 때 임금의 얼굴을 보겠다는 청을 드렸다 하는데 신도 아직 성상의 얼굴을 알지 못하오니 머리를 들어 감히 한번 룡안을 뵈었으면 합니다.》

너무도 뜻밖의 청이었던지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던 룡상쪽에서 가냘퍼보이는 황제의 옥음이 들려왔다.

《바라볼것이다.》

최익현은 가슴이 후두두 뛰는것을 느끼었다.

아, 신하로서 감히 임금을 마주 바라본다는것이 외람된 일인줄 어찌 모르랴. 하지만 70나이를 넘긴 이날까지 마음속으로나 행동으로나 단 한번도 거역하거나 못마땅히 여겨본적이 없고 한생을 충의를다해 받들어야 할 절대적인 숭배의 상대를 한갓 관념상으로 우상처럼 간직하는데 만족할수 없는 마음이었다.

《충군》은 유학이 내세운 학리나 명분이기 전에 애국이었고 실천이었고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있는 그였다. 때문에 임금의 존재를 현실로 느끼고 감각하고 마음속에 생동한 실체로 간직하고싶은것이 외람된 청을 드린 이유였다면 이유였다고 할지...

최익현은 천천히 머리를 들면서 룡상쪽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처음 보인것이 금실로 수놓은검은 목화를 신은 황제의 발이었다. 그다음은 무릎을 덮은 자황색비단으로 지은 곤룡포자락... 그다음은 가슴노리에서 번쩍거리는 각피... 앞가슴과 두어깨와 잔등에 발톱 다섯을 가진 두마리의 룡을 금실로 둥글게 수놓은 화려한 룡틀임... 그다음은 사모를 눌러쓴 누르스름하고 약간 부석부석해보이는 얼굴, 설편수염...

(아, 황상마마!)

최익현은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백성들은 감히 쳐다볼 엄두도 못내도록 신성시되어온 임금의 얼굴, 보통말로는 부르지 못하고 반드시 《룡안》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 얼굴은 무

작정 남다르려니, 남다를뿐아니라 무작정 남달리 뛰어났으려니만 믿어왔었다. 그런데... 너무도 범상하고 표정이 없고 엄숙하거나 비범할 대신 신다섯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도 시들고 권태가 흐르는 얼굴이었다.

실망이라기보다 부질없는 기대를 품었던 자기를 탓하며 저으기 서운한 마음으로 눈길을 떨군 최익현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침착하게 아뢰었다.

《신은 계유(1873)년과 병자(1876)년과 무술(1898)년에 망녕된 상소를 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갔다가 폐하께서 풀어주는 은총을 받아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신의 한점의 살, 한오리의 터럭까지도 다 폐하께서 주신것이나 같지만 신은 조금도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에 위태로운 형세가 닥쳐온 때를 당하여 폐하께서 친히 불러주시었으니 허심히 받아주실 의향이라면 신은 어리석은 생각이나마 숨기지 않고 다 아뢰이겠습니다.》

《경이 년전에 올린 상소에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 많았으나 짐은 속으로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였노라. 지금 시국이 수습대책을 기다리고있으니 어찌 훌륭한 계획이라면 채용하지 않겠는가.》

최익현은 무릎을 꿇고 앉은채 도포소매속에서 종이두루마리 한통을 꺼내들었다.

《속되고 졸렬한 의견이나마 폐하께서 볼수 있게 삼가 차자를 한통 준비하였습니다.》

머리우에 높이 들어 바치니 비서원 승(관직이름)이 무릎을 꿇고 반아서 황제에게 올렸다.

황제에게 글 읽는 수고를 끼치는것이 걱정되어 최익현은 《숨이 가쁘고 눈이 어둡지만 신이 삼가 차자문을 읽어올렸으면 합니다.》 하고 거듭 청을 드렸으나 황제는 비서원 승에게 차자문을 주면서 어서 읽으라고 하였다.

읽기를 마치고 한동안이 지났으나 웬일인지 황제는 그저 묵묵히 앉아있기만 하였다.

무릎을 꿇고 었드려 비답을 기다리던 최익현은 몇해전이나 지금이나 상소를 받기만 하고 아무 대답이나 대책도 없이 물에 물탄듯 미적지근한 임금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부르는 무슨 연유로 불렀으며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는 누가 바로잡아세운단 말인가. 《율미사변》 후에도 온 나라가 들고일어나 원쑤를 갓자고 했지만 임금은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천추의 굴욕을 참기만 했다. 그랬기때문에 지금 일본군사령부가 버젓이 고시문을 내걸어 나라의 경찰사무를 스스로 담당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의 경무청이나 법부는 모두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이 나라 백성은 일본경찰의 칼끝에서 기를 못 펴고 죽지 못해 살게 될것이 아니냐.

최익현은 참고참던 울분을 터뜨리고야말았다.

《아, 500년 내려오던 나라의 종묘사직과 삼천

리강토가 왜놈들에게 유린당하고있는데 군신이 모두 분발하였다더라면 나라현령이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것이옵니다.

지금 온 나라 신하와 백성이 죄인처럼 엎매여 도록을 당하고있는데도 구해내지 못하니 이게 운명탓이옵니까, 시국탓이옵니까? 아, 후세에 죄인으로 남을바에는 살아 숨쉴 럼치가 없다는 생각뿐이옵니다, 아!»

최익현은 그만 복받치는 오열을 더는 참지 못하고 목놓아 통곡을 터뜨리었다.

물론 외람된짓이었다. 그런줄 알면서도 터져나오는 울분과 설움을 더는 주체할수가 없었다.

터져나오는 통곡을 겨우 멈추고난 최익현은 옷소매로 흐르는 눈물을 대강 닦고나서 아뢰었다.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있다 한들 그것을 어디에 시행하겠습니까. 그래도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시급히 대책을 세우면서 하늘의 운수를 기다리는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최익현은 시급히 몇가지 대책을 아뢰이고나서 이것은 폐하가 실질행동에 옮기는데 달려있으니 속히 처분을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서뽐리 단행할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더 아뢰어야 황제를 괴롭힐뿐이라는것을 깨달은 최익현은 물러나와 대궐밖에서 한달이 넘도록 처분을 기다렸으나 《경은 집에 물러가 기다릴것이다.》라는 비답이 거듭 나왔다.

최익현은 시골에 내려갈수밖에 없었다. 후에 들은 말에 의하면 그때로부터 두달후인 그해 3월에 궁내부 특진관 조병세는 태의원 도제주로 임명되어 황제를 알현한 자리에서 최익현을 어찌서 불러서 만났는가고 물었다고한다. 그러자 황제는 《그가 말을 대바르게 하고 수양도 쌓은 선견지명이 있는 선비라고 하기에 불러 만났노라.》하고 흥심없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진정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던 조병세는 거듭 아뢰었다.

《폐하의 뜻이 그러해서 불러 만났으면 그의 말을 채용하고 그의 재주를 써주어야 하겠는데 먼 시골에 그냥 던져두고있으니 이 무슨 일입니까. 훌륭한 의원을 초빙하고서도 그가 주는 약을 먹지 않은셈이니 어찌 병이 낫기를 바랄수 있겠습니까? … 병자년에 올린 익현의 상소문에는 선견지명이 있는데 그렇듯 안목이 명석한 신하는 웅당 대신의 반렬에 두어야 할줄 아옵니다.》

《짐은 면암을 의정부의 한자리에 두고싶었으나 그때까지 알맞는 직책이 없었노라. 장차 경기관찰사로 승격시켜 그의 재능을 국권회복에 쓰려고 했으나… 끝내… 못하고말았노라.》

황제는 낮빛을 흐리며 말하기를 피로와했다.

아무리 믿는 신하에게도 차마 말 못할 일이 있었던것이다.

…얼마전에 황제는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께가 알현을 청한다 하기에 황태자와 함께 돈덕전에 나갔다. 기다리고있던 하야시공사와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가 살기를 풍기며 첫마디부터 험상스럽게 들이쳤다.

《폐하께서 반일세력을 측근에 규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득이 일본은 군사력을 행사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황제는 매우 당황해하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짐은 알수 없노라.》

《폐하께서 일본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최익현에게 의정부 찬정벼슬을 준데 이어 궁내부 특진관으로 임명하고 장차 경기관찰사로 등용하려 한다는데 그것이 무슨 의도인지를 까밝히지 않아도 우리가 짐작 못할줄 알았습니까?》

황제는 낮빛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하였다.

《그런 일이 없노라. 또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라의 내정이니…》

《내정이라도 일본을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는것을 우리가 방임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최익현은 개인이 아니라 조선의 유생선비들속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기에 우리는 군사력을 행사해서라도 그것을 막을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에 내뿜은 땀을 씻으며 황제는 아무 말도 못하였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최익현을 모든 벼슬에서 떼며 국정에 일체 개입시키지 않겠다는것을 확약해야 하겠습니다.》

더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짜증내듯이 《짐이 그리 알아 조치하겠으니 그만 물러들 가오.》하고 대답하는 황제의 두눈에서 억울한 빛이 눈물과 함께 진하게 어롱거리었다….

상소에 펼쳐나선 사람들이 하얗게 널려있는 대한문앞거리를 훑으며 차거운 바람이 불어지나갔다. 조병세는 최익현의 얼굴을 이윽히 마주보고있다가 바람에 흩날리는 은실같은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늦게나마 면암의 됃됨을 알아보시고 함께 국정을 수습해보자던 폐하의 뜻에는 변함이 없으리라 믿네.》

《폐하께서 나같은 서생을 알아본것이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국권회복을 모색하신다니 실로 다행스럽소이다. 이번 〈조약〉 날조사태는 실로 엄중하여 시급히 대책이 없으면 나라를 영영 잃고말것입니다.》

조병세는 흰 수염을 부들부들 떨며 격노하여 부르짖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저 간악한 5적을 먼저 처단

하지 않으면 천지신명이 노하여 이 땅에 벌을 내릴것이니네.》

최익현도 온몸을 떨었다. 추위때문만이 아니었다.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분하고 통탄스러웠다.

《5적을 처단하는것은 곧 〈조약〉이 날조된것임을 백성들에게 알리는것이고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의지를 내외에 분명히 하는것이니 그 용단 하나만으로도 격동된 민심을 국권회복으로 돌려세울수 있을것입니다. 아울러 각국 공사관에 시급히 공문을 띄워 〈조약〉이 황제의 비준과 참정의 인가도 없이 일본이 날조해낸 허위 문서에 불과하다는것을 알리고 그것을 다 회수하여 없애버리며 각국 공사들의 참가밑에 회의를 열고 강압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강탈한 일본의 죄악을 고발하여 우선 만국의 여론을 크게 불러일으켜야 하리라 봅니다. 지체없이 새 외부대신을 선발임명하여 이상의 업무를 맡기도록 하는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로 명석한 방책일세. 폐하께 빨리 상주했으면 하네.》

조병세일행이 대한문앞에 거적을 깔고 엎드려 기다린지 3일이 지난 그날 한낮이 썩 기울어서 일행을 친히 만나겠다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흔히 상소는 궁내부에 속한 액정서사감이 상소자에게 황제의 칙령을 간접전달하는것이 상례인데 상소자를 친히 만나겠다고 한것은 특례로 될뿐아니라 각별한 관심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조병세는 밝은 낮빛으로 상소문을 들고 대궐로 들어갔다. 황제를 알현하고 상소문을 봉정하였으나 황제는 위로의 말 몇마디밖에 없고 아무런 칙령도 내리지 못하였다.

황제를 더는 괴롭힐수 없어서 일행이 눈물을 뿌리며 대한문을 나서는데 문밖에서 기다리고있던 왜놈경찰들이 그들모두를 체포하였다. 저들의 사전승인없이 황제를 만났다는것이 리유였다.

조병세는 서리맞은 풀잎처럼 되어 이틀만에 일어나왔다.

최익현을 만나자 그는 《면암, 만사절망일세!》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한 나라의 궁내부 특진관으로서 왜놈경찰에 잡혔던 수치감때문만이 아니었다.

황제를 만난데서 받은 절망감과 허탈감이 너무도 컸기때문이었다. 한생 우러러바들며 믿어온 황제에게서 더는 아무것도 바랄것이 없다는것을 깨달은 78살에 난 조병세는 절망을 안은채 자결을 결심하고 비수같이 날카로운 유서를 써서 황제에게 올렸다.

《...신이 죽은 뒤에라도 단연코 5적을 처단하여 천지신명에게 사죄시키고 날조조약을 회수하고

없애버려 나라의 운명을 회복한다면 신은 이제 죽어도 더 바랄것이 없사옵니다. 만일 신의 말이 망녕된것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신의몸을 가지고것을 담그어 여러 역신들에게 줄것입니다. 신은 피눈물에 목이 메는것을 어쩔수 없어서 자결한다는것을 삼가 아뢰입니다.》

조병세는 표훈원에서 다량의 아편을 먹고 자결하였다. 그날이 을사년 12월 1일이였다. 민영환의 자결에 뒤이은 조병세의 자결은 세상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다.

존경해오던 선배의 최후를 알게 된 최익현은 통분하고 한탄스러운 마음을 달랠길 없어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아, 《만사절망》의 이 사태를 과연 한탄이나 자결로 수습할수 있으리란 말인가.

최익현은 선배의 장례를 치르면서 내내 이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나라에 힘이 없고 임금이 속수무책이라 하여 한탄이나 하고 목숨이나 끊으면서 나라 망하는것을 앉아서 보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신하의 도리이고 백성의 도리이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나라를 구원한 레는 저임진왜란때도 있지 않았느냐. 의병을 일으켜 나라에 힘을 보태고 황제를 받드는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찌 충의를 저버릴수 있을소냐.

최익현은 결연히 제자들을 찾아 전라도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4월에 의병을 일으킬것을 결심하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린 후 지체없이 출병했으나 뜻밖에도 《정부》가 관군을 풀어 의병을 치는데 이르자 최익현은 이룰수도 없고 바랄수도 없는 《충군애국》을 마음속으로 피타게 부르짖으면서 총칼을 내려놓고 스스로 잡혀 왜놈들의 외진 섬으로 끌려오고말았던것이다. ...

4

적국의 외진 섬에 갇혀 꿈에도 바라는 국권회복의 날은 보지 못하고 한생을 마쳐야 하는 최익현의 마음은 비통하기 그지없었다.

아, 장차 이 나라, 이 강토는 어찌될고?...

자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것이나 같고 나라가 없으면 삼천리강토와 백성은 다 노예로 되는것이니 노예가 되어 사는것은 죽는것만 못한것이다.

이 나라 백성은 장차 어디서 살길을 찾아야 하는고?...

최익현은 붓을 든채 살창밖 멀리에 펼쳐진 쪽빛하늘을 하염없이 내다보고있었다.

오로지 각자가 스스로 분발하여 저 하나의 생

명보다 나라를 생각하고 임금을 받드는 마음을 가지는 거기에 살길이 있다.

백성들이 모두 죽음으로 싸울 각오를 하며 다른 마음을 더 가지지 않는다면 어찌 외적과 역적을 소멸하고 국권을 회복할수 없겠는가.

최익현은 들고있던 붓을 힘주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흰 종이위에 《충군애국》이라는 네 글자가 나타났다.

《충군애국》이라... 최익현은 붓을 든채 생각에 잠기였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임금에게 충성하는것이 곧 애국이 되고 애국하는것이 곧 충군이라는것으로 뜻이 통한다.

그렇다면 임금의 뜻을 거역할수 없어 들었던 충칼을 내리운것이 《충군애국》이었던나. 아니면 임금의 뜻을 거역하고 관군과 맞서 싸우는것이 《충군애국》이었던나.

내 한평생 믿어오고 지켜오고 뼈와 살로 굳혀온 《충군애국》이란 대체 어떤것이었던란 말이나.

백성의 힘을 믿고 충칼을 믿어야 한다면 림병석의 말이 그르지 않다면 이 면암이 한평생 신조로 삼아온 《충군애국》은 대체 어떤것이었던란 말이나. ...

그날밤, 최익현은 등불을 밝히고 앉아 별이 총총한 멀리 북쪽하늘을 바라보며 시 한수를 남기였다.

이 몸을 일으키어 북두성 빛나는 조국을 바라보니
백수로 잡힌 몸의 통분함을 억제할수 없어라
만번 죽어도 적국의 부귀를 탐낼소나
오로지 일생에 내 나라 잊지 못하노라

다음날 아침에 수감소로 몇사람의 류배 《죄인》들이 더 끌려왔다.

전라도 순천의병대에서 싸우다 잡힌 사람들이라는데... 그 사람들중에서 체통이 큰 한사람이 최익현의 앞에 와서 풀썩 무너지듯 엎드려였다.

《선생님!》

《음?!...》

《불초제자 림병석이 문안드립니다.》

《음?! ... 림병석이라니?...》

첫순간에는 놀랐고 다음순간에는 제 살길을 찾아 스승을 버리고 떠나가던 지난날의 그의 일이 생각나면서 가슴속에서 누를길 없는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내가 가는 길을 따르지 않겠다 하더니 어떻게 예까지 왔는고?》

최익현의 어조가 차고 날카로왔다.

《전라도 순천의병대에 가서 싸우다가 왜놈들에게 성을 빼앗기고 불행히 잡힌 몸이 되었습니다.

신식무장을 한 왜놈들이 대포를 쏘아대며 쓸어들자 겁을 먹은 의병장 민종철이 도망치고 군사 김효덕이 투항하니 지휘를 잃은 우리가 총가목이다 부러질 때까지 육박전을 벌렸으나 어떻게 견디어내겠습니까? ... 후날을 기하고 한몸을 뺄수도 있었으나 대마도에 류배가신 선생님의 신상이 걱정되고 더구나 목숨은 버리어도 스승의 가슴속에 비겁한 제자로 남고싶지 않아 오라를 지고 스스로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선생님, 잘못 많은 이 제자를 부디 용서해주시시오.》

최익현은 말없이 뜨거운 눈길을 들어 림병석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래도 그대는 인간답고 사나이답고 장한 사람이로다! 제 한목숨 아껴 몸뻐는줄 알았더니 마지막까지 목숨을 내대고 싸우다가 잡혀왔은즉 내 스승으로서 사람들앞에서 덜 부끄럽구나. 그런데 수백명 의병의 아까운 생명을 적의 총부리앞에 내버리고 비겁하게 도망쳤다는 민종철, 김효덕이 ...

평시에는 《충군애국》을 목이 터지게 부르짖던 그네들이 정작 생명을 내대야 할 판국에 들어가는 제 한목숨만을 먼저 생각하는 속물이 되고 말았더라란 말이나.

문득 최익현은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충군애국》에 대해서 그네들보다 더 많이 말해온 면암, 그대는 그것을 지켜 어떻게 싸웠더라.

의병을 일으켰으나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한채 총을 놓고 류배 《죄인》으로 굴러떨어졌을뿐 평생 나라를 위해 종이우에 상소문이나 격문 몇자를 쓴것밖에 없고 전장에서 칼을 휘두르며 생명을 걸고 싸워본적도 없는 선비에 지나지 않았다.

의병대를 이끌면서 보니 농사짓던 사람들은 한몸 내대고 나설 대목에서는 언제나 유생들과는 달라 서슴는것이 없었다.

《충군애국》은 말로 하는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고 실천으로 하는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충군애국》하는 사람이라 불러야 하겠는가.

백성의 힘을 믿어야 하고 충칼을 믿어야 한다면 림병석의 웨침은 바로 이러한 실상을 반영한 피타는 웨침이 아니였을가 하는 생각이 문득 뇌리를 쳤다.

아, 갇힌 몸만 아니라면 당장 대궐로 달려가 이런 실상을 임금께 아뢰여보면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조이며 애타하는데 10월 21일에 만아들 최영조가 수감소를 찾아왔다.

수비대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대신 간혀있겠으니 수감소에서 주는 일체 음식을 거절하면서 살고있는 늙은 아버지가 집에 나가서 운명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한다.

《아버님, 이것은 어머니이 손수 꾸려주신것이니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최영조는 단식을 한 까닭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수척해진 늙은 아버지의 얼굴을 눈물어린 눈길로 살피면서 따끈히 덥힌 미음을 내놓았다.

최익현은 그 미음을 몇순가락 받아 삼키더니 《그만 됐다. 내 나라의것이랴니 몸에는 약이 되고 마음에는 힘이 될게다. 그래 집에서는 모두 별일 없느냐?》하고 다정히 물었다.

《예, 어머님은 그저 아버님이 무사히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님의 친지분들과 제자분들이 위문차로 자주 집에 들리는데 지금 항간에서 아버님을 원쑤의 손에 넘겨준것은 〈정부〉의 잘못때문이라고 논의가 분분하답니다.》

최익현은 노기를 참을수 없는듯 흰 수염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 〈정부〉라는데 목을 쳐야 할 친일5척이 그대로 앉아있는 〈정부〉이니 그럴수밖에...》

갑자기 기력이 쇠진해가는것을 느끼며 최익현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황제를 만나고 나와서 《만사절망일세!》하고 울부짖던 조병세의 비통한 목소리가 다시금 귀전에 들려오는듯 하였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가슴을 흔들며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와 얼굴이 점점 멀어지는것을 느끼면서 최익현은 의식을 잃었다. ...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알수 없는 속에 우렁이 환영이 떠올랐다.

모두들 임금을 뵈오러 간다고 하여 그도 입어본지 오랜 조복을 갖춰입고 대궐을 향해 가고있었다. 룡상은 황금빛에 휩싸인채 아득히 높은 대궐의 정전마루우에 놓여있었다.

덕수궁인지 창덕궁인지... 어느 궁궐인지도 분명치 않았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것은 뵈우려는 임금이 누구인지도 알수 없는것이였다.

지금의 황제도 아니고 유명한 세종대왕도 아니고... 그렇다면 단군성왕이신가? 그도 아니고 고구려시조 동명왕, 광개토왕, 고려태조 왕건대왕... 아니 을지문덕장군, 강감찬장군, 최영장군, 리순신장군... 아니 그도 아니다. 어쨌든 세상에 다시 없을 현명한 임금이고 뛰어난 명장인 그런 위인을 뵈옵게 된다는것이였다.

그렇다면 저 대궐이 좀더 으리으리하고 룡상도 좀더 번쩍거렸으면...

임금뵈우러 함께 가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

처음에는 을사년에 자결한 민영환이 갈아서 다시 살펴보니 흰 수염을 가슴에 드리운 특진관 조병세같기도 하고... 《위정척사》의 기발을 든 스승인 화서 리항로선생인가 했더니 그도 아니고 의암 류린석인가 하여 다시 보니 그도 아니고... 누군지 분명치 않은데 쌍학흉배를 붙인 금관조복

을 펼쳐 입은것을 보니 조정관리가 분명하였다.

최익현은 모든 일이 너무도 이상스러워서 그 사람에게 물었다.

《이제 뵈옵게 될 임금이 뉘시랍니까?》

그 사람은 그냥 룡상쪽을 바라보고 걸으면서 대답했다.

《글쎄, 뉘시라고 꼭 짚어 말할수는 없으나 품은 뜻이 비범하고 예지와 지략이 출중하고 무비의 담력과 열화같이 뜨거운 인덕을 지니신 성군(신성한 임금)이시라고 합니다.》

아, 그런 임금이 나셨으니 이제는 이 나라와 백성이 왜놈들의 굴욕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살겠구나!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진정할길 없는데 그 사람의 말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 임금은 품은 큰 뜻으로 이기고 신념과 의지로 이기고 담력과 배짱으로 이기고 열정과 인덕으로 이기는 그런 명장이라 합니다.》

아, 그러니 나라의 부국강병도 비로소 이루어지겠구나! 군력이 강해지면 그 누구도 우리 나라를 감히 넘보지 못할것이고 불가사리떼같이 덤벼들던 양이선(서양침략선)들도 더는 범접 못할것이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이 세상에 빛나겠구나!

룡상가까이에 이르자 최익현은 감히 쳐다볼 엄두를 못내고 신하의 떼절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머리를 깊이 숙이였다.

《바라볼것이다!》

룡상쪽에서 문득 이런 낯익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덕수궁에서 처음 알현했을 때 황제가 하던 그 말이고 그 목소리였다! 이게 웬 일인가? 너무도 이상하여 천천히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첫눈에 보이는것이 검은 목화를 신은 임금의 발이요, 그 다음은 무릎을 덮은 자황색곤룡포자락... 번쩍거리는 각띠... 모든것이 그때 보던 그대로였다.

눈길을 조금만 더 들면 임금의 얼굴이 보이겠구나 할 때 갑자기 번쩍, 파르릉! 하면서 번개치고 우뢰가 울고 눈앞에 펼쳐졌던 모든것이 사라져버렸다.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한데 먼하늘 한끝에서 낯익은 웅글은 말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백성의 힘을 믿고 총칼을 믿어야 합니다.》

아, 그것은 순창의병대진지를 떠나면서 립병석이가 격분에 차서 웨치던 말이였다.

그 말소리에 이어서 철썩! 립병석의 뺨을 치던 그때의 그 소리까지 귀전에 크게 들려오자 최익현은 흠칫 놀라며 눈을 떴다.

수감소 살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이 보이였다.

아, 꿈이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의식이 돌아서는 첫 순간에 《아버님, 정신이 드십니까?》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득히 먼곳에서 울려오듯

희미하게 들려왔다.

현실을 의식하면서 최익현은 아들쪽으로 천천히 눈길을 돌리었다.

최후의 시각이 왔다는것을 깨달았다.

조용히 한생을 돌이켜보니 제자 림병석이가 한 그 말에 큰 진실이 있다는것이 점점 뚜렷해졌다.

최익현은 감았던 눈을 힘들게 뜨며 림병석을 찾았다. 맏아들 영조의 곁에 무릎을 꿇고앉은 형지 큰 그의 모습이 보이였다.

《림군, 임자가 옳은 말을 했지. 이 못난 스승의... 뺨을 쳐주게. ...》

《선생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정하십시오.》

《림군, 충군이란 나라와 백성을 위한 큰뜻이 있고, 큰 지략이 있고 큰 덕망이 있는 그런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말인줄... 내 몰랐네. 참다운 충군을 해보고싶네만... 늦었지. ... 신하와 백성이 모두 참다운 충군을 하는 그런 날이 와야... 나라에 운이 트이고 만백성의 운도 트이구...》

그래야 충군이 곧 애국이 될것임을 명심하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인줄 짐작한 최영조와 림병석은 쏟아지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면서 목메여 대답하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익현은 맥없이 눈을 감았다.

위급해진 아버지를 찾아 급히 먼길을 달려온 둘째아들 최영호가 약을 내놓았으나 최익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숨이 꺼져가는 이 나라를 살릴 약이 없는데 하물며 살 명분이 없는 이 최익현을 살릴 약이 어디에 있겠느냐. 왜놈들을 쳐몰아내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룩하였다고 하면 이 최익현이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 일어설것이다.

아, 그런 날이 과연 언제 있을가.

품은 뜻이 크고 지략이 출중하고 덕망이 높고 세상을 놀래울만 한 담력과 용기를 가진 그런 명장이 나타나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야만 단군 이래 반만년의 민족사가 이어질것이고 이 나라는 부국강병할것이고 우리 민족은 세상에 빛날것이니...

아, 하늘이여, 부디 이 나라, 이 겨레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소서! 그런 행운을 내려주소서!

최익현은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머리맡에 앉은 두아들과 림병석과 여러 수감자들을 바라보며 나직하나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새날은 아직 멀었느냐?》

뜻밖의 물음이었다.

스승의 묻는 뜻을 얼마간 짐작한 림병석이 의미깊은 어조로 대답하였다.

《선생님, 설달그믐이 거의 지나가고 새해의 새날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아무 기척도 없던 최익현은 한동안이 지나서야

자신에게 말하듯 겨우 들리게 몇마디를 입밖으로 내이었다.

《음... 새날은 오고있는데... 새날은 오고있는데...》

이 말을 거듭 되뇌이면서 최익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74년동안 충군애국에 높뛰던 심장이 더는 뛰지 않았다.

《아버님, 아버지님!》

아버지를 애통하게 부르며 터뜨리는 두 아들의 통곡소리가 살창밖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속으로 울려퍼지였다.

최후를 마치면서도 민족이 세기를 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절세의 명장이 나타나는 그러한 대통운의 새날을 절절히 바라던 그의 강직한 녀이 떠나감을 애석해하는 통곡소리였다. ...

그의 유해가 배에 실려 부산항에 도착하였을 때 수많은 제자들과 군중이 마중나와있었다.

령구차에는 정헌대부 의정부찬정 면암선생 최공의 령구라고 쓴 붉은 천이 드리워져있었다. 살아 영원하는 그의 강직한 녀인듯 그 붉은 천은 힘차게 펄럭이고있었다. ...

고전시

농부 (외1편)

원작 박윤원(1734-1799) 역 조정숙

밭에서 일하는 농부네들은
진창속에 두다리가 빠져있거니
귀공자들 그 정상을 본다하며는
식탁에 오른 밥이 어이 달소냐

국화

노란 국화 가을 되니
절로 피었네
찬서리도 너만은
꺾지 못하네

네 본래 대바르지
않다 하며는
늦철에 핀 너를
어이 볼소냐

아들아, 이것이 언제란다

고남철

녀인의 집

—아빠, 언제가 뭐나?
봄별이 수를 놓은 호수물우에
문득 떨어지는 돌덩이인듯
녀인의 마음에 먼저 박히는
아들애 목소리

숫아야 할 언제를 가운데 두고
두 세대가 마주선 순간
녀인은 배낭 챙기던 손 멈추고
남편얼굴만 쳐다보고...
말없이 나무토막 자르고 깎아
아빠는 꼬마언제를 만들고...

어뜩새벽 돌격대배낭을 메고 일어난 애아버지
—혁철아 아버지가 이 배낭에
진짜언제를 메고 오마!
아들과 첫 약속을 나누고
걸음도 거뜬하게 집문을 나섰지

한가정의 생활의언제를 쌓을 시절
우리 장군님 머나먼 전선길 달려오시여
태천발전전설장을 다녀가신 1월의 그날
어제날 병사배낭을 돌격대배낭으로 바꿔메고
붉은기 날리며 중대를 이끌고
고일령넘어 달려간 제대병사

굽이굽이 대령강에 새 물길 여는
돌격전의 앞장에서 달리던 젊은 중대장
굴러내리는 바위돌을 한몸으로 막으며

두 처녀를 생의 대로에 떠밀어세운
장한 청춘이여

녀인의 아픔 나눠주던
혈육들과 이웃들 돌아간 저녁
녀인의 눈을 꼭 채우며 처음 날아든것은
군복과 나란히 걸려있는
아 돌격대배낭

누가 지고 가라 저 배낭
아들애와 아버지와의 약속인 배낭
녀인의 집이 백가지라 하여도
그 배낭을 자기의 짐으로 정하고
그 배낭메고 녀인은 남편의 발자국 이어갔다
네살난 아들애는 친정에 맡기고...

눈오면 눈에 얼고
비오면 비에 젖으며
대령강 성깔사나운 물결을 쳐막아
언제를 세운 돌격대녀인
처녀들의 소대장이 오늘도 메고 가는
배낭 하나!

녀인이 일떠세운 산악같은 언제마냥
크게 안겨오는 그 배낭
녀인의 그 배낭속에
아,언제가
언제가 있었다

《언제 엄마》

대령강천리에 불빛바다 펼쳐지는 첫 아침
발전기실 컴퓨터 푸른 화면에서
아들의 얼굴 그려보는
녀인의 마음에 울리는 그 목소리
—엄마,언제가 뭐나?

삼복의 불덩이를 머리에 이고
천년암반을 까내여 발전기실을 세울 때도
물풍스런 눈보라를 짓태우며
불뭉치를 추켜들고 몰탈을 다질 때도
걸음걸음 울려오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 생각하며
그 목소리 들으며언제를 쌓은 녀인
꽃무늬 새옷도 아니고
재롱스런 장난감도 아닌언제를 찾는

그 목소리휴가길 가다가도
언제없이 아들앞에 어이 가랴
백리길 돌아와 휴가도 바쳐온 녀인

그것은언젠가 학원으로 떠나던 아들애
안기고싶던 엄마품에 머리박으면서도
맘속에 꽃얼음진 《꼬마동》을 터뜨리는 소리
—씨,언제가 나보담 곱나
엄만 《언제 엄마》야

《엄마동》은 다 못 쌓아 아직은 할말 없어도
언제쌓는 일에 취해
대령강에 쏟은 땀이 모두 실린것 같아
녀인의 심장이 절로 불려본 부름
—그래엄만 《언제 엄마》
언제는 엄마언제란다!

등근달은 호수에 내리고

달맞이봉 등근달
푸른 물에 내리고...
처녀들 환한 얼굴
푸른 물에 어리고...
돌격대 첫날밤 달구경편
달맞이봉 저너머 기울던 등근달
푸른 물에 절로 내린 이밤
달덩이같은 처녀들
처녀같은 보름달

함마명수로 소문난 달님아
소담한 머리채 달빛에 휘감으며
얼굴씻는 네 모습 참 예쁘구나

버들숲의 《빠꾸기》홀로 올라지
저쯤 따로 앓은 은별아
정들은 그 총각 옷을 빨며 사랑의 방아찢는 네

마음
달속의 옥토끼가 엿보누나

처녀와 달과 그리고 푸른물
달래랑 냉이랑 봄나물 가리며
한껏 우거지는 청춘의 꽃술을 안아보는
소대장녀인은 엄마나무와 같아

성미거친 대자연 길들여 새 언제 쌓아
시대의 새 기상 펼친 장한 처녀들
대령강 《예쁜이》로 단장시켜주고 싶어
등근달도 금겨울되어 내린 이밤

등근달은 호수에 내리고...
하늘의 달을 안아내려
달을 안고 달속에 웃는 처녀들 모습
푸른 물에 비낀 또 하나 청춘언제

아들아, 이것이 언제란다

푸른 강, 푸른 물위에 나래편 청춘언제
하얀 물안개 감겨도는 언제길을
학원복 입은 아들과 어깨나란히
돌격대녀인은 걸어간다
말없이... 말없이...

한손은 아들에 손목잡고
한손은 돌격대배낭끈
남편의 손인듯 꼭 잡고
걸어가는 너인에게 언제가 새집인듯
한식술 다 모인 그 저녁처럼

저기 언제벽에 새겨져있구나
사계절 모래바람 태질하는 외진 강변에서
애어린 단발머리들과 처녀시절 두번 살며
한겨울에도 얼음물에 땀 쏟으며
돌격대배낭 메고 걸어온 너인의 모습이

너인의 가슴에도 있었더라
또랑또랑 꽃망울이 터치는 노래 들으며
한가정의 행복을 가꾸고싶은 마음이
온 마을 너인들 부러웁게
아들애 의적이 앞세우고
학교길 걷고싶은 그 사랑이

별이라도 따다 아들의 가슴에 안겨주고싶던 그
밤엔
돌격대배낭을 더 힘껏 지고 걸은 너인
땀벌창, 물벌창이 되어 지친 그 새벽엔
어서 언제를 안겨주자고 남편의 목소리 울리는

그 배낭을 마음속에 억세게 안고 일떠선 너인

아들위한 정만큼 언제를쌓고
아들에게 바치는 사랑만큼
대령강의 모래와 자갈을 다 담은 너인의 배낭
언제는 그 배낭이 커지고 자란것이던가

흰구름을 이마에 두른 태천언제
달맞이봉이 풍덩 몸잡근 3호언제
갈매기날음조차 유정한 푸르른 수평선
신군8경 한드레벌에 어울려
총대를 틀어잡은 너병사들과 한모습으로
후방의 소박한 너인들도
땀을 바쳐 안아올린 사회주의 새 선경

언제가 뭐나 묻는 아들의 심장에
자기의 언제를 떼땀이 박아 세워준 너인
어머니는 아들로 아는 언제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는 언제우에
우리 장군님 사랑의 미소가
찬란한 해돋이로 불타는 아침이어

아들아 맘껏 달리고 날아라
아버지의 어깨같이 튼튼하고
어머니의 품같이 넓은 언제길
이 세상 가장 끈고끈은 이 길을 걸어
너의 언제를 네손으로 쌓거라
언제길은 끝나도 너인의 가슴에
아 새 언제는 끝없이 솟고솟아!

《소정지옹》에서 《도향》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문학사나 예술사에서 취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작가, 예술인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문학사와 예술사에도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줌으로써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난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지는데 있다.》

우리 나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의 한사람인 라도향에 대하여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본다.

다 아는것처럼 그의 아명은 경손, 본명은 빈이요 도향은 그의 필명이다.

도향—벼꽃향기라는 그의 필명을 음미해보노라면 당시 비교적 안정되였던 중산층환경에서 나서 자라났으나 사회악의 병폐에 물젖지 않고 인민대중을 동정하여 날카로운 현실비판의 길에 들어선 작가의 내적지향세계가 어느 정도 안겨오는듯싶다.

그러나 라도향에게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별호—《소정지옹》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것이다.

라도향은 장편소설 《환희》를 창작할 당시 자신을 돌이켜보며 스스로 《소정지옹》(웃음 소, 정자 정, 갈 지, 늙은이 옹)이라고 가리켜 불렀는데 이것이 그후 여러 잡지들에 그대로 소개되면서 당시 문단에서 작가의 별칭으로 통용되게 되었던 것이다.

작가자신의 설명에 의한다면 이 말은 《웃기를 잘하는 가운데 숙성했다.》는 의미라고 한다.

세상물정에 어두우며 환락의 신기루속에서 친진스럽게 웃고만 있던 어린 도향의 마음속에 늙은이가 들어앉아있었다고 하는것은 참으로 창작 초기 감상과 랑만의 세계에서 자만도취하고있던 그의 모습을 방불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의술을 장손에게 물려주려는 할아버지의 강요를 뿌리치고 불타는 문학적정열로 일본 와세다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였으나 학비중단이라는 가문의 단호한 조치로 뜻을 이룰수 없게 되데다가 부르조아문예지 《백조》의 영향까지 받게 된 라도향은 창작초기 현실과 유리된 허황한 공상과 감상적인 애수의 세계를 추구하는 애상적인 랑만주의경향의 소설작품들을 창작하는데로 기울어졌다.

《이 작품은 어른이 아니요, 어린애인 도향의 장난이외다. 조금도 거짓이 없고 꺼리낌없이 여러분 앞에 내여놓는 저의 일생의 어떠한 국면을 등그려미쳐 놓는 희선》(장편소설《환희》서문)이라고 작가자신이 고백한바도 있지만 이 시기 《백조》의 문학적분위기속에서 나온 단편소설들인 《젊은이의 시절》〔주체11(1922)년〕, 《별을 안거든 울지나 말걸》〔주체11(1922)년〕, 《옛날 꿈은 창백하더이다》〔주체11(1922)년〕 등이 바로 《소정지옹》으로서의 그의 초기창작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당시의 《개벽》잡지〔주체12(1923)년 1월호〕에 실린 《문단1년을 추억하야(—현상과 작품을 개평하노라—)》라는 글에서는 상기의 작품들을 두고 소설《옛날 꿈은 창백하더이다》가 어린애의 인상을 방불하게 그렸으며 전시기작품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또 장편소설《환희》에 대하여 빈곤한 우리 문단에서 자랑할만 한 작품이며 《동아일보》에 우리 손으로 된 상당한 소설을 넣게 된것이 신문소설계를 위해 기뻐할 현상이라고 떠들어댔다. 바로 이러한 부르조아문단의 찬미속에 자만도취하여 《백조》의 랑만적세계에서 헤매이던 《소정지옹》—라도향에게 제때에 경종을 울려준것은 당시의 진보적문예비평들이었다.

주체12(1923)년 2월호《개벽》지에는 《무책임한 비평》이라는 김억의 비평이 실려있다. 여기서 필자는 앞서 언급된 라도향의 작품들에 대한 평가를 두고 작가의 사상과 감정 그리고 형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통찰이 없이 쓴 글이라고 강하게 비난한것이였다.

물론 김억은 글에서 도향의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비평은 하지 않았지만 자만과 공상에 들뜬 작가에게 자기의 창작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는 계기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게다가 《개벽》〔주체12(1923)년 1월호〕에 실린 《문단풍문》이라는 글에《…소설〈환희〉가〈동아일보〉에 려면 재되면 떠드는 이 세상이 또 야단이구나. 두어라, 별호가〈소정지옹〉이니 또 웃을 날이 있겠지.》라고 쓴 론조도 라도향을 자극하였다. 《웃음속에 숙성한다.》는 도향의 별호를 두고쓴 이 글 역시 결국 숙성치 못한 라도향의 창작, 애매몽롱한 허된 희롱(환희)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는 라도향의 감상적부르조아문예관에 대한 은근한 비난이 아닐수 없었던것이다.

라도향은 자신의 창작을 심각히 돌이켜보지 않

을수 없었다.

《하루 사오십매씩은 누워서 엮먹는 썸이었다.
...

참으로 그때 일을 생각하면 경망스럽고 무질서하고 또는 사색과 구상에 들어서는 조금도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만 붓이 내려가는데로 글을 써놓은것이다.》〔《조선문단》주체14(1925)년 3월호〕

이처럼 미숙한 자기의 창작세계를 타매하며 모대기던 라도향에게는 언젠가 리상화가 하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 《백조》의 세계에서 벗어나 프로레타리아문학을 지향하고있던 리상화는 작가들의 들뜬 랑만과 소부르조아적감상의 창작경향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상섭, 빙허, 도향 같은 사람들은 하루빨리 감상적생활을 버리고 될수록 오늘의 조선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얻은 감촉으로 창작을 진행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였던것이다.

바로 그것이였다.

하늘의 별을 따는 신기루에서 헤매일것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붙이는것이 중요한것이였다.

드디어 라도향은 웃음속에 조숙한 늙은이—《소정지웅》의 감상적랑만에서 벗어나 《도향》(벼꽃향기)이라는 자기의 필명을 되찾고 정든 향촌과 인민대중의 생활에 주의를 돌리기 시작하였다.

《...내 본시 도회생활을 구한다 하면 극도의 도시로 가서 쇠소리나는 감정을 가진 그네들과 사귀어보고싶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심산벽촌이나 해향어에 흠내나는 마음을 가진이들과 친해보고싶고 서울같이 반버들층이는 바라는바가 아니지마는 운수가 시키는 일이라 하는수 없이 여기에 붙어있는것이다.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이야 어찌 그러하랴.》

《조선문단》잡지〔주체14(1925)년 9월호〕에 피력한 도향의 이 술회는 자신의 근면하고 성실한 로력으로 살아가는 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동정을 엿볼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주체12(1923)년이후 라도향의 창작에

서는 사실주의적성격이 강화되면서 불합리하고 모순에 찬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과 립장이 구현되게 되였다.

젊은 교원의 시점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의 이모저모를 측은한 심정을 담아 그려낸 단편소설 《17원 50전》〔주체12(1923)년〕으로부터 시작하여 단편소설 《행랑자식》〔주체12(1923)년〕, 《자기를 찾기전》〔주체13(1924)년〕, 《전차차장의 일기 몇절》〔주체14(1925)년〕, 《계집하인》〔주체14(1925)년〕, 《물레방아》〔주체14(1925)년〕, 《지형근》〔주체15(1926)년〕 등은 《백조》시절 《소정지웅》으로서의 그의 초기작품들과 구별되면서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서의 도향의 개성을 잘 나타내고있다.

물론 주체12(1923)년 이후 라도향의 창작이 일관하게 사실주의적성격을 띠고있는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현실폭로적성격과 사회비판적기백은 강하지만 주로 랑만주의적수법으로 씌여진것으로 하여 진보적랑만주의계렬에 속하는 《병어리삼룡이》와 같은 작품들도 있고 일부 자연주의적경향의 작품들도 보이고있다. 이것은 도향에게서 《백조》시절의 감상적랑만속에 깃들어있었던 퇴폐적인 미학견해와 자연주의적창작태도의 여지가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기 창작의 전기간에 걸쳐 《소정지웅》에서 《도향》으로, 감상적랑만주의에서 비판적사실주의어로 《숙성》해가던 라도향은 자기의 계급적 및 문예관적제한성으로 하여 보다 높은 현실적요구에 따라서지 못한채 주체16(1927)년 25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말았다.

라도향은 창작기간에 3편의 장편소설과 20여편의 단편소설을 썼다.

그러나 곡절도 많고 제한성도 있지만 어쨌든 라도향은 1920년대 우리 나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의 한사람으로 문학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리철국